

공간으로 읽는 범죄 데이터

조영진 선임연구위원

김영준 연구원

문보람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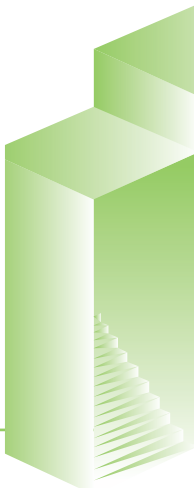
김은희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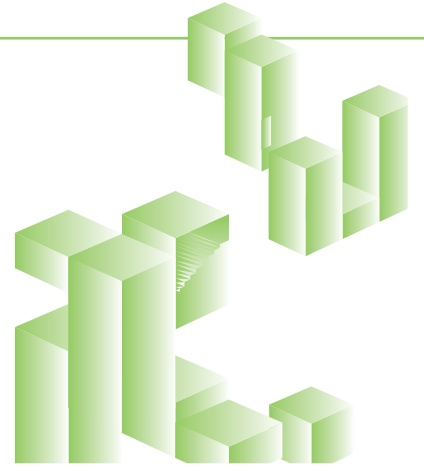
(auri) 건축공간연구원

CONTENTS

공간으로 읽는 범죄 데이터

PART 1 일러두기	006	1. 개요
	007	2. 범죄 관련 데이터 수집과 가공
	007	1) 기관별 범죄 관련 데이터 수집 현황
	011	2) 범죄 관련 데이터 가공
PART 2 전국 5대 범죄 발생 현황	017	1. 전국 5대 범죄 발생 지도(발생건수)
	023	2. 전국 5대 범죄 발생 지도(인구 1만 명당 발생건수)
PART 3 지방자치단체 5대 범죄 발생 현황	032	1. 경찰청 범죄통계(2023)
	033	1) 지방자치단체 5대 범죄 발생 통계(발생건수)
	040	2) 지방자치단체 5대 범죄 발생 지도 (발생건수, 인구 1만 명당 발생건수)
	074	2.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2023)
	074	1) 지방자치단체 5대 범죄 발생 통계(발생건수)





PART 4
단위공간
주요 범죄 발생 현황 및
공간 취약성 분석

080	1. 가로 단위 5대 범죄 발생 분석
080	1) 경찰청 범죄통계(2023)
081	2)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2023)
083	2. 주거건축물 단위 5대 범죄 발생 분석
083	1) 경찰청 범죄통계(2023)
084	2)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2023)
086	3. 비주거건축물 단위 5대 범죄 발생 분석
086	1) 경찰청 범죄통계(2023)
088	2)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2023)
090	4. 범죄 피해조사 기반 공간 취약성 분석
090	1) 사건 발생 장소 유형별 피해 경험
100	2) 가해자 특성과 침입 경로

PART 5
주관적 안전 인식과
범죄 두려움 분석

106	1.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2020)
106	1) 상황별 두려움 정도
110	2) 일상생활 중 범죄피해 두려움 정도
116	3) 범죄피해 유형별 두려움 정도
132	2. 통계청 사회조사(2024)
132	1)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와 불안 요인
135	2) 야간 보행에 대한 인식도와 불안 요인





일러두기

공간으로 읽는 범죄 데이터

PART 1

일러두기

1. 개요

우리나라의 범죄 관련 데이터는 경찰청, 대검찰청, 통계청,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 여러 기관에서 서로 다른 목적과 기준으로 구축되어 왔다. 이로 인해 동일한 현상을 비교하고 해석하려 할 때 형식과 분류 체계의 차이가 장벽으로 작용했고, 이용자는 기관별로 흩어진 자료를 각각 수집하고 정합해야 했다. 이 책은 이러한 분절을 해소하고자 분산된 공공 데이터를 한 권으로 모아 건축물-가로-행정구역이라는 단위공간의 관점에서 재가공하고 연계한 종합 안내서다. 단순한 통계 나열을 넘어 공간 맥락에서 범죄의 패턴과 주관적인 불안을 함께 읽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한, '전국-지방자치단체-단위공간-주관적 인식'으로 이어지는 위계 기반 구조를 갖추어 독자간 필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추가적으로 지도와 비율 지표를 통해 누구나 직관적으로 현황을 파악하도록 구성했다.

제2장은 경찰청 범죄통계(2023)를 기반으로 전국 시·군·구의 5대 범죄 발생건수와 인구 1만 명당 지표를 지도 기반으로 제시해 국가 단위의 공간적 편중과 밀집 특성을 파악하는 출발점을 제공한다. 제3장은 경찰청 범죄통계(2023)와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2023)를 종합해 지방자치단체별 발생건수와 인구 1만 명당 발생건수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함으로써 지역 위험도의 상대적 차이를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제4장은 가로·주거건축물·비주거건축물 단위로 데이터를 재편하여 공간 유형별 사건 분포를 해석한다. 여기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국민생활안전 실태조사(2020)의 피해자 기반 정보를 결합해 실제 피해가 발생한 장소와 침입 경로를 분석함으로써 단위공간별 취약성을 현실적으로 제시한다. 제5장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국민생활 안전실태조사(2020)와 통계청 사회조사(2024)를 활용해 주관적 안전 인식과 범죄 두려움에 대해 분석하여 실제 발생 통계와 체감 위험 간의 차이를 설명하고 공간 안전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균형점을 제공한다.

이 책은 독자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읽을 수 있다. 연구자는 제3장의 기관별 데이터 구조와 제4장의 단위공간 기준을 참고해 재현 가능한 분석 체계를 신속히 구축할 수 있으며, 중앙·지방 공무원은 제2·3장의 지도와 인구 보정 지표를 활용해 지역별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CPTED 계획가와 도시설계 실무자는 제4장의 공간 유형별 취약성과 제5장의 인식 결과를 결합해 조도·동선·감시성 등 설계 전제를 도출할 수 있다. 일반 시민은 제2·3장의 거주지 기반 지표를 참고해 생활 안전 점검에 활용할 수 있고, 제5장을 통해 체감 안전과 실제 발생 간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통계와 분석 결과는 각 기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재가공하여 활용한 것으로, 원자료의 세부 기준과 산출 방식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원천 데이터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는 수집 시점과 공개 범위에 차이가 존재하며 이 책은 각 출처의 정의와 한계를 투명하게 병기하여 해석상의 오류를 줄이고자 했다. 이 책이 다양한 공공 데이터의 공간 통합 표준을 제시함으로써 연구·정책·설계·시민 의사결정 전반에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범죄 관련 데이터 수집과 가공

1) 기관별 범죄 관련 데이터 수집 현황

경찰청 범죄통계,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 통계청 사회조사(범죄와 안전 부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전국범죄피해조사)와 같은 주요 범죄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여 공간 단위로 재구성하고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각 기관별로 서로 다른 형태와 기준으로 제공되는 범죄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경찰청 범죄통계

전국 각급 경찰관서에서 처리한 형사사건을 체계적으로 집계하고 분석한 국가 공식 범죄통계로 우리나라의 범죄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인 치안정책 수립에 필요한 핵심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이 통계는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산하 수사심사정책담당관실에서 작성하며, 통계청이 승인한 국가승인통계로 2007년 11월 28일 최초 승인을 받았다. 보고통계의 성격을 가지며 일반 통계로 분류되어 정부정책 수립과 학술연구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통계의 주요 작성 목적은 범죄 발생 현황을 분석하고 범죄 추세를 파악하여 형사정책 및 사회 치안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며, 범죄·안전 분야 통계로 분류되어 치안정책 수립, 범죄 예방 전략 개발, 수사력 배치 등 경찰 업무 전반에 활용된다.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작성되는 연간 통계로서 작성 기준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작성기준년도 익년 8월에 공표된다. 현재 2012년부터 2024년까지의 연간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어 13년간의 범죄 추세 분석과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다.

통계 작성 대상은 전국 각급 경찰관서에서 처리한 형사사건으로, 경찰이 인지, 신고, 고소, 고발 등을 통해 접수하여 형사입건한 모든 사건이 포함된다. 다만 군사법원 관할 사건, 각하사건, 즉결심판 사건, 촉법소년 관련 사건 등은 통계에서 제외된다. 통계는 전국 경찰관서에서 작성하는 3종의 범죄통계원표(발생통계원표, 검거통계원표, 피의자통계원표)를 기반으로 하며, 각 통계원표는 사건 발생 시점, 피의자 검거 시점, 피의자 확정 시점에 각각 작성되어 경찰청에서 체계적으로 집계하고 분석한다.

주요 통계 항목은 39개 표측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방화 등), 절도범죄, 폭력범죄(상해, 폭행, 협박, 공갈, 손괴 등), 지능범죄(사기, 횡령, 배임 등), 풍속범죄(성풍속범죄, 도박범죄), 특별경제범죄, 마약범죄, 보건범죄, 환경범죄, 교통범죄, 노동범죄, 안보범죄, 선거범죄, 병역범죄, 기타범죄 등으로 분류된다. 통계는 경찰청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PDF 형태의 종합 분석 보고서로 공개되며,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는 온라인 통계표 형태로, 공공 데이터포털에서는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원시 데이터로 제공된다. 하지만 경찰이 파악하여 처리한 범죄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실제 발생한 모든 범죄를 포괄하지는 못하며, 연도별로 통계 작성 방법이나 분류 체계가 변경될 수 있어 시계열 비교 시 주의가 필요하다.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

전국 각급 수사기관(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에서 전산 입력한 발생·검거·피의자 범죄통계원표를 집계한 국가 승인 통계로, 형사사법의 문제점 발굴과 범죄예방·검거 대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통계청 국가승인통계로 작성기관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책기획과이며 연 1회 작성·공표한다. 통계는 1962년 개발 이후 1964~1993년 분기 발간을 거쳐 1994년부터 연간 발간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주요 활용 목적은 형사정책 수립을 위한 실증 근거 제공과 대국민 정보 제공이며, 법무부·통계청·지자체 등 정부기관의 정책 수요, 기업·기관의 위험 관리, 국민의 정보 요구에 대응한다. 작성 방법은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된 원표 데이터를 추출해 통계 패키지로 집계하는 방식이며, 보고 대상은 당해 기간 각급 기관이 고소·고발·인지 등으로 접수(승인)한 전체 사건과 피의자다. 군사법원 관할 범죄는 제외하며, 발생·검거 원표는 사건 단위(단위: 건), 피의자 원표는 사람 단위(단위: 명)로 작성한다. 발생건수와 검거건수는 승인일자 기준으로 집계되어 해당 연도 이전 발생 사건이 포함될 수 있고, 검찰·특사경 자료는 익년 4월 30일까지 입력분을 반영한다. 피의자 통계는 자연인 피의자를 기준으로 하며 피의자중지·기소중지 및 법인은 제외하고, 처분 결과 통계는 익년 7월 31일까지 종국처분이 완료된 건을 반영한다. 발생지 공간 단위는 과거 시(市) 단위에서 2004년 이후 특별·광역시는 구 단위로 작성되어 공간 해상도가 개선되었다.

분류 체계는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로 구분하며 형법은 중·소·세분류 체계를 갖추고 특별법은 사회적 중요도와 발생빈도를 고려해 『2024 범죄분석』 기준 중분류 63개, 소분류 116개로 구성한다. 매년 법령 개정·신설에 따라 분류 체계가 일부 변경될 수 있어 시계열 비교 시 유의가 필요하다. 공표는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연보(PDF)로, 국가통계포털(KOSIS)에 표준 파일(Excel·CSV·TXT·등)로 제공하며, 통계설명자료(개요·용어·유의점)는 공식 메타포털에 수록한다. 마이크로데이터는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형사입건·승인된 원표를 기반으로 하므로 실제 모든 범죄를 포괄하지 않으며, 승인일자 기준과 분류 변경, 기관별 입력 관행 차이로 인해 경찰청 통계와의 단순 합산·직접 비교는 한계가 있다. 본 단행본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감안해 대검찰청의 발생지·발생장소·수법·피의자 속성 통계를 건축물·가로·행정구역의 단위공간 축으로 재매핑하여, 경찰청 통계와 공간 기준을 맞춘 비교·보완 분석이 가능하도록 가공하였다.

통계청 사회조사(범죄와 안전 부문)

통계청 사회조사는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을 파악하여 정책 수립과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는 국가승인통계이다. 1977년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 구성을 목적으로 시작된 이후, 조사 부문과 주기가 지속적으로 개편되며 국민 의식 변화를 반영해 왔다. 현재는 10개 부문을 2년 주기로 매년 5개 부문씩 조사하며, 짝수 해에는 '기본, 가족, 교육과 훈련, 건강, 범죄와 안전, 생활환경' 부문이 포함된다.

본 단행본에서 활용한 2024년 사회조사 자료는 위의 5개 부문을 대상으로, 전국 1,548개 조사구의 약 18,000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36,0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5월 15일부터 30일까지(16일간) 조사된 내용을 집계한 것이다. 조사는 면접, 자기기입식, 인터넷 응답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되며, 응답자는 13세 이상 인구 전체를 포괄한다. 다만 문항의 성격에 따라 조사 대상 연령이나 기준 시점이 다를 수 있으며, 조사결과는 표본 설계와 시점 차이로 인해 유사 통계와 일부 수치상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범죄와 안전」 부문은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과 불안 요인, 야간 보행의 안전도 등 국민의 주관적 범죄 체감과 생활안전 의식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둔다. 주요 항목에는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전반적 안전, 국가안보, 자연재해, 시설물, 교통사고, 범죄 등) ▲사회 안전 상태의 변화(5년 전 대비, 5년 후 예상) ▲가장 큰 사회적 불안 요인(범죄, 빈부격차, 환경오염 등) ▲야간 보행 시 안전도 및 불안 이유(안전시설 부족, 인적 드물음 등) ▲공공질서 준수 수준과 재난 대처 수준 등이 포함된다.

이 통계는 범죄 불안과 체감 안전 수준에 관한 전국 단위 주관 데이터로, 경찰청·대검찰청 통계와 같은 객관적 범죄 발생 자료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진다. 본 단행본에서는 사회조사 내 「범죄와 안전」 부문 중 행정구역(도시·농어촌) 단위와 주거 유형별 항목을 추출하여, 실제 범죄 발생률과 비교 가능한 공간 단위로 재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별 '객관적 범죄 발생'과 '주관적 불안감'의 차이 구조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전국범죄피해조사)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전국범죄피해조사)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범죄피해 경험과 피해 양상, 범죄 관련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여 범죄예방정책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국가승인통계다. 법적 근거는 「통계법」 제18조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1조로, 국가와 지자체가 범죄피해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한다. 조사 주기는 2년, 공표 주기도 2년이며, 1994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로 최초 작성된 이후 2009년에 국가승인통계를 획득하였고, 안정적 시계열을 바탕으로 정례조사를 지속해 왔다.

보고 대상은 조사 기준 시점에 국내에 거주하는 가구와 만 14세 이상 가구원이며(집단거주 시설 거주자는 제외), 표본은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표본틀로 하여 시·도, 동부/읍면부 층화

추출과 확률비례계통추출을 통해 선정한다. 가구 방문 면접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무응답·사후 총화 가중치를 적용하여 대표성을 보정한다. 조사표는 기초조사표와 사건조사표로 구성되며, 기초조사표에서 전년도 피해 경험을 보고한 응답자에 한해 사건조사표를 추가 작성한다. 기초조사표는 가구구성, 동네·이웃환경(물리·사회적 무질서, 공동체, 경찰 인식), 일상생활과 범죄예방활동, 배경 특성, 전년도 피해 경험, 체감 불안과 인식 등을 포함하고, 사건조사표는 발생 일시·장소, 범행 수법, 신체·정신·재산 피해, 피해자 대응, 가해자 특성, 신고 및 처리 현황을 다룬다.

전국범죄피해조사는 형사사법기관 통계로 포착되지 않는 암수범죄와 반복피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식통계를 보완한다. 주요 이용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입안자, 학계·연구기관, 언론 및 일반 국민이며, 결과는 KOSIS, 국가지표체계, 사회지표·사회동향 등에 반영되고, 연구원 통계포털을 통해 통계DB와 마이크로데이터가 제공된다. 본 자료는 분류와 문항 개편이 일부 발생할 수 있어 시계열 비교 시 주의를 요하며, 표본조사 특성상 반올림과 표본오차로 총계 불일치가 있을 수 있다.

본 단행본에서는 전국범죄피해조사 중 발생 장소 유형, 주거·생활 특성, 신고·대응, 주관적 불안·인식을 선별하여 건축물·가로·행정구역의 단위공간 축으로 재매핑하였다. 이를 통해 경찰청·대검찰청의 객관적 발생 통계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피해 경험·체감 데이터를 동시 제시함으로써, 지역별 ‘실제 발생-체감 불안’의 격차 구조, 실내형·실외형 위협의 공간적 차이, 주거 유형·생활동선과 결합된 취약성을 비교·해석할 수 있도록 가공하였다.

2) 범죄 관련 데이터 가공

이 책에서 기관별 데이터는 범죄 발생과 범죄 불안감으로 구분된다. 범죄 발생 데이터는 경찰청 범죄통계(2023),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2023),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전국범죄피해조사)(2020)에서 수집된다. 각각 행정구역(지역별), 가로(도로유형별), 건축물(주거/비주거)의 세 가지 단위로 분류된다. 다음으로 범죄 불안감 데이터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2020)와 통계청 사회조사의 범죄와 불안 부문(2024)에서 제공된 데이터를 소개한다. 이를 통해 객관적 범죄 발생과 주관적 범죄 불안감을 공간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1]은 경찰청, 대검찰청, 통계청,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 4개 기관에서 생산하는 범죄 관련

데이터 중 공간 단위로 분류 가능한 데이터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경찰청과 대검찰청은 주로 범죄 발생 데이터를 제공하며, 죄종별·발생장소별·발생지별 분류와 함께 수법과 침입구 등의 세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통계청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범죄 불안감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범죄 발생 데이터도 함께 제공하여 객관적 범죄 현실과 주관적 불안감을 모두 다룰 수 있게 한다.

[표 1] 기관별 범죄 관련 데이터 활용 현황

부처	유형	분류	내용
경찰청 범죄통계 (2023)	범죄 발생	죄종, 발생지	범죄발생지
		죄종, 발생장소	범죄발생장소
		수법, 발생장소	강도발생장소와 수법
		수법, 발생장소	절도발생장소와 수법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 (2023)	범죄 발생	죄종, 발생장소	범죄발생장소
		죄종, 발생지	범죄발생지
		죄종, 발생지역	범죄발생지역
		죄종, 장소	절도범죄의 발생장소와 수법
한국형사· 법무정책 연구원 국민생활 안전실태조사 (전국범죄 피해조사) (2020)	범죄 발생	발생장소: 집, 주택가나 그 인접한 도로, 학교, 주차장, 인구 밀집 상업지, 공공기관, 사무실, 공장, 야외, 거리, 등산로, 산책로 대중교통 시설 등, 그 외의 장소	폭력범죄피해 발생 장소
		우리 집, 가해자의 집, 다른 사람의 집	폭력범죄피해 발생 장소로서의 집: 거주자에 따른 구분
		발생장소: 아파트 단지 주변, 다세대/연립주택가 주변, 단독주택 마을 주변	폭력범죄피해 발생 장소로서의 주택 유형에 따른 구분
		발생장소: 백화점, 시장 등 상업건물, 유흥업소 및 음주가 가능한 식당, 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 목욕탕, 극장 공연장, 은행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 의료기관, 일반음식점 카페, 기타	폭력범죄피해 발생 장소로서의 인구 밀집 상업지 구분
		발생장소: 집, 주택가나 그 인접한 도로, 학교, 주차장, 인구 밀집 상업지, 공공기관, 사무실, 공장, 야외, 거리, 등산로, 산책로 대중교통 시설 등, 그 외의 장소	재산범죄피해 발생 장소

부처	유형	분류	내용
한국형사· 법무정책 연구원 국민생활 안전실태조사 (전국범죄 피해조사) (2020)	범죄 발생	주택 유형, 주거 형태, 월 평균 가구소득수준, 가구 방범수준, 집 비운 정도	가구특성과 재산범죄피해
		주택 유형, 주거 형태, 월 평균 가구소득수준, 가구 방범수준, 집 비운 정도	가구특성과 폭력범죄피해
		주택 유형, 주거 형태, 월 평균 가구소득수준, 가구 방범수준, 집 비운 정도	가구특성과 주거침입 범죄피해
	범죄 불안감	성별, 연령별, 가구전체소득, 주택유형, 도시규모	상황별 두려움 정도 일상생활 중 범죄피해 두려움 정도 범죄피해 유형별 두려움 정도
통계청 사회조사 (2024)	범죄 불안감	연도, 도시및농어촌, 성별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연도, 도시 및 농어촌, 성별, 연령, 학력, 직업, 가구소득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
		연도, 도시 및 농어촌, 성별, 공간, 연령, 주관적 만족도	야간 보행의 안전도 인식
		연도, 도시 및 농어촌, 성별, 공간, 연령, 주관적 만족도	야간 보행이 불안한 이유

출처: 각 기관별 범죄 관련 데이터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전국 5대 범죄 발생 현황

공간으로 읽는 범죄 데이터

PART 2

전국 5대 범죄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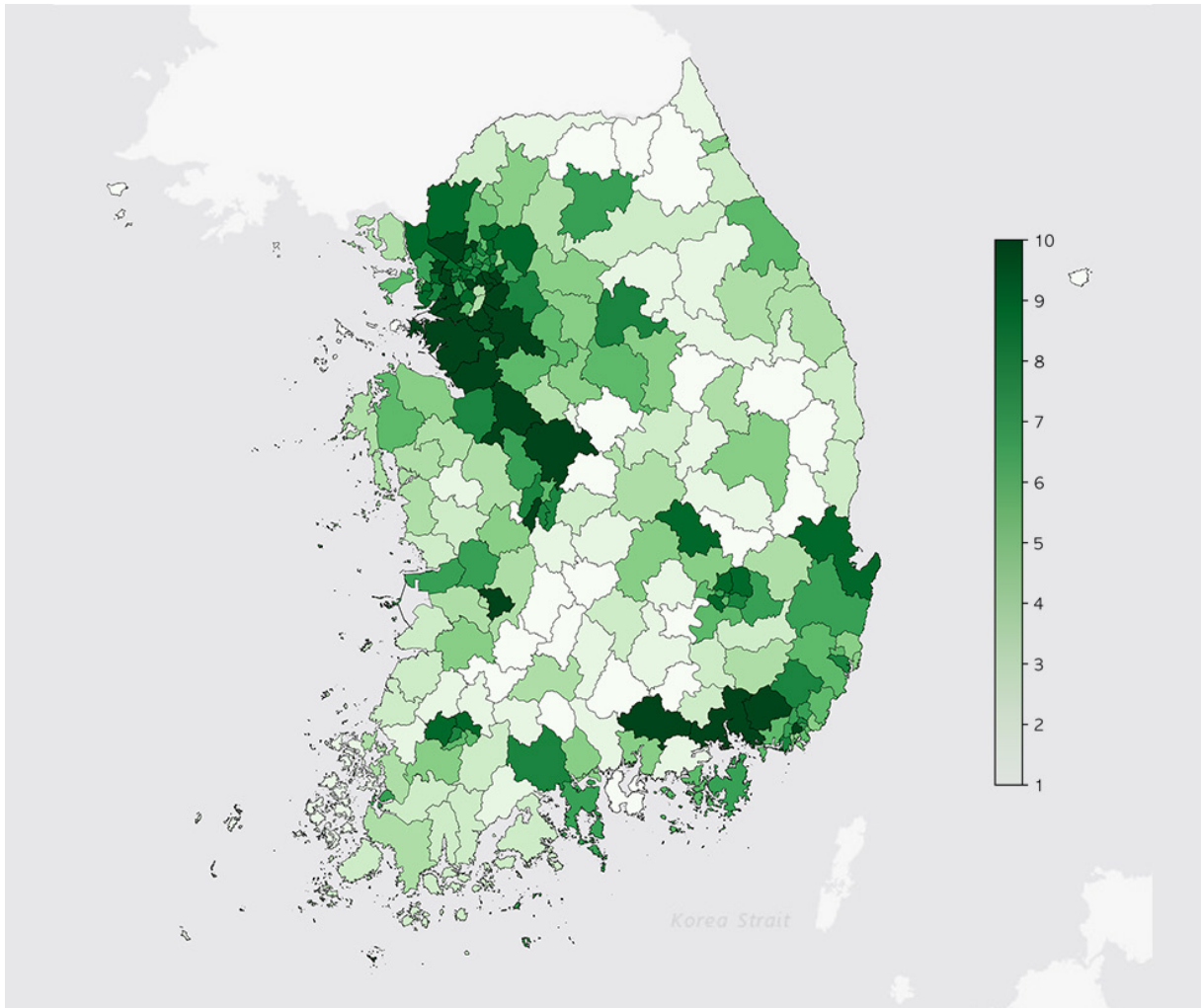
제2장은 전국 단위에서 시군구 수준까지 세분화된 5대 범죄 발생 양상을 제시한다. 경찰청 범죄 통계(2023)를 기반으로 단위공간별 범죄 데이터를 구축하고, 범죄 발생 총량과 인구 규모를 보정한 1만 명당 발생 밀도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지역별 절대적·상대적 위험도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지역별 인구수는 행정안전부(2023)의 주민등록인구현황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지도 기반 시각화는 대도시권에 집중되는 범죄의 공간적 편중뿐 아니라, 인구 규모가 작더라도 특정 범죄 유형의 발생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을 식별하는 데 유용하다. 이는 단순 발생건수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지역 특성을 확인하게 하며, 인구 구조·유동 인구·지역 기능과 연계된 범죄 패턴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공간 분포 분석은 이후 광역시도 비교, 가로 단위 및 건축물 단위 분석으로 이어지는 상위·중위·미시 공간 분석 체계의 출발점으로서 지역별 맞춤형 CPTED 정책과 범죄 예방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기능한다.

1. 전국 5대 범죄 발생 지도(발생건수)

전체

전체 5대 범죄 발생은 대부분 수도권 및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의 특례시 단위의 대도시 지역에서 높은 빈도를 기록하였다. 따라서 인구 규모 및 경제활동의 정도에 따라서 5대 범죄 발생 빈도가 연계되는 양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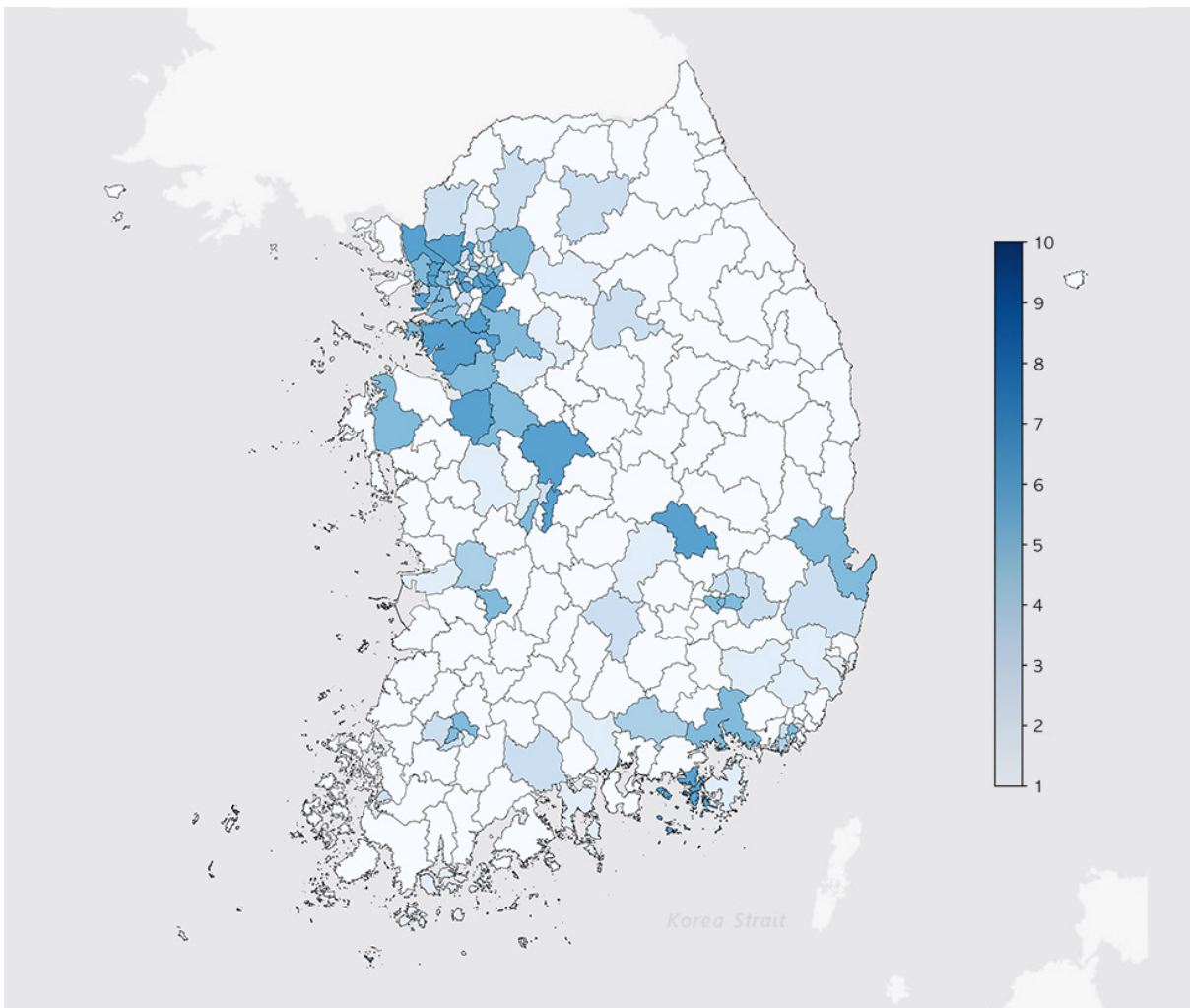


[그림 1] 전국 5대 범죄 발생 빈도 10분위 구분(전체)

출처: 경찰청 범죄통계(2023)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강도

5대 강력 범죄 중 강도 범죄의 경우, 타 5대 강력 범죄와 비교하여 절대적인 발생 횟수 자체가 낮은 범죄로 분류된다. 따라서 도시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고, 특히 은행 기관이나 귀금속을 다루는 업종이 집중된 도심 지역의 지자체에서 높은 발생건수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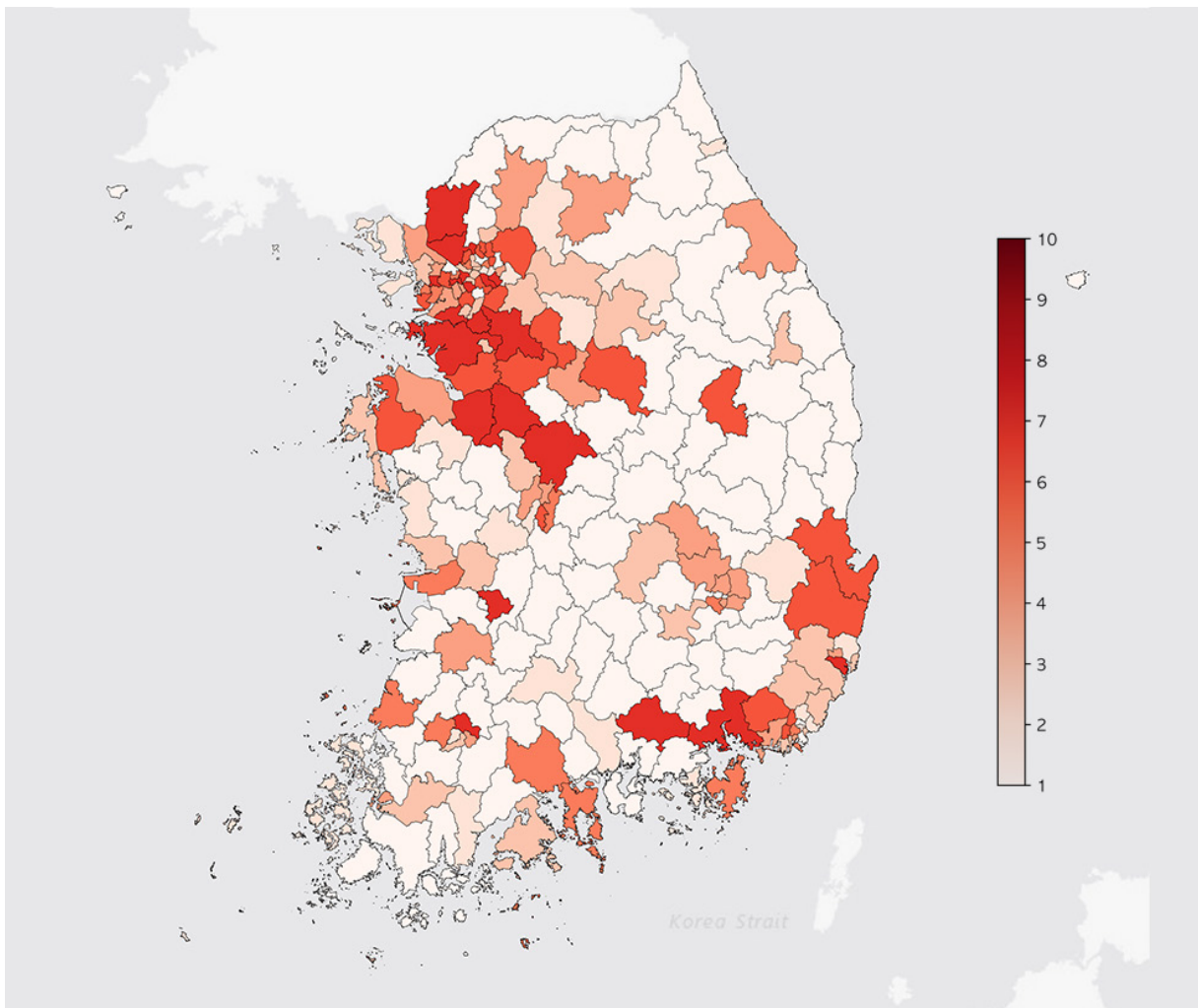


[그림 2] 전국 범죄 발생 빈도 10분위 구분(강도)

출처: 경찰청 범죄통계(2023)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살인

살인 범죄도 강도 범죄와 마찬가지로 전국 평균 약 3.5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타 5대 강력 범죄들과 비교하여 절대적인 발생건수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반적으로 인구 밀도에 비례하긴 하나 상대적으로 타 5대 범죄의 발생 빈도가 낮은 일부 농촌 및 비수도권 지자체에서도 발생이 두드러지는 경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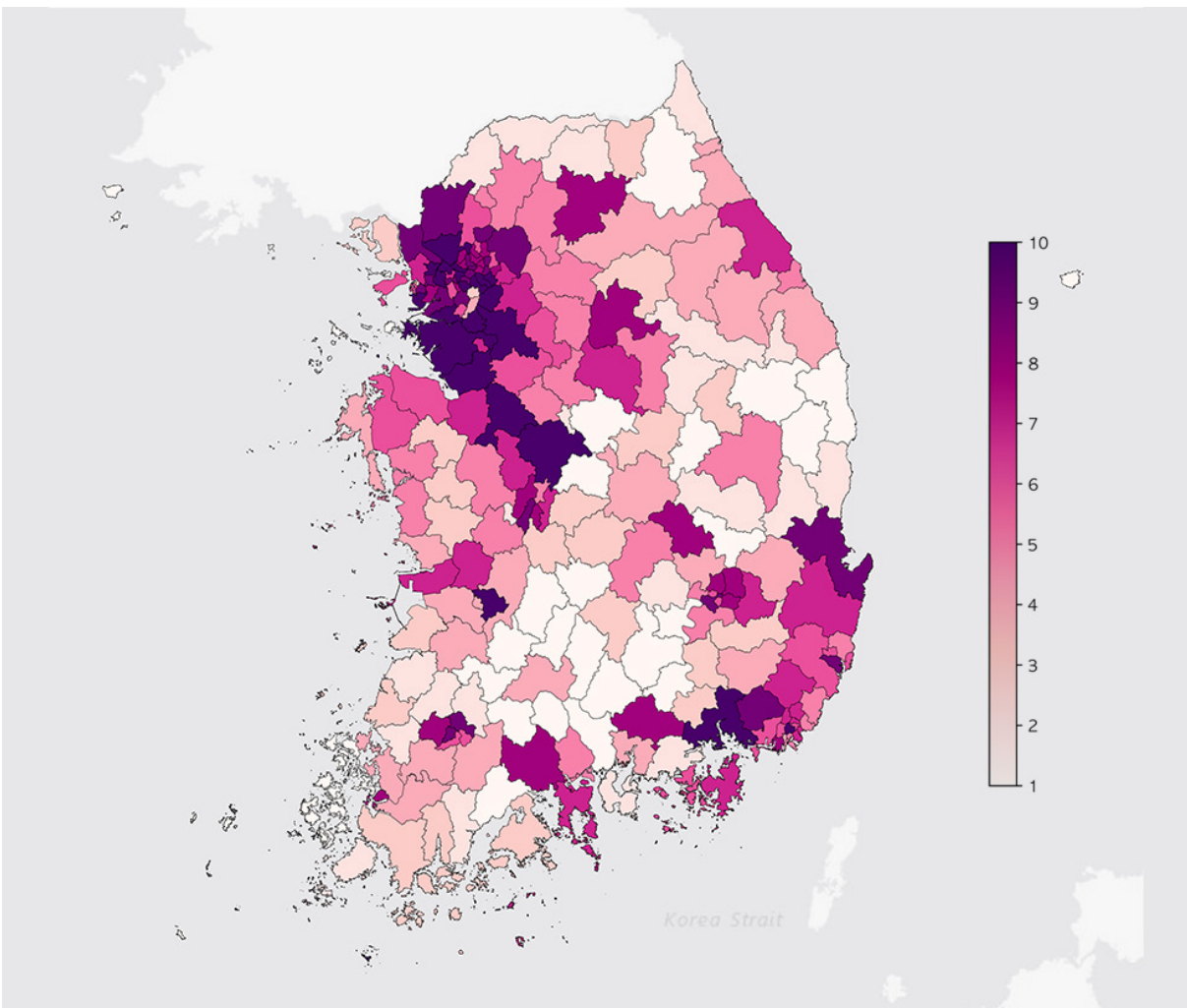


[그림 3] 전국 범죄 발생 빈도 10분위 구분(살인)

출처: 경찰청 범죄통계(2023)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성폭력

성폭력 범죄의 경우 지자체당 평균 215건 발생하여 5대 범죄 중 강도, 살인 범죄에 비해 월등하게 높으나 절도, 폭력 범죄보다는 낮은 정도를 보였다. 여성의 경제활동 및 외부 활동 비율이 높은 대도시에 집중된 것이 특징이며, 특히 상업지 등 유동 인구가 많고 야간 활동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에 집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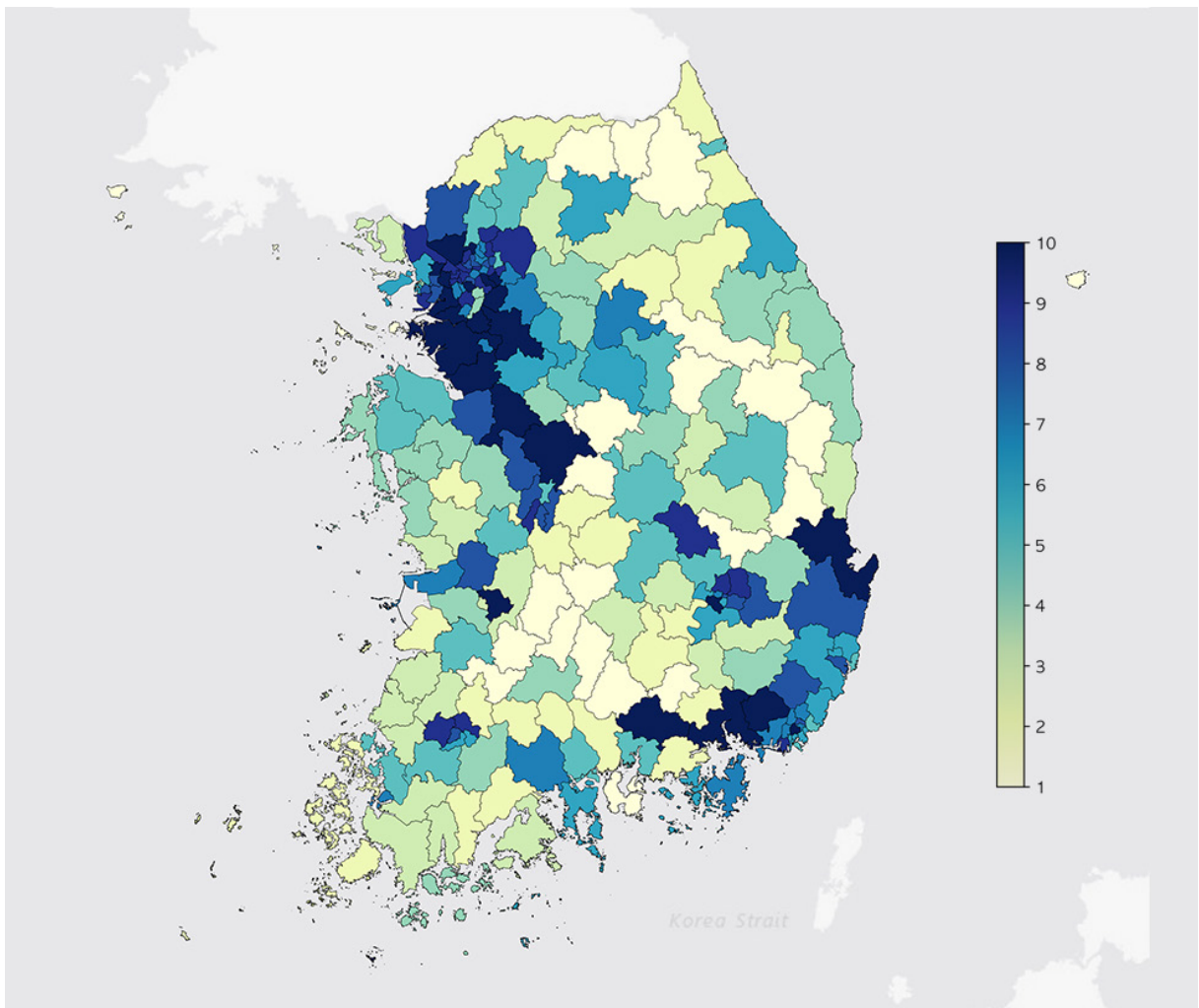


[그림 4] 전국 범죄 발생 빈도 10분위 구분(성폭력)

출처: 경찰청 범죄통계(2023)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절도

절도 범죄는 지자체당 평균 1,150건을 기록하여 폭력 범죄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발생 빈도가 높은 생활형 범죄 특성상 상업, 주거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범죄 특성상 인구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과 광역시 및 대도시 지자체에서 발생건수가 높게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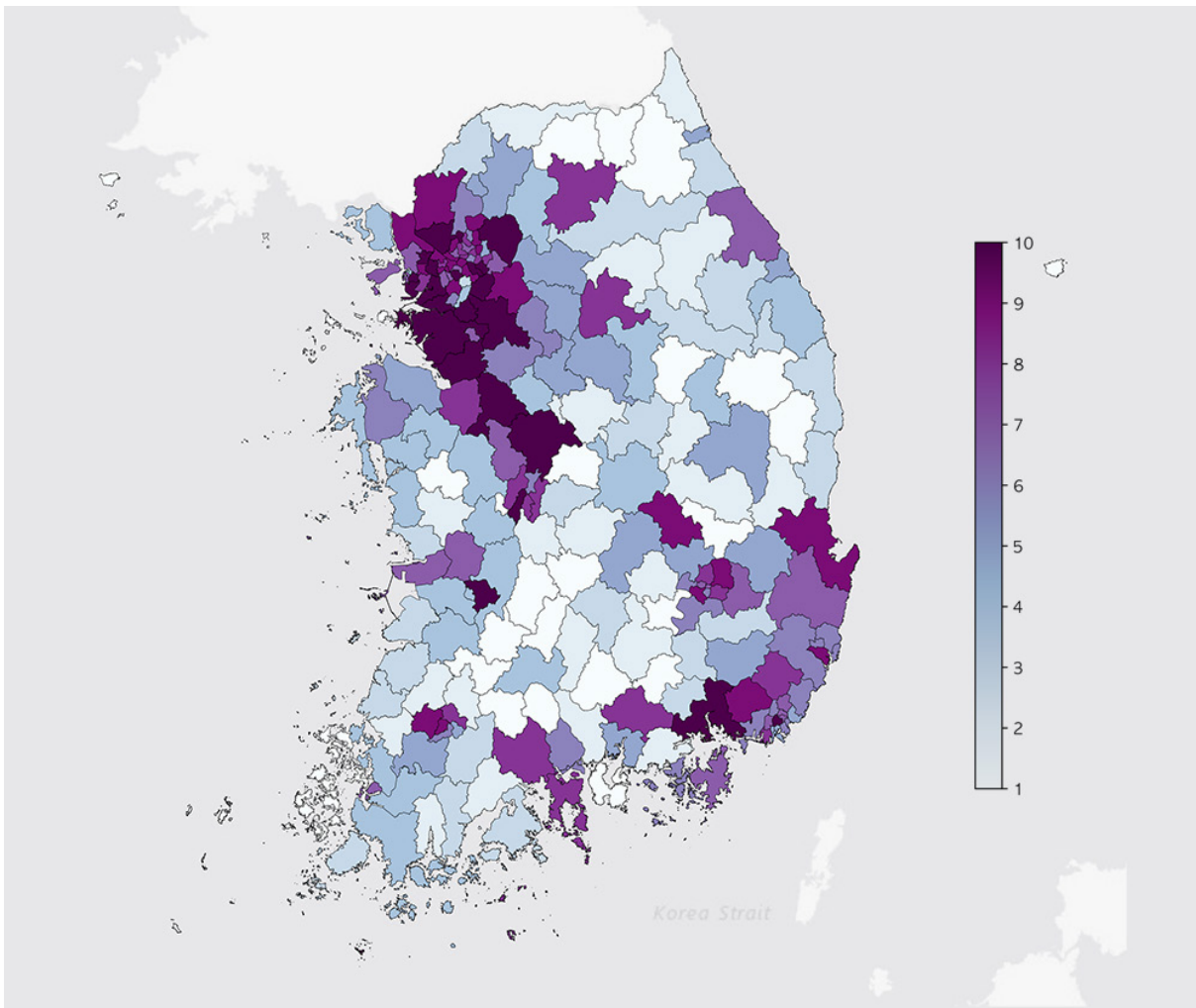


[그림 5] 전국 범죄 발생 빈도 10분위 구분(절도)

출처: 경찰청 범죄통계(2023)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폭력

폭력 범죄는 지자체당 평균 약 1,600건으로 가장 높은 발생건수를 기록하였다. 빈도가 높은 범죄 특성상 인구 밀도와 비례하여 발생건수가 높아지는 상관관계가 관찰되며, 특히 유동 인구가 많은 대도시 내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높은 발생 빈도를 보여 사회적 접촉과 갈등 빈도와 연관된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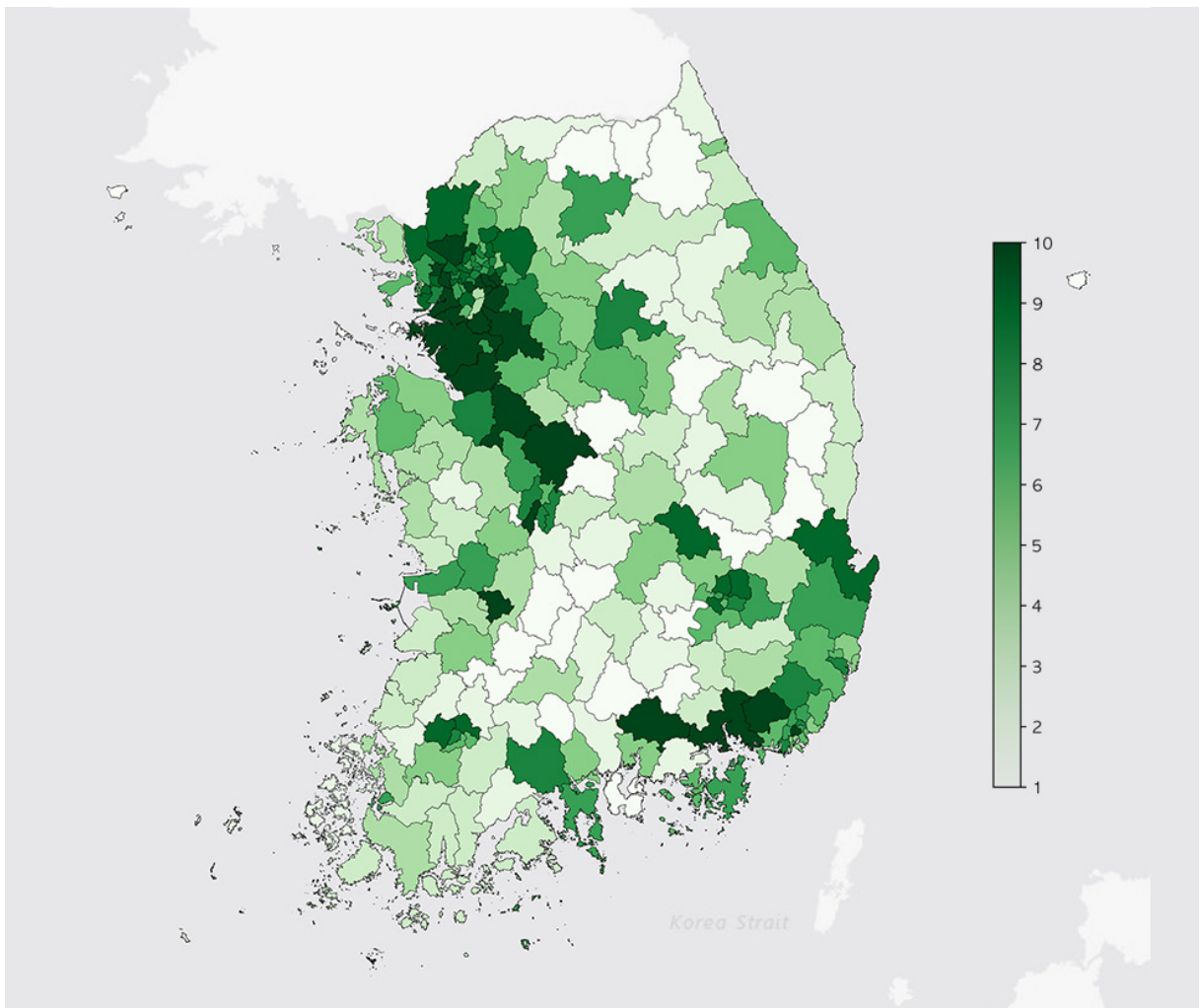
[그림 6] 전국 범죄 발생 빈도 10분위 구분(폭력)

출처: 경찰청 범죄통계(2023)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2. 전국 5대 범죄 발생 지도(인구 1만 명당 발생건수)

전체

5대 범죄의 총 발생 빈도에서 폭력, 절도 범죄가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해당 범죄가 생활 범죄로서 인구 밀도와 활동 밀도 요인이 주요한만큼 대부분 수도권과 광역시, 특례시 지자체의 1만 명당 5대 범죄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관광객이 많고 관광 산업이 발달하거나, 운수 및 물류로 외부인 방문과 활동 빈도가 인구 대비 높은 지자체에서도 상대적으로 거주 인구 대비 높은 5대 범죄 발생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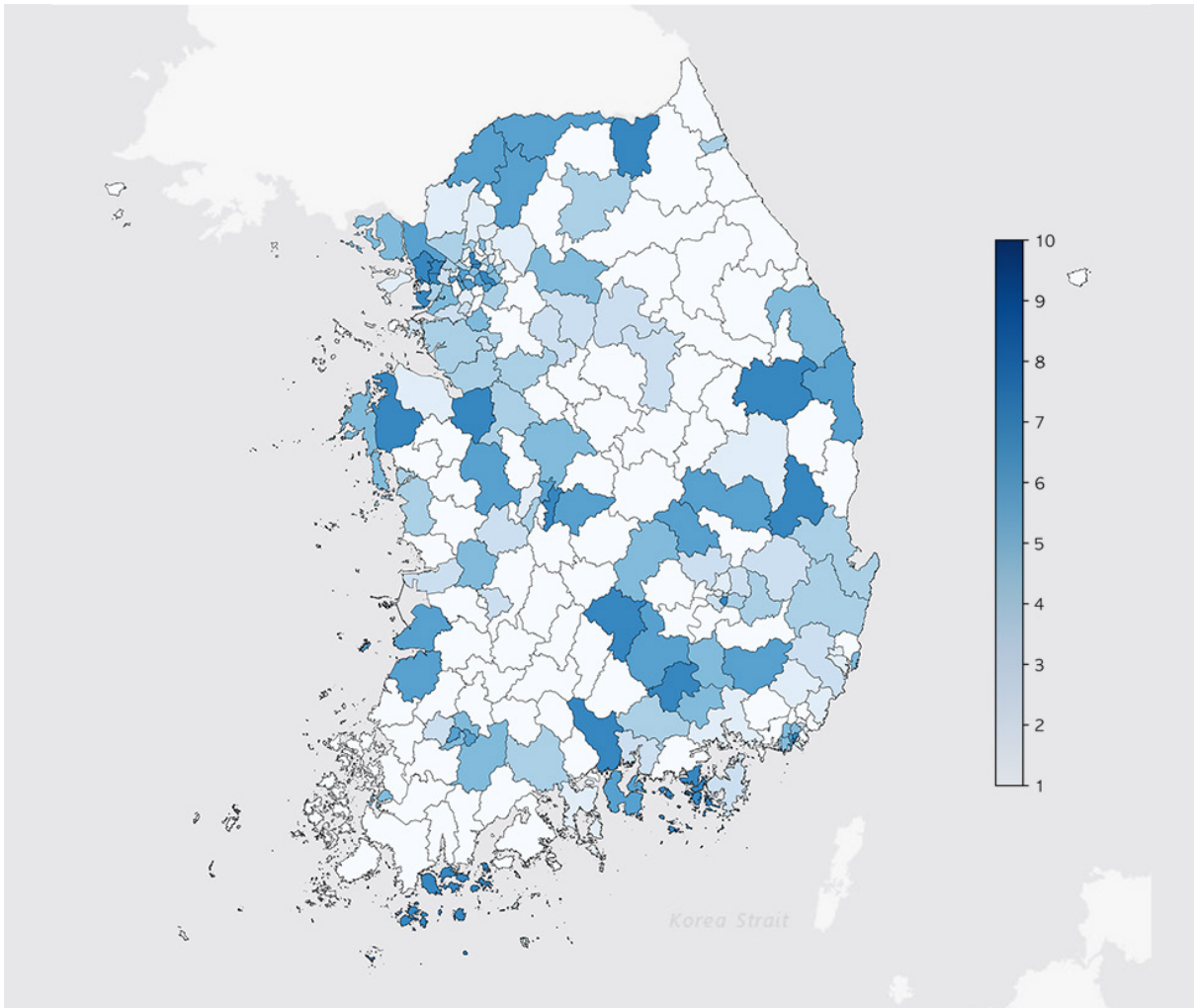


[그림 7] 전국 1만 명당 5대 범죄 발생 빈도 10분위 구분

출처: 경찰청 범죄통계(2023)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강도

인구 1만 명당 강도 범죄의 경우 전국 평균 1만 명당 약 0.1건 수준, 전국 지자체 별로도 최저 0, 최고 0.9건 수준으로 확인된다. 발생건수 자체가 매우 낮은 것이 인구당 범죄 발생 빈도에서도 확인되었다. 강도 범죄 특성상 표적이 되는 은행, 귀금속 관련 업종이 집중된 도심 지역의 인구당 발생 빈도도 높은 것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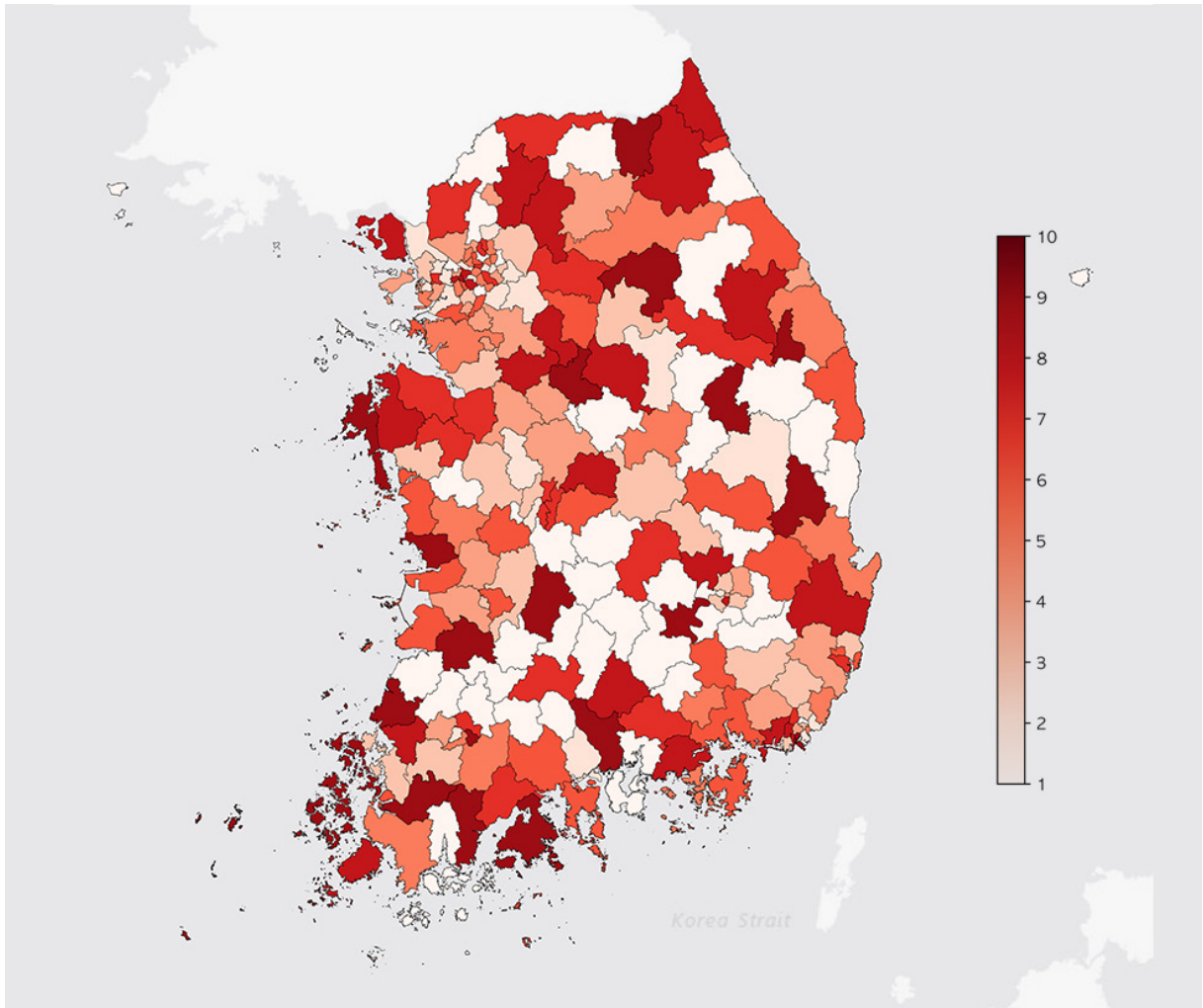


[그림 8] 전국 1만 명당 범죄 발생 빈도 10분위 구분(강도)

출처: 경찰청 범죄통계(2023)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살인

살인 범죄는 전국적으로 발생건수가 매우 낮아 1만 명당 평균 발생건수가 0.17건 수준에 그친다. 지자체별 발생 빈도 또한 대부분 0~1건 사이에 분포하여 통계적으로 드문 범죄 유형임이 확인된다. 이러한 저발생 특성으로 인해 인구 규모가 크더라도 인구당 발생 빈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경향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즉, 살인 범죄의 인구당 분포는 지역의 인구 규모보다는 개별 사건의 우발성과 특수성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양상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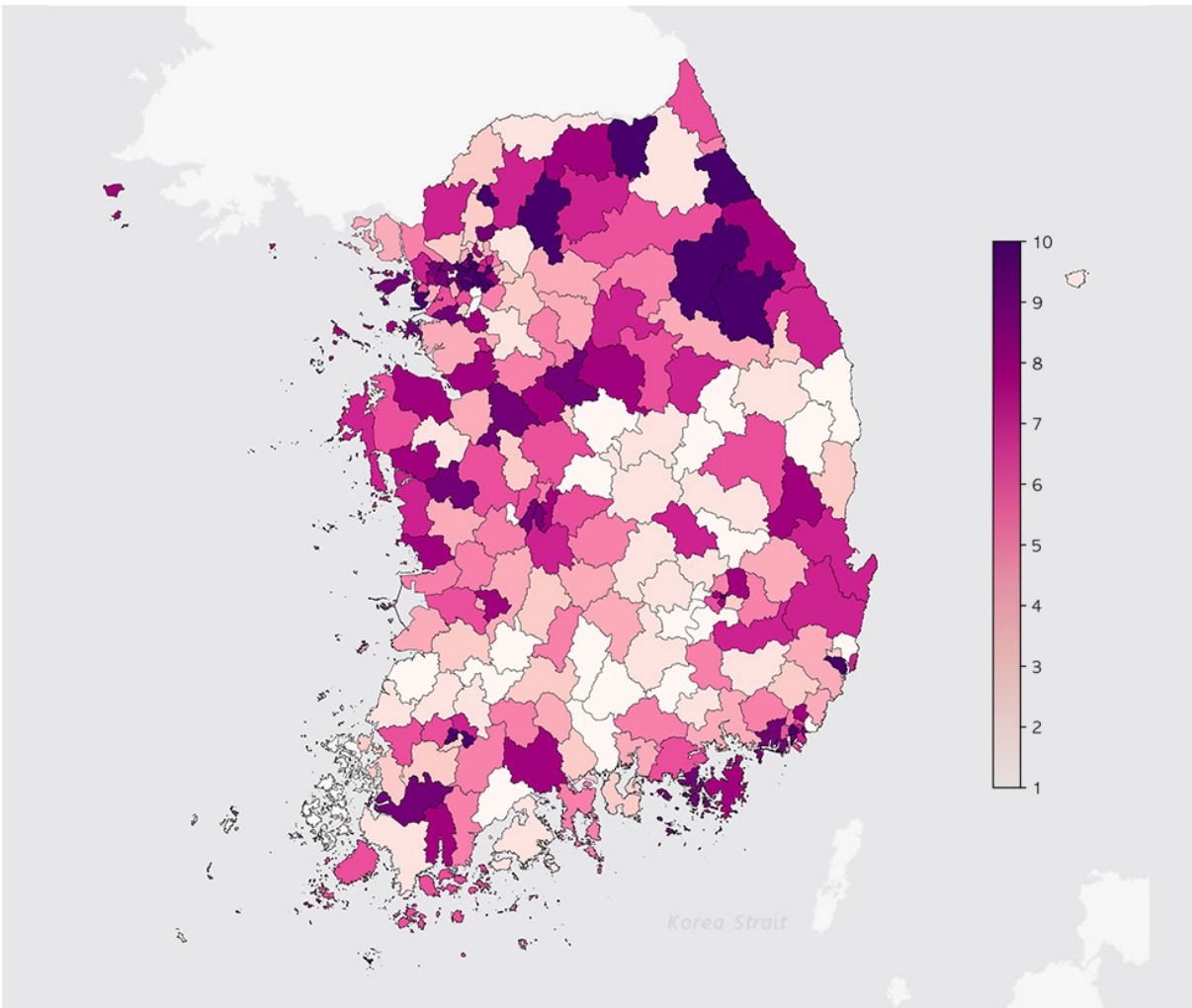


[그림 9] 전국 1만 명당 범죄 발생 빈도 10분위 구분(살인)

출처: 경찰청 범죄통계(2023)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성폭력

성폭력 범죄는 1만 명당 최저 약 0.5건에서 최고 23.9건, 전국 평균 4.14건으로 강도와 살인 범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발생 빈도를 보이고 지역별로도 편차가 크다. 주로 도심 인구 밀집 지역과 상업지역과 같이 여성의 야간 활동 및 경제활동이 집중된 지자체에서 높게 나타는 경향이 있었으며, 익명성과 활동 빈도가 높은 대도시 지역에서의 발생 빈도가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거주 인구에 비하여 활동 인구가 많은 도심 및 상업지역의 지자체에서 높은 경향이 보였고, 이 외에도 인구는 상대적으로 적으나 관광객 등 외부 방문객이 지자체에서도 상대적으로 타 범죄에 비교하여 높은 수준이 확인되어 익명성과 활동 빈도가 성폭력 범죄의 주요한 사회 경제적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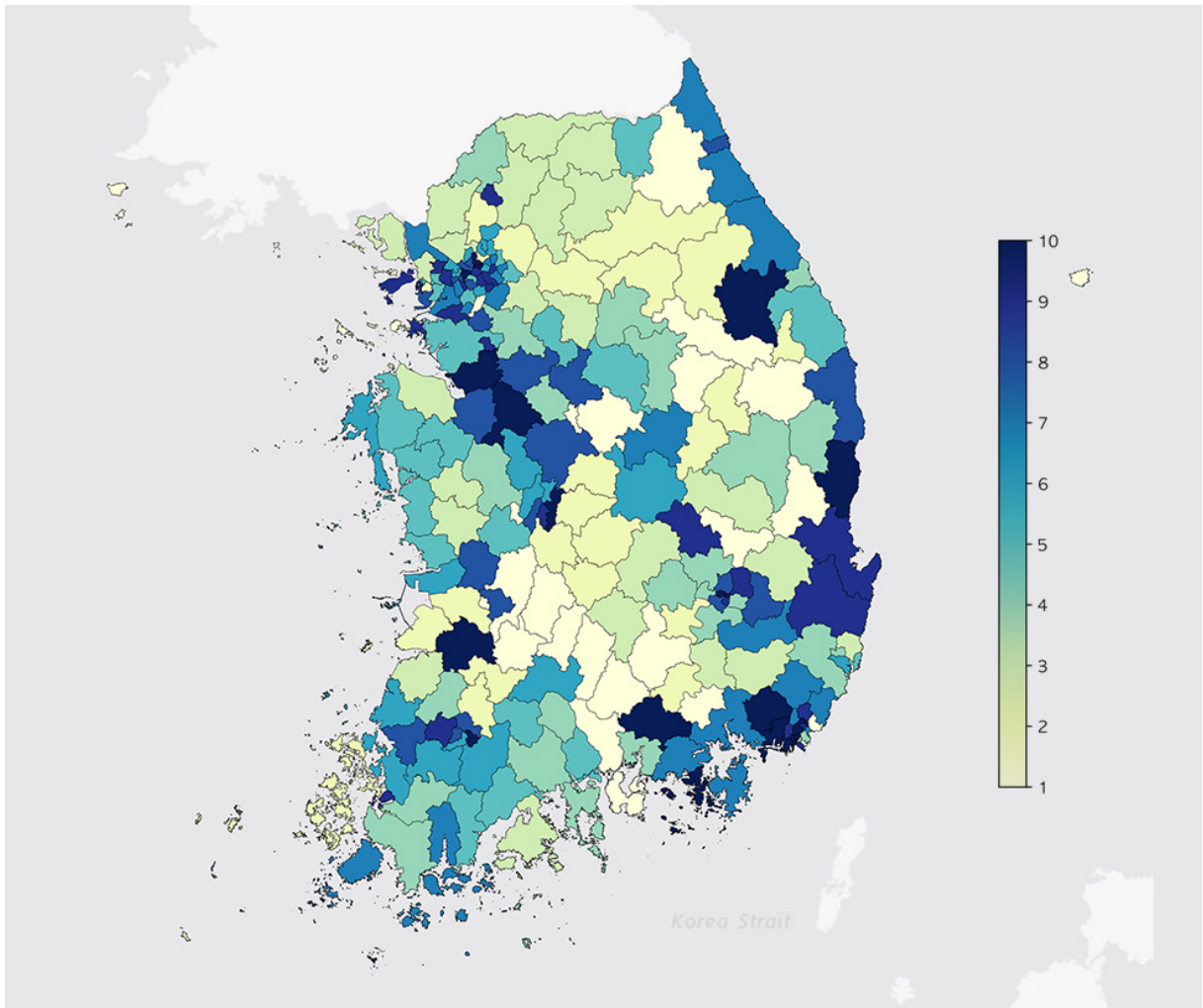


[그림 10] 전국 1만 명당 범죄 발생 빈도 10분위 구분(성폭력)

출처: 경찰청 범죄통계(2023)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절도

절도 범죄는 1만 명당 최소 약 6.96건에서 최고 169.86건, 평균 34.47건으로 발생 빈도 자체도 높은 동시에 지자체별로 발생 빈도의 격차가 매우 크다. 대부분 인구나 활동 빈도가 높은 대도시 지역의 지자체가 발생이 집중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타 5대 강력 범죄가 상업지역의 지자체에 치중된 것과 달리 절도 범죄의 경우 주거 지역 지자체에서도 상대적으로 발생 빈도가 높아 생활 범죄로서 절도 범죄의 특성이 지자체별 사회 경제적 요소와 밀접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일부 농촌 등 CCTV나 범죄 예방적 요소의 밀집도가 낮은 지역에서도 상대적으로 타 범죄에 비해 인구 대비 발생 빈도가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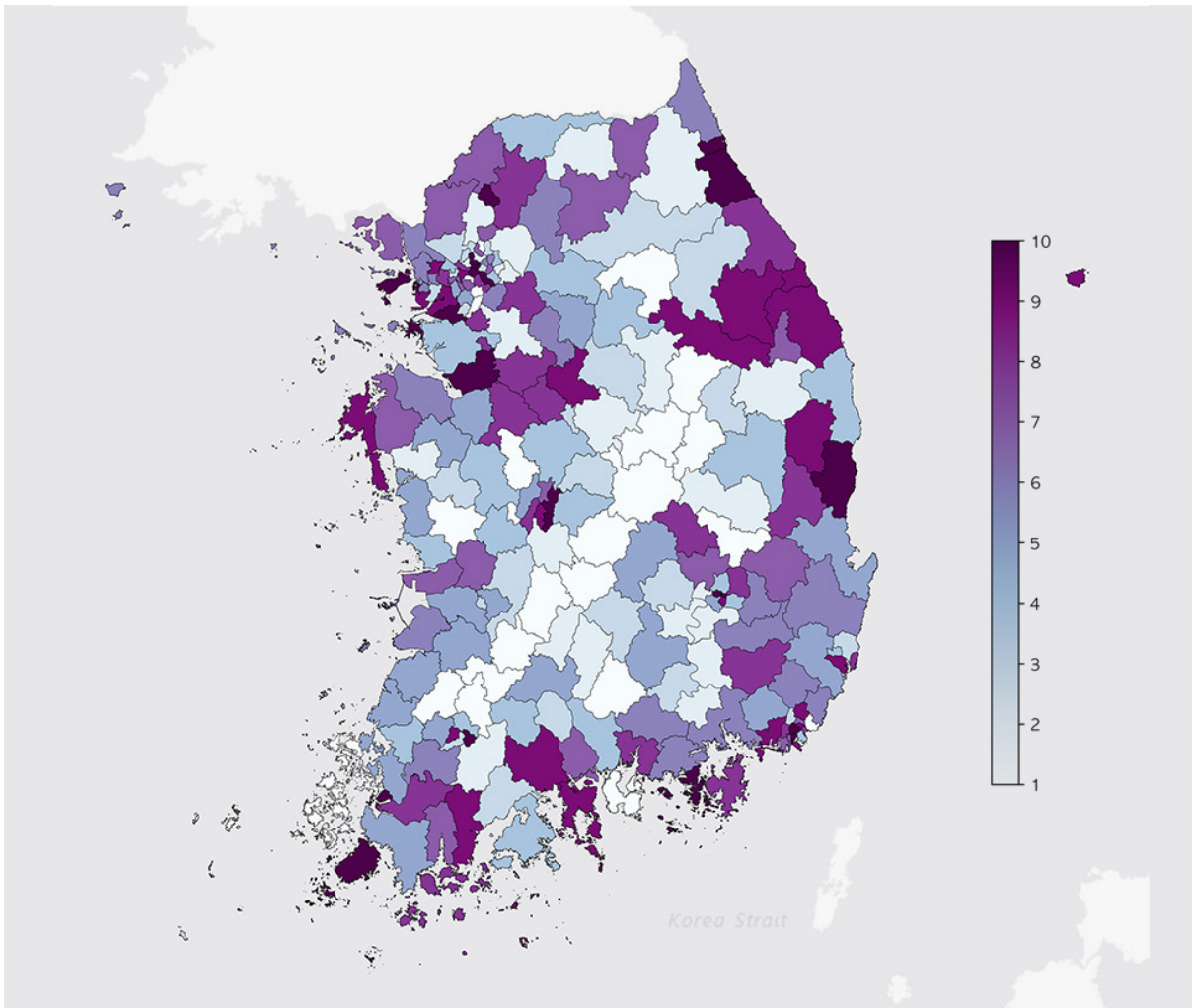


[그림 11] 전국 1만 명당 범죄 발생 빈도 10분위 구분(절도)

출처: 경찰청 범죄통계(2023)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폭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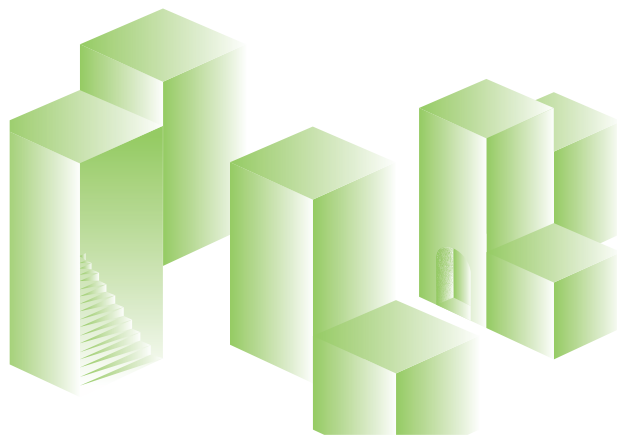
폭력 범죄는 1만 명당 최저 11.75건, 최고 180.74건, 평균 45.62건으로 5대 강력 범죄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의 발생 빈도를 보인다. 대부분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 광역시, 특례시 지자체와 경제, 사회 활동이 밀집한 도심 상업지역의 지자체에서 발생 빈도가 높다. 특히 거주 인구 대비 활동 인구가 많은 도심 지역 상업지역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관광객이 많은 지자체에서 인구 대비 높은 빈도를 보여 활동의 밀집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2] 전국 1만 명당 범죄 발생 빈도 10분위 구분(폭력)

출처: 경찰청 범죄통계(2023)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공간으로 읽는
범죄 데이터





지방자치단체 5대 범죄 발생 현황

공간으로 읽는 범죄 데이터

PART 3

지방자치단체 5대 범죄 발생 현황



제3장은 전국을 광역시도 수준에서 시·군·구 단위까지 세분화하여 5대 범죄의 공간적 분포와 지역별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이 장의 분석에는 경찰청 범죄통계(2023)와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2023)를 함께 활용하였으며, 두 기관의 자료 제공 범위와 정보 특성을 고려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이 장에서 제시하는 ‘시·군·구 단위 5대 범죄 발생 총합 지도’와 ‘인구 1만 명당 발생 밀도 지도’는 모두 경찰청 통계를 기반으로 구축하였다. 이는 전국 단위로 범위가 균일하고 행정구역 전 지역을 포괄하는 데이터 구조를 갖추고 있어, 공간적 편중, 권역별 격차, 대도시-중소도시-농촌 지역 간 발생 패턴을 일관되게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성은 지역별 범죄의 절대 규모와 상대적 위험도를 동시에 파악하도록 하여 이후 정책적 해석에 기반이 되는 공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1. 경찰청 범죄통계(2023)

경찰청 범죄통계(2023)는 범죄 발생 정보를 시·군·구 단위까지 세분화하여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로 각 행정구역별 5대 범죄 발생건수를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해당 원천 데이터를 가공함으로써 행정구역 단위별 5대 범죄에 대한 재집계가 가능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느 지역에서 범죄 발생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지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총인구 통계와 결합하여 인구 1만 명당 발생 밀도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 건수 비교를 넘어 지역의 인구 규모를 고려한 상대적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다. 본 장에서 제시하는 ‘발생 총합 지도’와 ‘인구 1만 명당 밀도 지도’는 모두 경찰청 통계를 기반으로 구축된 것으로 공간적 편중과 지역별 격차를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데 유용한 분석 도구로 기능한다.

1) 지방자치단체 5대 범죄 발생 통계(발생건수)

[표 2] 경찰청 범죄통계(2023) 시군구 단위 5대 범죄 발생 통계

(단위: 건)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강도	살인	성폭력	절도	폭력	총합	
서울	소계	570	766	22,339	189,553	234,464	447,692	
	소계	127	148	5,736	37,037	43,080	86,128	
	종로구	5	3	239	1,173	1,557	2,977	
	중구	6	3	216	1,523	1,621	3,369	
	용산구	3	3	244	971	1,772	2,993	
	성동구	2	2	120	891	1,005	2,020	
	광진구	5	2	239	1,619	1,559	3,424	
	동대문구	4	5	149	1,278	1,524	2,960	
	중랑구	2	6	167	1,400	1,746	3,321	
	성북구	1	1	139	982	1,282	2,405	
	강북구	1	7	139	917	1,434	2,498	
	도봉구	4	7	88	997	827	1,923	
	노원구	3	7	154	1,629	1,763	3,556	
	은평구	3	7	150	1,612	1,711	3,483	
	서대문구	0	5	156	1,190	1,026	2,377	
	마포구	4	3	455	1,479	1,912	3,853	
	양천구	2	5	111	1,411	1,490	3,019	
	강서구	6	1	294	1,790	2,178	4,269	
	구로구	7	12	191	1,627	1,903	3,740	
	금천구	5	4	125	980	1,116	2,230	
	영등포구	9	12	308	1,856	2,227	4,412	
	동작구	3	3	196	1,191	1,270	2,663	
	관악구	10	17	321	2,005	2,390	4,743	
	서초구	9	7	406	1,941	2,156	4,519	
	강남구	19	14	685	2,480	3,565	6,763	
	송파구	9	8	305	2,419	2,478	5,219	
	강동구	5	4	139	1,676	1,568	3,392	
	소계	27	52	1,510	15,049	16,448	33,086	
	부산	중구	2	2	41	656	698	1,399
		서구	2	3	29	714	500	1,248
동구		4	4	54	555	751	1,368	
영도구		1	5	40	468	570	1,084	
부산진구		6	5	346	2,592	2,679	5,628	
동래구		0	1	105	1,330	1,250	2,686	
남구		1	1	108	684	996	1,790	
북구		0	6	93	1,011	957	2,067	
강서구		0	2	56	476	616	1,150	
해운대구		4	3	144	1,534	1,422	3,107	

공간으로 읽는 범죄 데이터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강도	살인	성폭력	절도	폭력	총합
부산	사하구	0	2	101	940	1,277	2,320
	금정구	0	4	78	880	836	1,798
	연제구	2	2	82	930	1,179	2,195
	수영구	1	3	103	667	917	1,691
	사상구	3	6	75	951	1,028	2,063
	기장군	1	3	55	661	772	1,492
	소계	24	23	1,027	9,834	11,034	21,942
대구	중구	1	1	213	1,236	1,149	2,600
	동구	3	4	152	1,505	1,770	3,434
	서구	1	1	74	866	1,087	2,029
	남구	5	4	62	656	772	1,499
	북구	3	4	142	1,638	1,684	3,471
	수성구	5	4	119	1,138	1,578	2,844
	달서구	5	5	207	2,064	2,144	4,425
	달성군	1	0	55	715	823	1,594
	군위군	0	0	3	16	27	46
	소계	60	41	1,368	9,580	14,507	25,556
인천	중구	1	2	88	677	1,009	1,777
	동구	2	0	15	179	254	450
	미추홀구	11	7	254	1,644	2,301	4,217
	연수구	5	5	122	1,241	1,436	2,809
	남동구	13	13	232	1,402	2,210	3,870
	부평구	17	4	282	2,207	2,859	5,369
	계양구	7	3	114	735	1,293	2,152
	서구	3	5	231	1,297	2,715	4,251
	강화군	1	2	21	173	339	536
	옹진군	0	0	9	25	91	125
	소계	21	24	664	6,007	6,495	13,211
광주	동구	2	4	66	667	700	1,439
	서구	7	2	209	1,171	1,685	3,074
	남구	3	3	62	708	775	1,551
	북구	6	10	179	1,747	1,644	3,586
	광산구	3	5	148	1,714	1,691	3,561
	소계	20	21	671	5,970	7,541	14,223
대전	동구	8	5	102	1,161	1,408	2,684
	중구	1	6	126	1,059	1,349	2,541
	서구	6	2	247	1,954	2,453	4,662
	유성구	2	4	139	1,254	1,538	2,937
	대덕구	3	4	57	542	793	1,399
	소계	8	20	458	3,264	4,956	8,706
울산	중구	1	4	61	589	778	1,433
	남구	2	8	212	1,021	1,736	2,979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강도	살인	성폭력	절도	폭력	총합
울산	동구	2	3	66	478	771	1,320
	북구	1	2	47	561	781	1,392
	울주군	2	3	72	615	890	1,582
세종	소계	0	3	111	1,280	1,011	2,405
경기도	소계	123	168	4,972	45,471	59,973	110,707
	고양시	13	13	304	2,786	3,760	6,876
	과천시	0	0	17	271	201	489
	광명시	1	4	85	968	1,182	2,240
	광주시	0	3	111	1,012	2,017	3,143
	구리시	0	0	68	538	696	1,302
	군포시	2	3	77	944	925	1,951
	김포시	9	4	164	1,845	2,155	4,177
	남양주시	5	7	185	1,607	2,361	4,165
	동두천시	0	1	56	380	558	995
	부천시	6	6	389	3,682	4,020	8,103
	성남시	10	7	326	3,463	4,031	7,837
	수원시	16	16	563	4,959	6,010	11,564
	시흥시	7	4	197	1,971	3,009	5,188
	안산시	6	12	329	2,658	3,842	6,847
	안성시	2	6	64	742	983	1,797
	안양시	3	6	212	1,719	2,237	4,177
	양주시	2	1	79	524	893	1,499
	여주시	1	2	37	281	480	801
	오산시	2	3	93	990	1,182	2,270
	용인시	5	13	280	2,879	3,420	6,597
	의왕시	0	3	32	237	402	674
	의정부시	3	3	229	1,477	2,170	3,882
	이천시	2	7	78	679	986	1,752
	파주시	3	12	200	1,241	2,298	3,754
	평택시	6	6	261	2,941	3,700	6,914
	포천시	3	4	57	354	749	1,167
	하남시	1	2	90	943	1,067	2,103
	화성시	12	15	295	2,838	3,685	6,845
	연천군	1	0	12	111	203	327
	가평군	0	2	44	157	277	480
	양평군	2	3	38	274	474	791
	소계	10	27	658	4,368	7,169	12,232
강원도	강릉시	0	4	97	753	1,091	1,945
	동해시	0	1	37	244	508	790
	삼척시	1	1	25	189	348	564
	속초시	1	2	28	338	611	980
	원주시	3	3	147	977	1,368	2,498

공간으로 읽는 범죄 데이터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강도	살인	성폭력	절도	폭력	총합
강원도	춘천시	3	4	123	696	1,341	2,167
	태백시	0	3	11	89	184	287
	홍천군	0	1	25	153	242	421
	횡성군	0	2	16	95	138	251
	영월군	0	1	12	54	203	270
	평창군	0	0	28	88	143	259
	정선군	0	1	24	229	207	461
	철원군	1	1	10	103	165	280
	화천군	0	0	11	58	75	144
	양구군	1	1	15	62	98	177
	인제군	0	1	8	30	107	146
	고성군	0	1	10	106	125	242
	양양군	0	0	31	104	215	350
	소계	15	24	618	5,372	6,212	12,241
충청북도	제천시	1	1	49	367	443	861
	청주시	13	10	317	3,374	3,349	7,063
	충주시	0	6	97	638	751	1,492
	보은군	0	1	6	65	107	179
	옥천군	1	1	19	102	186	309
	영동군	0	0	16	85	109	210
	증평군	0	0	11	56	130	197
	진천군	0	1	40	244	436	721
	괴산군	0	0	6	48	122	176
	음성군	0	4	45	354	506	909
	단양군	0	0	12	39	73	124
	소계	29	43	880	7,629	9,330	17,911
	충청남도	계룡시	0	0	10	66	67
공주시		2	1	38	276	405	722
논산시		1	2	39	332	417	791
당진시		1	4	76	445	738	1,264
보령시		1	2	40	274	392	709
서산시		7	6	65	523	858	1,459
아산시		9	9	108	1,368	1,431	2,925
천안시		7	9	335	3,168	3,409	6,928
금산군		0	0	21	101	160	282
부여군		0	1	20	145	161	327
서천군		0	3	23	154	195	375
청양군		0	0	16	78	105	199
예산군		0	2	19	224	317	562
태안군		1	3	25	196	359	584
홍성군	0	1	45	279	316	641	
전라북도	소계	13	30	650	6,081	7,294	14,0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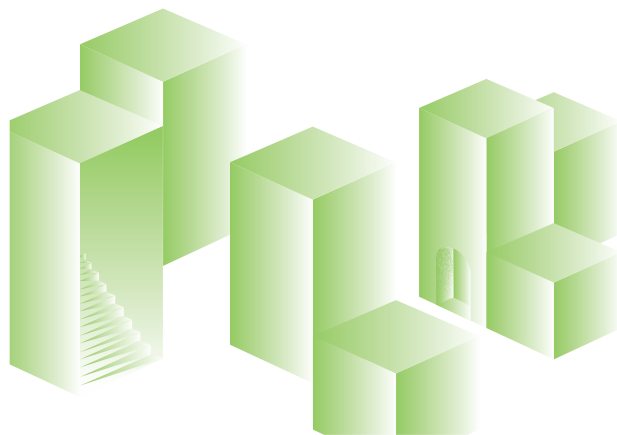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강도	살인	성폭력	절도	폭력	총합
전라북도	군산시	2	5	92	850	1,223	2,172
	김제시	0	1	30	175	342	548
	남원시	0	2	22	259	320	603
	익산시	4	3	96	1,078	1,269	2,450
	전주시	5	12	293	2,576	2,633	5,519
	정읍시	0	4	30	520	428	982
	완주군	0	1	31	150	347	529
	고창군	1	0	10	123	216	350
	부안군	1	1	16	107	211	336
	임실군	0	0	5	46	66	117
	순창군	0	0	4	58	45	107
	진안군	0	1	7	46	62	116
	무주군	0	0	7	55	68	130
	장수군	0	0	7	38	64	109
	소계	11	37	668	5,720	8,938	15,374
전라남도	광양시	0	1	45	467	758	1,271
	나주시	0	1	35	383	505	924
	목포시	3	4	118	1,013	1,324	2,462
	순천시	3	5	134	787	1,607	2,536
	여수시	2	5	97	717	1,550	2,371
	담양군	0	0	12	94	127	233
	곡성군	0	0	9	85	107	201
	구례군	0	0	8	67	89	164
	고흥군	0	3	14	157	241	415
	보성군	0	1	6	111	135	253
	화순군	1	1	22	205	199	428
	장흥군	0	2	12	111	212	337
	강진군	0	0	15	127	162	304
	해남군	0	1	17	172	268	458
	영암군	0	3	31	141	271	446
	무안군	0	1	25	306	381	713
	함평군	0	1	12	128	117	258
	영광군	0	5	14	168	220	407
	장성군	0	0	10	115	125	250
	완도군	2	0	18	180	249	449
진도군	0	1	11	103	189	304	
신안군	0	2	3	83	102	190	
소계	28	44	859	9,310	10,899	21,140	
경상북도	경산시	3	1	97	1,070	1,222	2,393
	경주시	3	7	104	1,128	1,079	2,321
	구미시	8	4	162	1,740	2,128	4,042
	김천시	2	3	37	351	561	954

공간으로 읽는 범죄 데이터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강도	살인	성폭력	절도	폭력	총합
경상북도	문경시	0	1	17	240	181	439
	상주시	0	1	23	318	270	612
	안동시	1	1	57	428	582	1,069
	영주시	0	7	19	199	357	582
	영천시	1	2	30	238	495	766
	포항시	5	7	199	2,201	1,979	4,391
	군위군	0	0	4	13	37	54
	의성군	1	1	11	121	158	292
	청송군	1	1	11	44	122	179
	영양군	0	0	1	42	90	133
	영덕군	0	0	10	166	210	386
	청도군	0	0	17	154	181	352
	고령군	0	3	6	67	92	168
	성주군	0	0	10	113	156	279
	칠곡군	1	4	25	295	528	853
	예천군	0	0	3	127	154	284
	봉화군	1	0	7	45	89	142
	울진군	1	1	7	194	179	382
	울릉군	0	0	2	16	49	67
	소계	38	51	1,070	14,296	14,447	29,902
경상남도	거제시	2	5	108	870	1,202	2,187
	김해시	0	6	181	3,472	2,250	5,909
	밀양시	2	1	24	252	509	788
	사천시	1	0	33	307	580	921
	양산시	2	3	98	1,232	1,551	2,886
	진주시	4	8	115	2,930	1,533	4,590
	창원시	6	19	325	3,662	4,451	8,463
	통영시	11	2	71	699	856	1,639
	합안군	1	1	16	106	203	327
	거창군	3	0	18	147	216	384
	창녕군	1	1	20	136	183	341
	고성군	0	2	13	144	173	332
	하동군	2	2	7	68	161	240
	합천군	1	0	9	73	174	257
	남해군	1	0	12	54	102	169
	함양군	0	0	8	57	122	187
	산청군	0	1	7	37	94	139
	의령군	1	0	5	50	87	143
		소계	16	10	419	3,285	5,130
제주도	서귀포시	2	7	105	774	1,482	2,370
	제주시	14	3	314	2,511	3,648	6,490

출처: 경찰청 범죄통계(2023) 활용하여 연구진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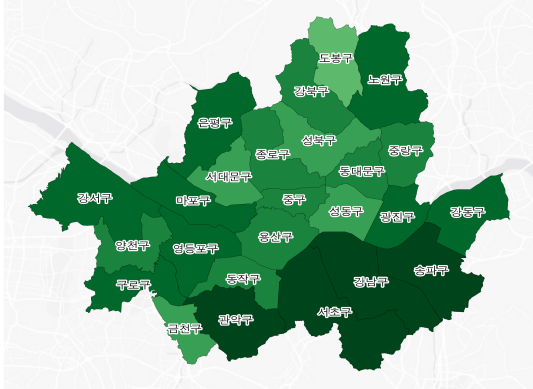
공간으로 읽는
범죄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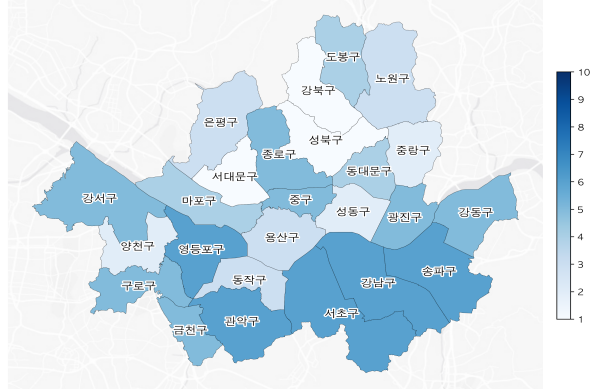
2) 지방자치단체 5대 범죄 발생 지도(발생건수, 인구 1만 명당 발생건수)

서울특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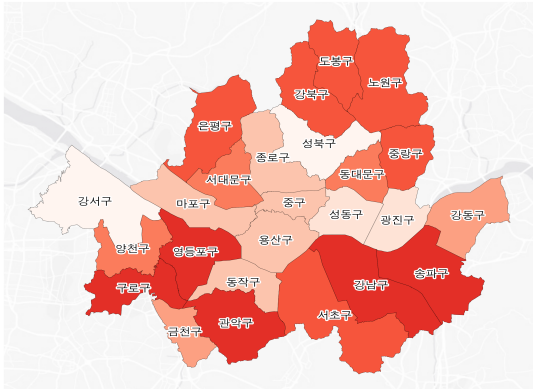
• 5대 범죄 발생건수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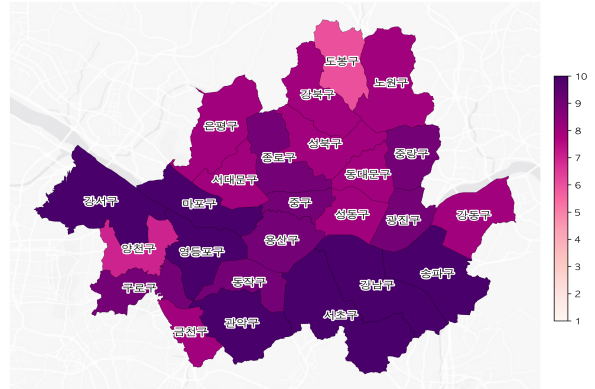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5대 범죄 발생 총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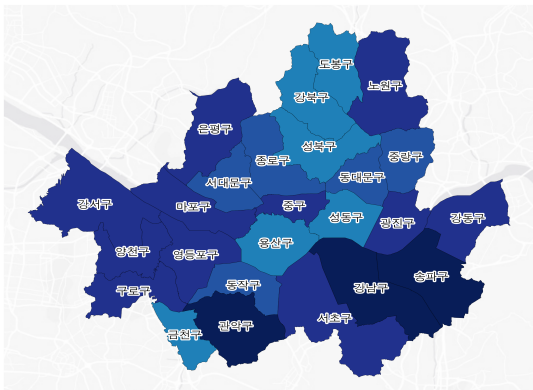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강도 범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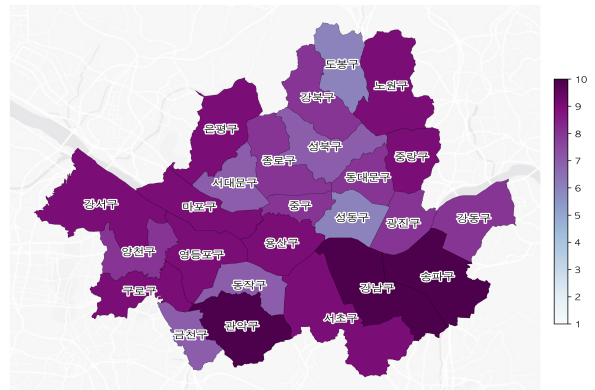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살인 범죄 발생



서울특별시 성폭력 범죄 발생



서울특별시 절도 범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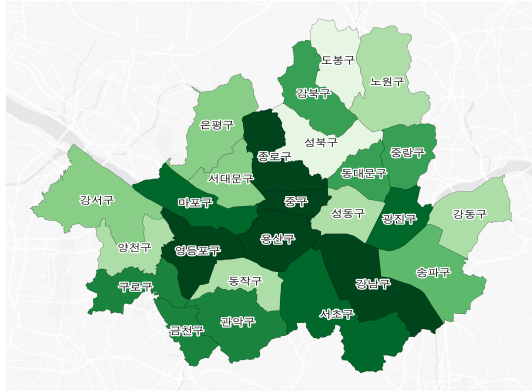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폭력 범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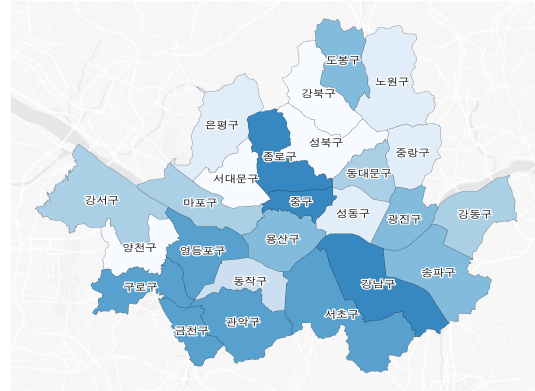
[그림 13] 5대 범죄 발생건수 지도(서울특별시)

출처: 경찰청 범죄통계(2023)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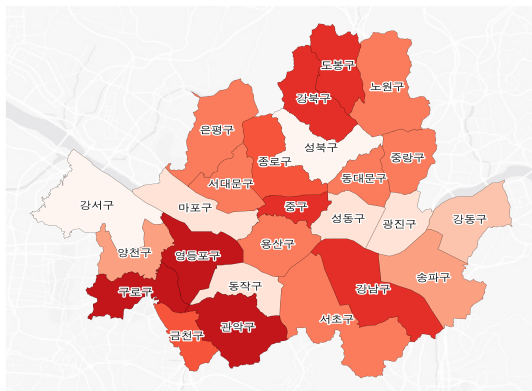
• 5대 범죄 인구 1만 명당 발생건수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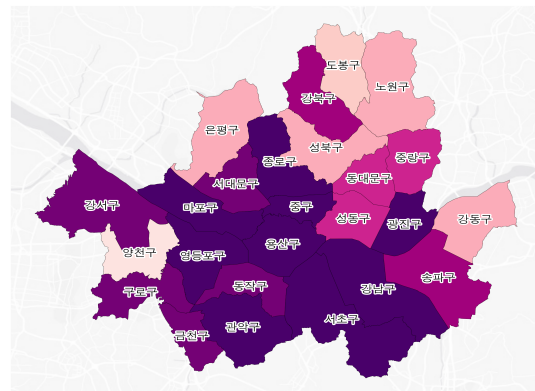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1만 명당 5대 범죄 발생 총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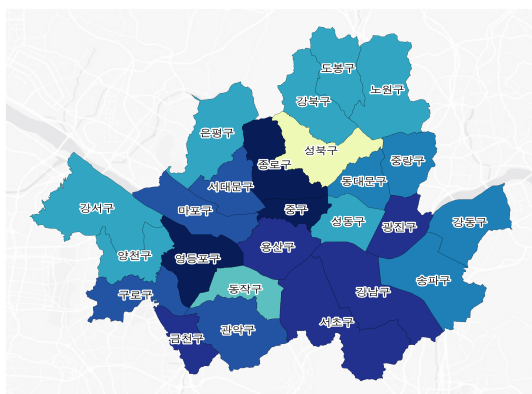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1만 명당 강도 범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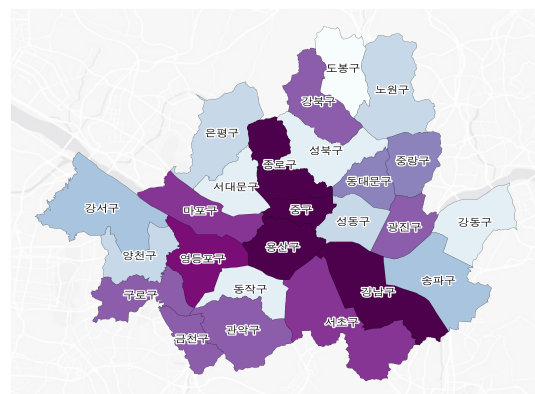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1만 명당 살인 범죄 발생



서울특별시 1만 명당 성폭력 범죄 발생



서울특별시 1만 명당 절도 범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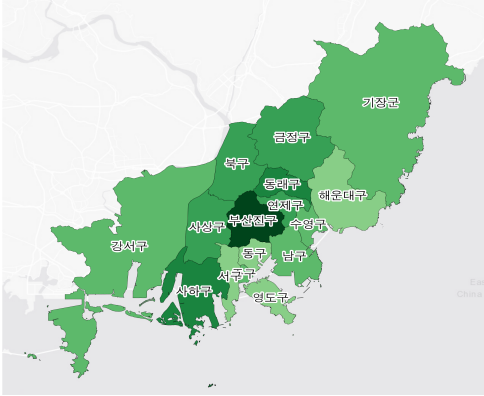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1만 명당 폭력 범죄 발생

[그림 14] 5대 범죄 인구 1만 명당 발생건수 지도(서울특별시)

출처: 경찰청 범죄통계(2023)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부산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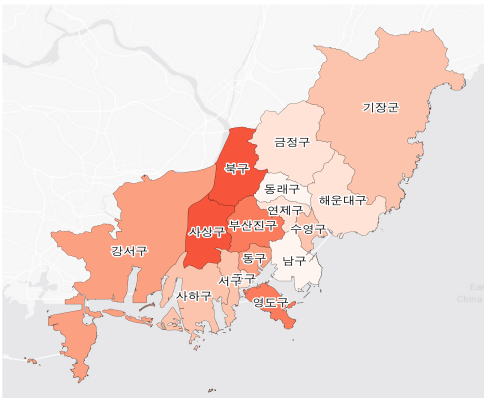
• 5대 범죄 발생건수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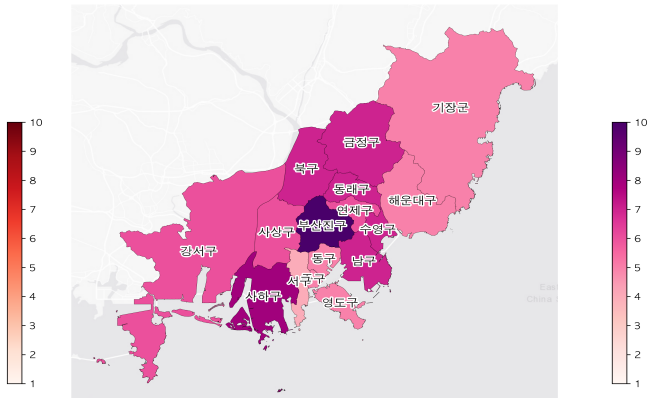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5대 범죄 발생 총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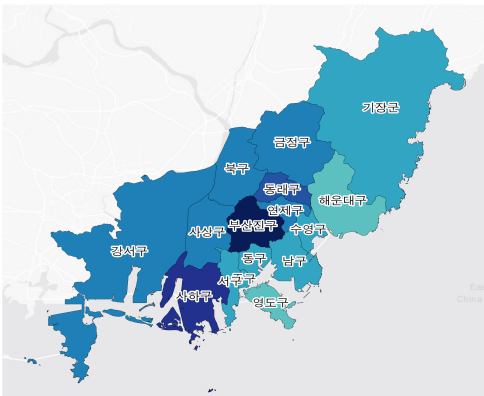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강도 범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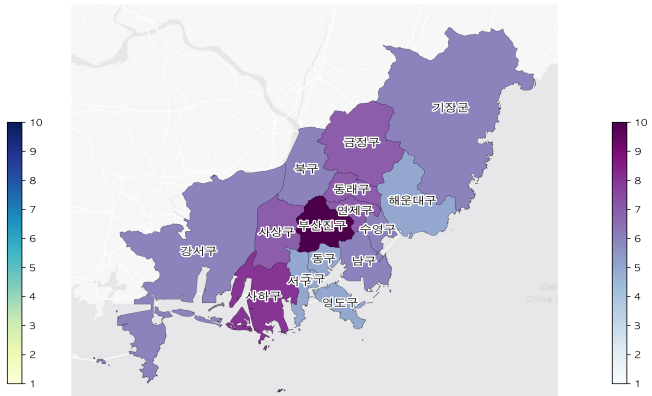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살인 범죄 발생



부산광역시 성폭력 범죄 발생



부산광역시 절도 범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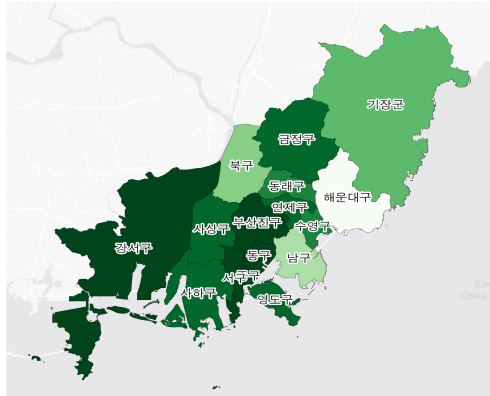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폭력 범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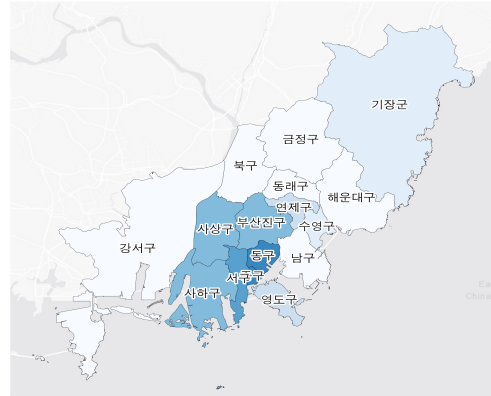
[그림 15] 5대 범죄 발생건수 지도(부산광역시)

출처: 경찰청 범죄통계(2023)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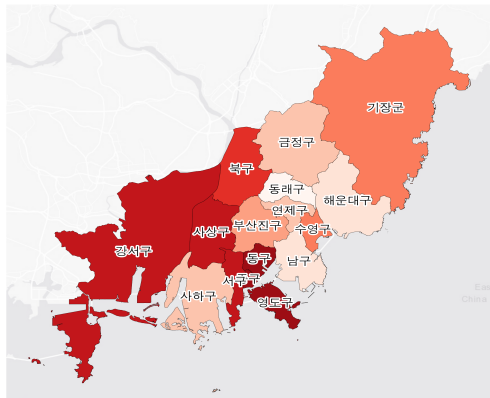
• 5대 범죄 인구 1만 명당 발생건수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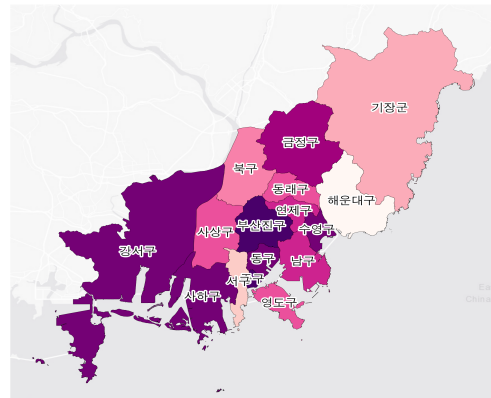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1만 명당 5대 범죄 발생 총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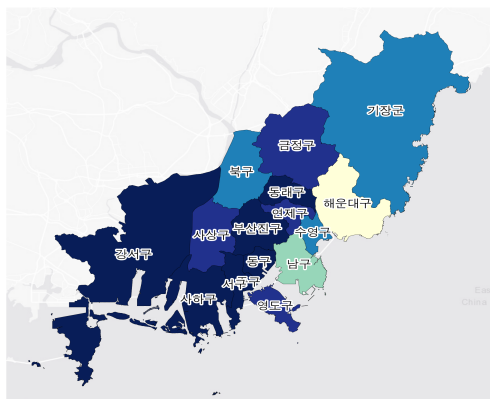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1만 명당 강도 범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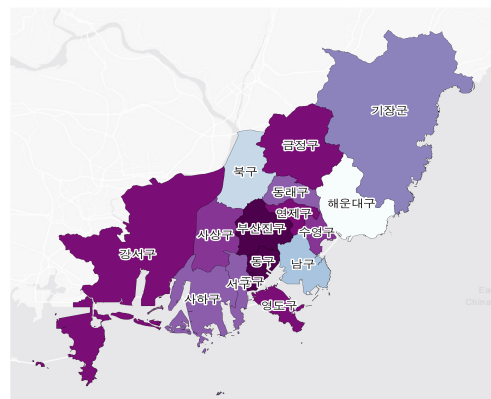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1만 명당 살인 범죄 발생



부산광역시 1만 명당 성폭력 범죄 발생



부산광역시 1만 명당 절도 범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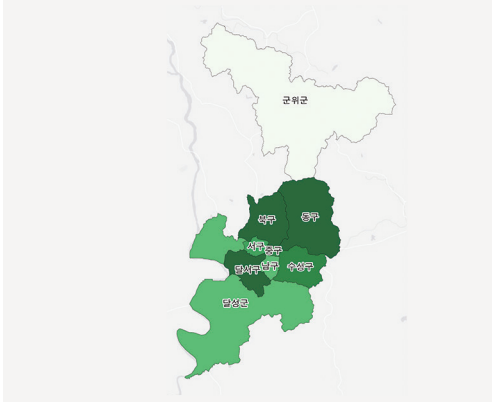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1만 명당 폭력 범죄 발생

[그림 16] 5대 범죄 인구 1만 명당 발생건수 지도(부산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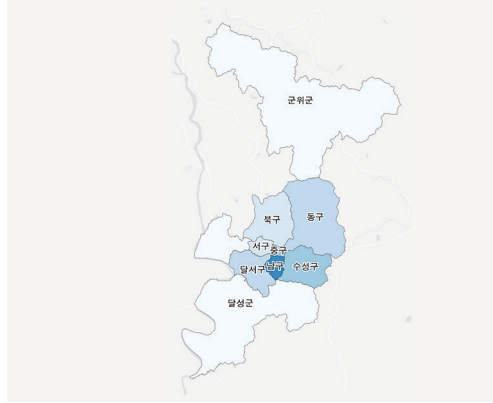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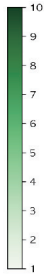
출처: 경찰청 범죄통계(2023)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대구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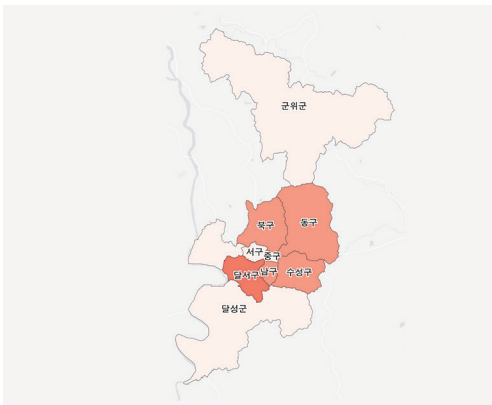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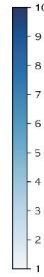
• 5대 범죄 발생건수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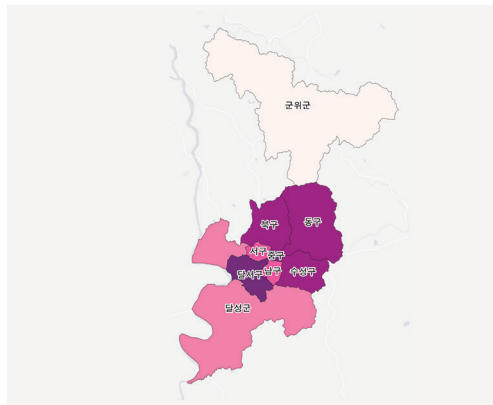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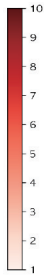
대구광역시 5대 범죄 발생 총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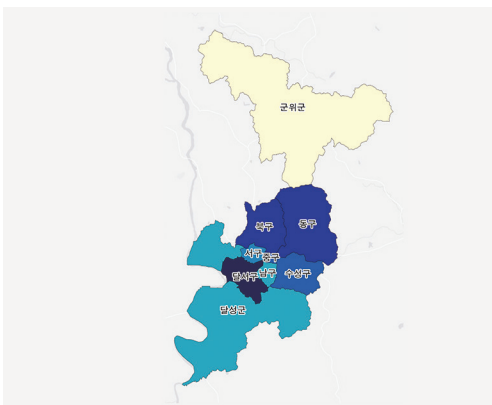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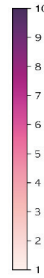
대구광역시 강도 범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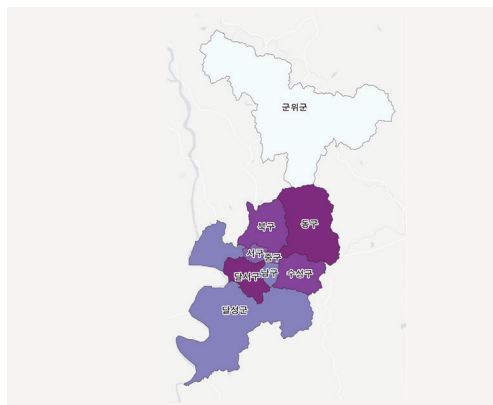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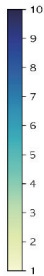
대구광역시 살인 범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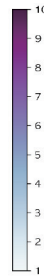
대구광역시 성폭력 범죄 발생



대구광역시 절도 범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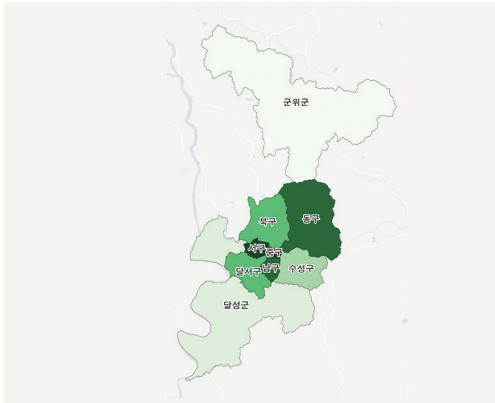
대구광역시 폭력 범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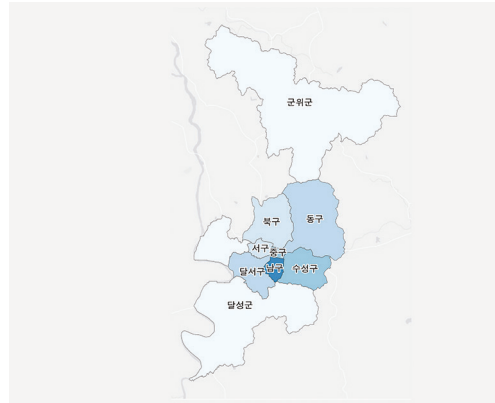
[그림 17] 5대 범죄 발생건수 지도(대구광역시)

출처: 경찰청 범죄통계(2023)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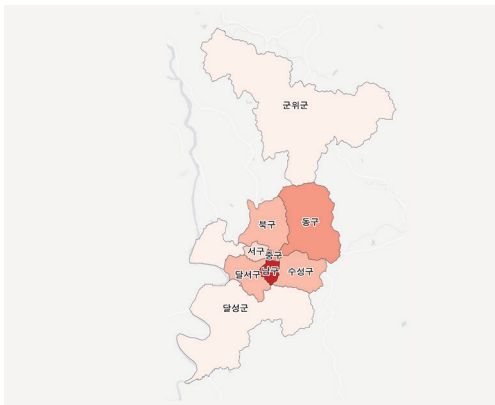
• 5대 범죄 인구 1만 명당 발생건수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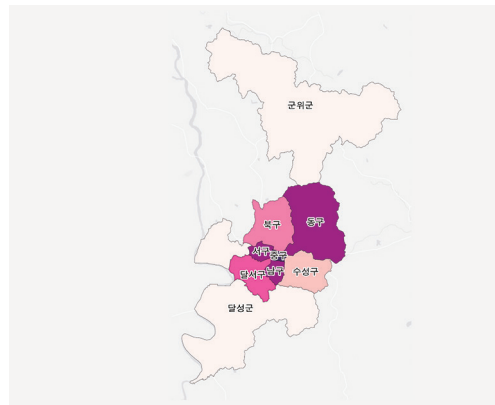
대구광역시 1만 명당 5대 범죄 발생 총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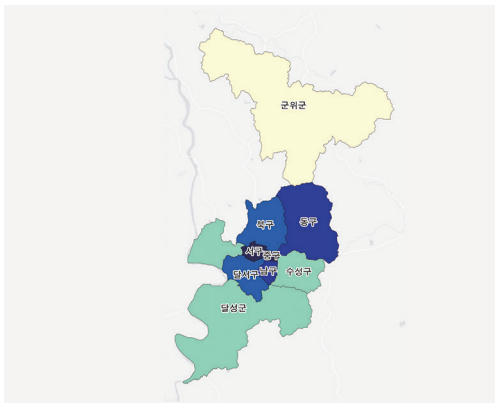
대구광역시 1만 명당 강도 범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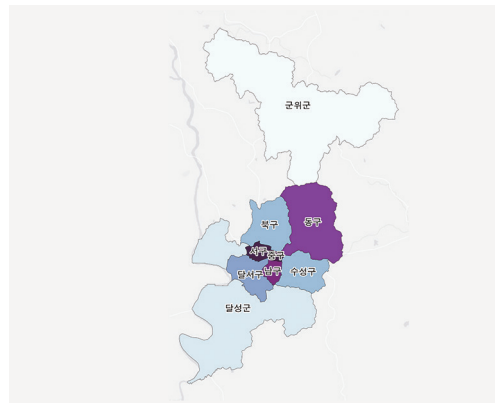
대구광역시 1만 명당 살인 범죄 발생



대구광역시 1만 명당 성폭력 범죄 발생



대구광역시 1만 명당 절도 범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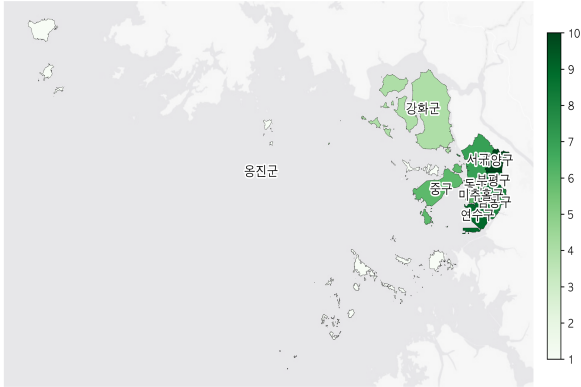
대구광역시 1만 명당 폭력 범죄 발생

[그림 18] 5대 범죄 인구 1만 명당 발생건수 지도(대구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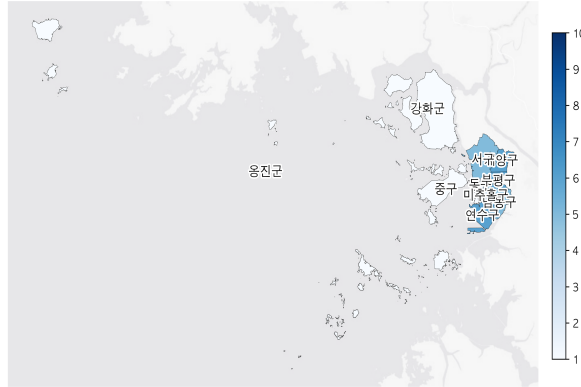
출처: 경찰청 범죄통계(2023)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인천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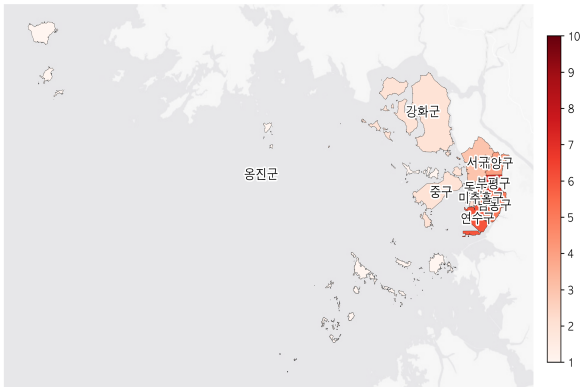
• 5대 범죄 발생건수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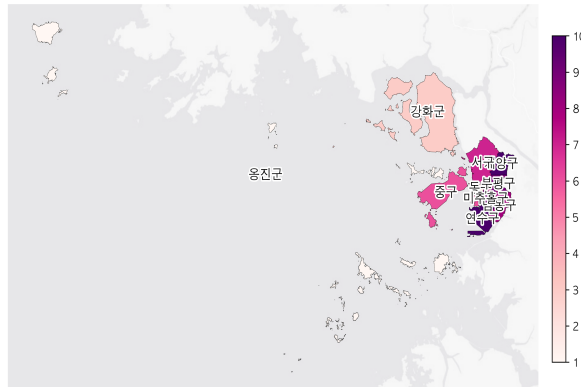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5대 범죄 발생 총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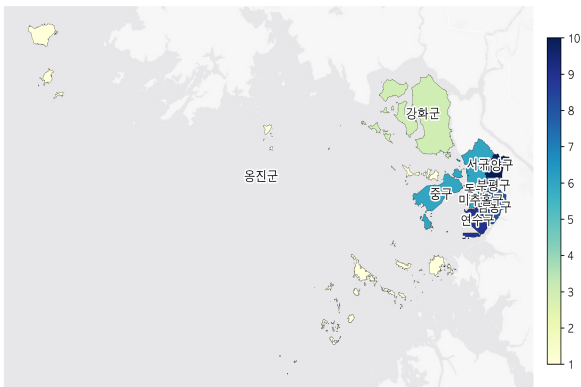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강도 범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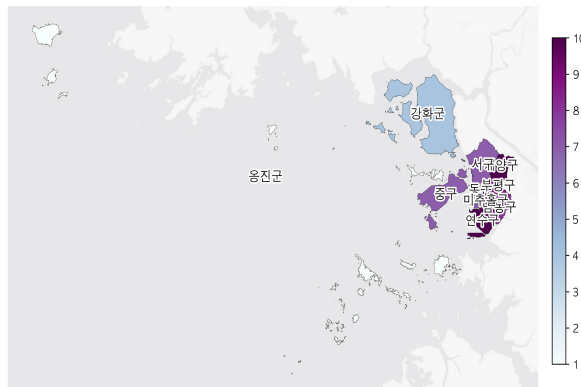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살인 범죄 발생



인천광역시 성폭력 범죄 발생



인천광역시 절도 범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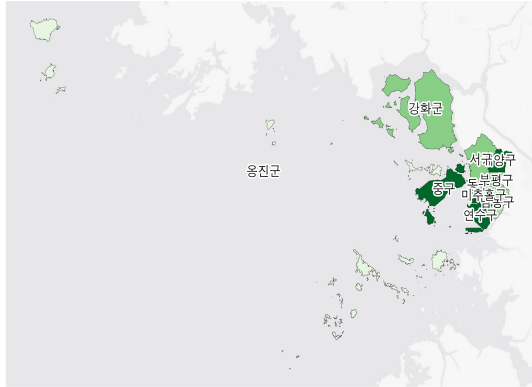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폭력 범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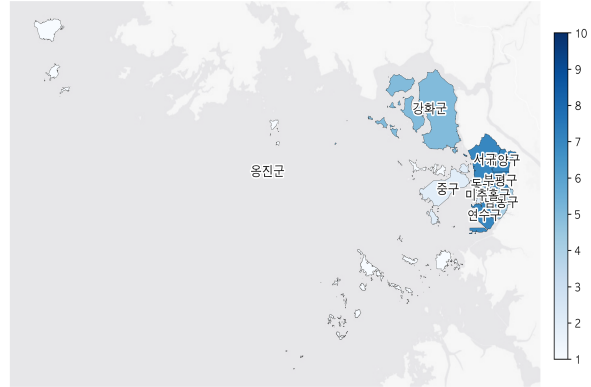
[그림 19] 5대 범죄 발생건수 지도(인천광역시)

출처: 경찰청 범죄통계(2023)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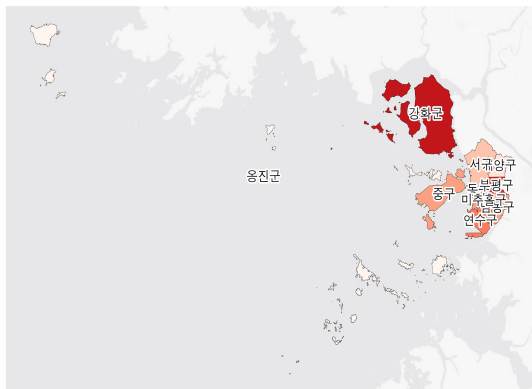
• 5대 범죄 인구 1만 명당 발생건수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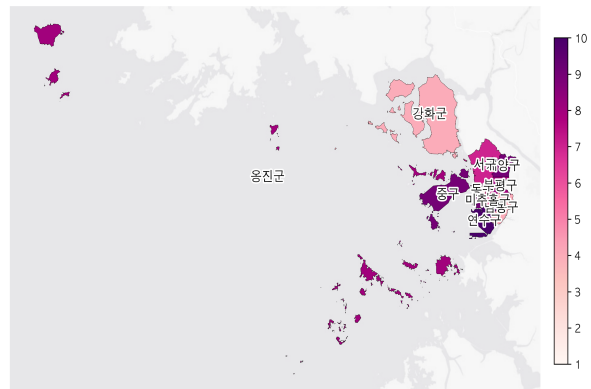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1만 명당 5대 범죄 발생 총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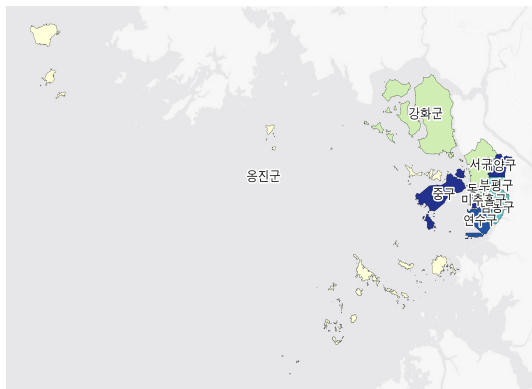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1만 명당 강도 범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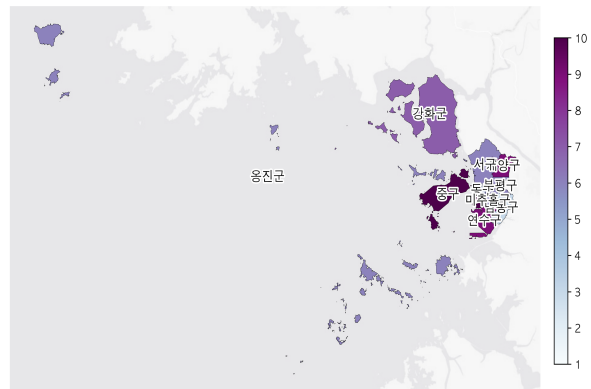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1만 명당 살인 범죄 발생



인천광역시 1만 명당 성폭력 범죄 발생



인천광역시 1만 명당 절도 범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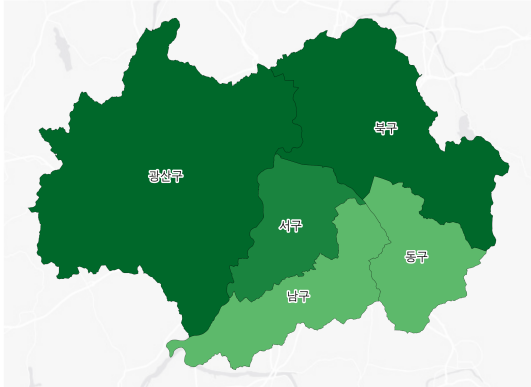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1만 명당 폭력 범죄 발생

[그림 20] 5대 범죄 인구 1만 명당 발생건수 지도(인천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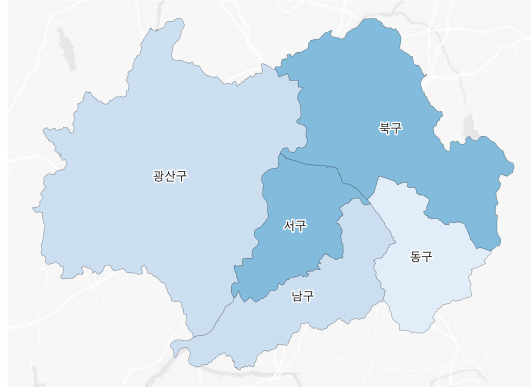
출처: 경찰청 범죄통계(2023)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광주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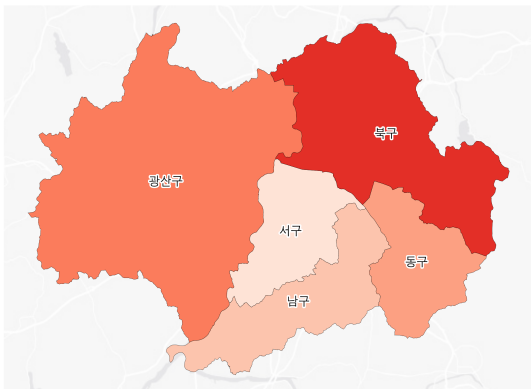
• 5대 범죄 발생건수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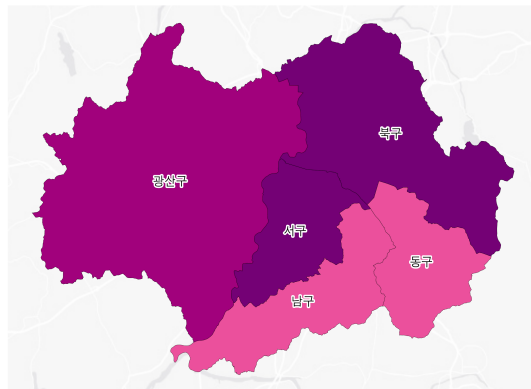
광주광역시 5대 범죄 발생 총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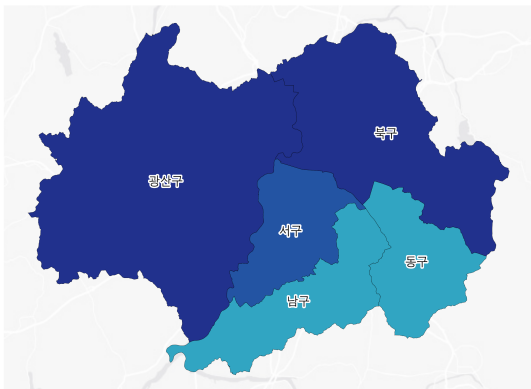
광주광역시 강도 범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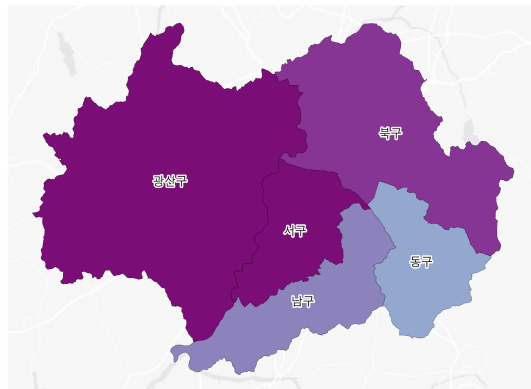
광주광역시 살인 범죄 발생



광주광역시 성폭력 범죄 발생



광주광역시 절도 범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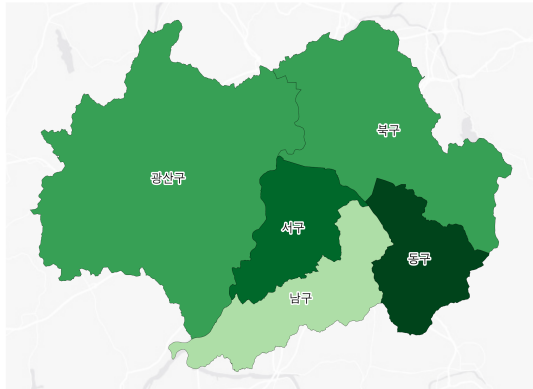


광주광역시 폭력 범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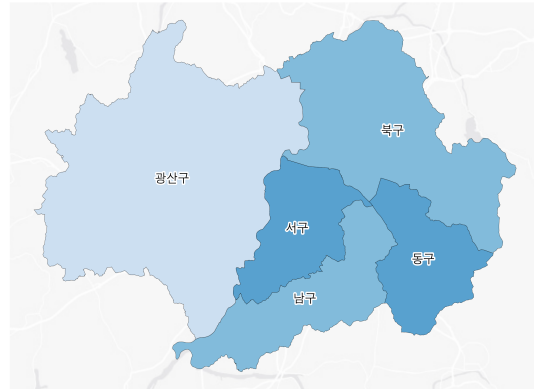
[그림 21] 5대 범죄 발생건수 지도(광주광역시)

출처: 경찰청 범죄통계(2023)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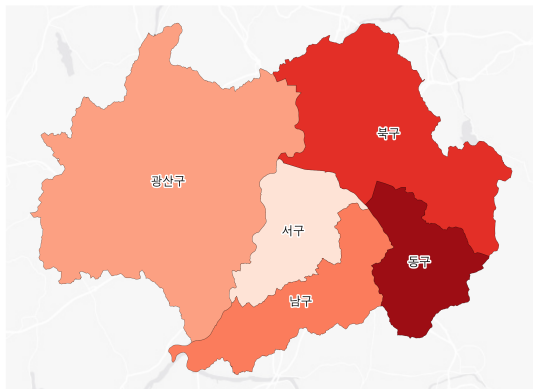
• 5대 범죄 인구 1만 명당 발생건수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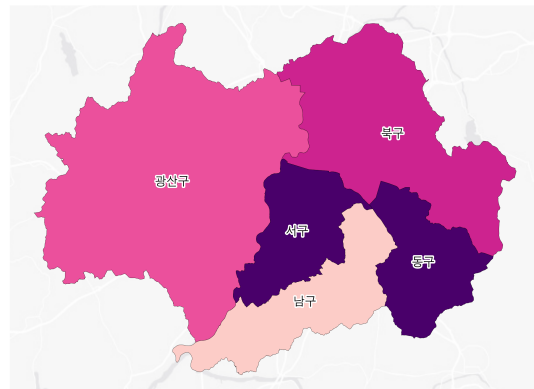
광주광역시 1만 명당 5대 범죄 발생 총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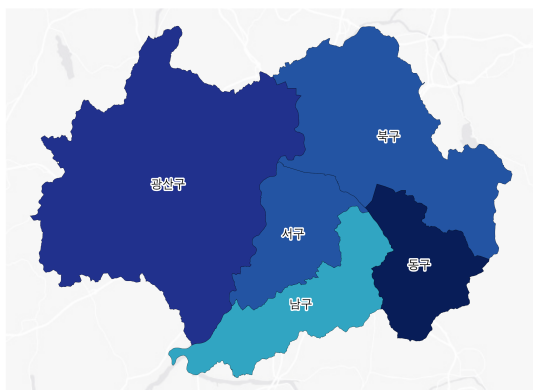
광주광역시 1만 명당 강도 범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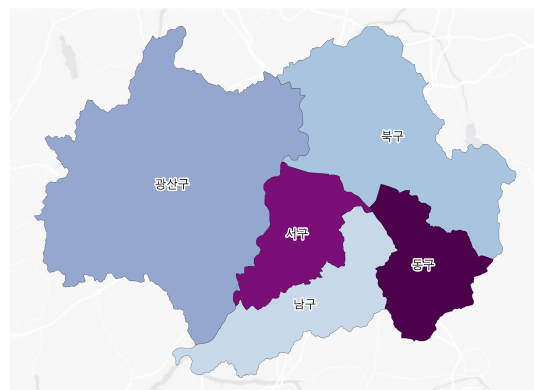
광주광역시 1만 명당 살인 범죄 발생



광주광역시 1만 명당 성폭력 범죄 발생



광주광역시 1만 명당 절도 범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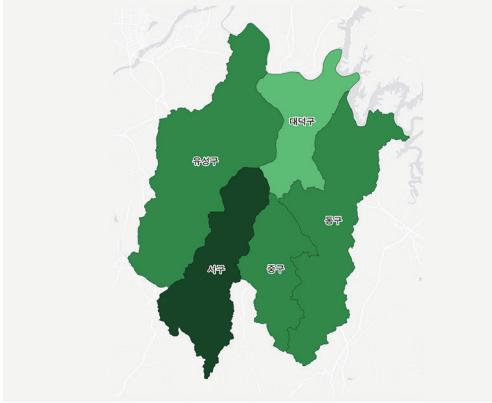
광주광역시 1만 명당 폭력 범죄 발생

[그림 22] 5대 범죄 인구 1만 명당 발생건수 지도(광주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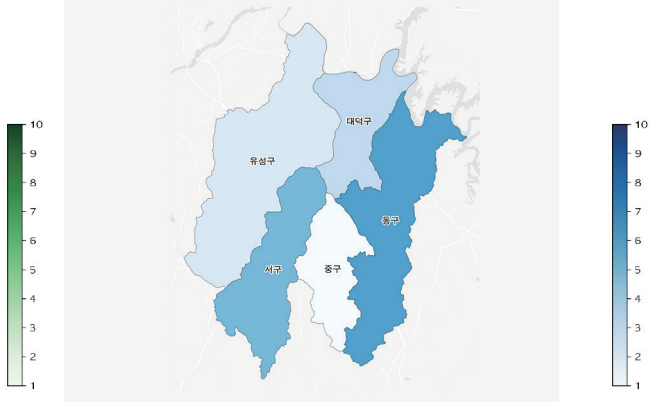
출처: 경찰청 범죄통계(2023)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대전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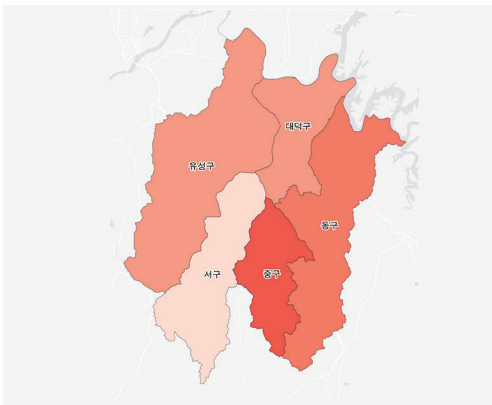
• 5대 범죄 발생건수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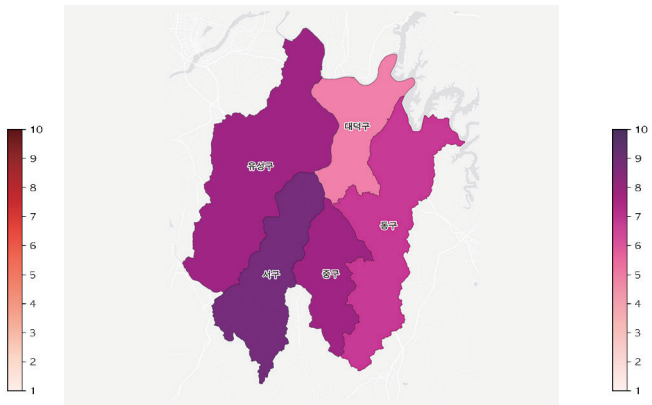
대전광역시 5대 범죄 발생 총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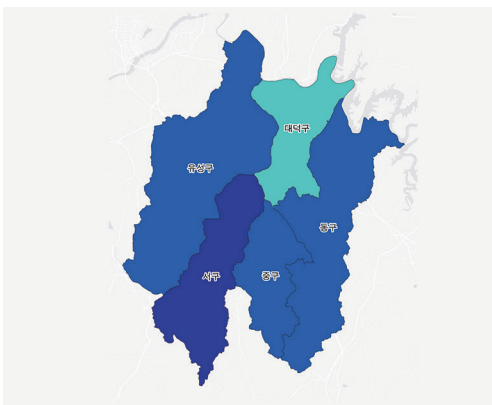
대전광역시 강도 범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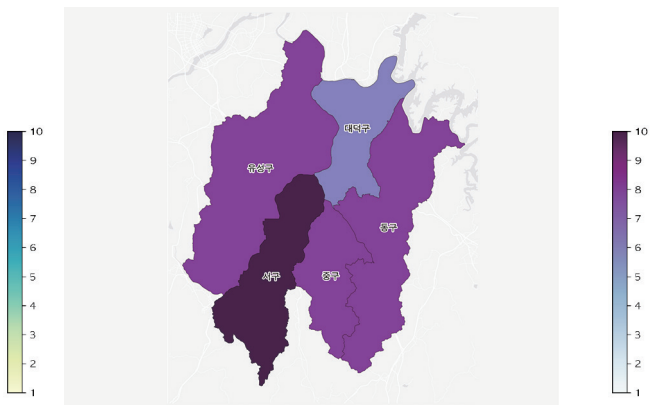
대전광역시 살인 범죄 발생



대전광역시 성폭력 범죄 발생



대전광역시 절도 범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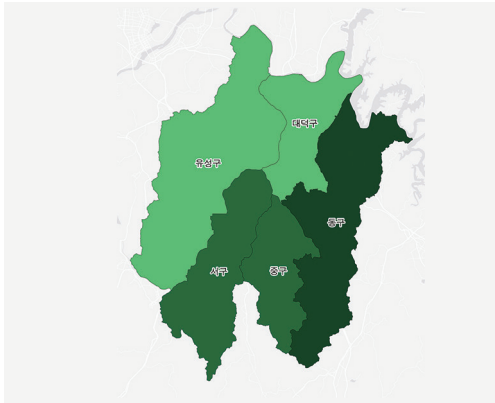


대전광역시 폭력 범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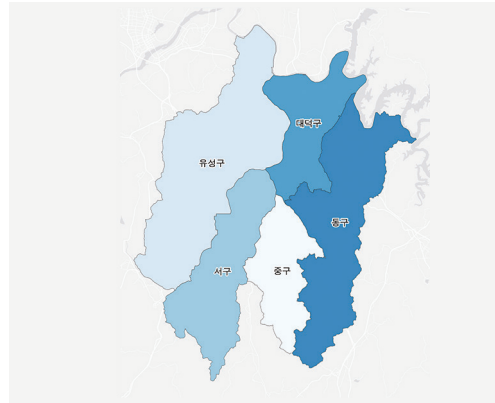
[그림 23] 5대 범죄 발생건수 지도(대전광역시)

출처: 경찰청 범죄통계(2023)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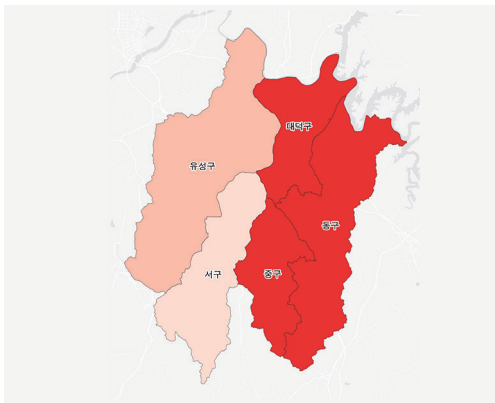
• 5대 범죄 인구 1만 명당 발생건수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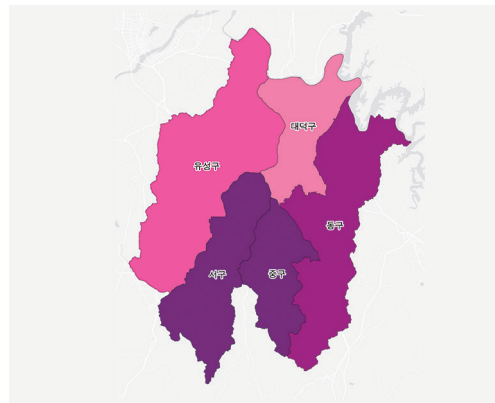
대전광역시 1만 명당 5대 범죄 발생 총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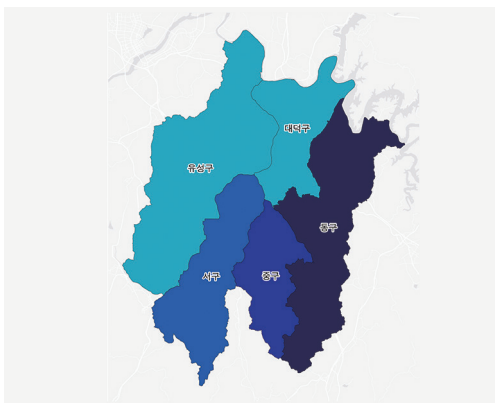
대전광역시 1만 명당 강도 범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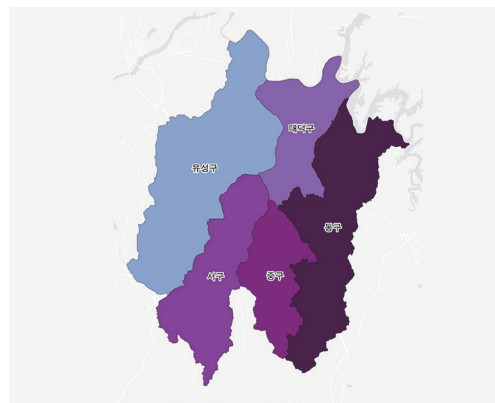
대전광역시 1만 명당 살인 범죄 발생



대전광역시 1만 명당 성폭력 범죄 발생



대전광역시 1만 명당 절도 범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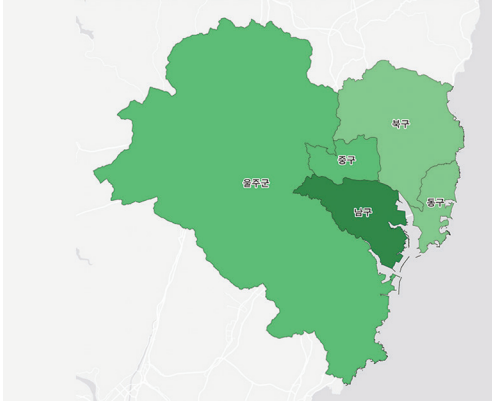
대전광역시 1만 명당 폭력 범죄 발생

[그림 24] 5대 범죄 인구 1만 명당 발생건수 지도(대전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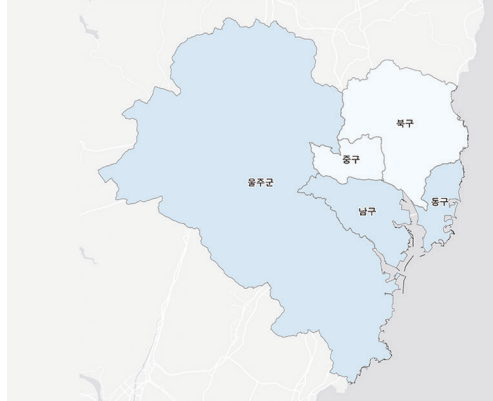
출처: 경찰청 범죄통계(2023)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울산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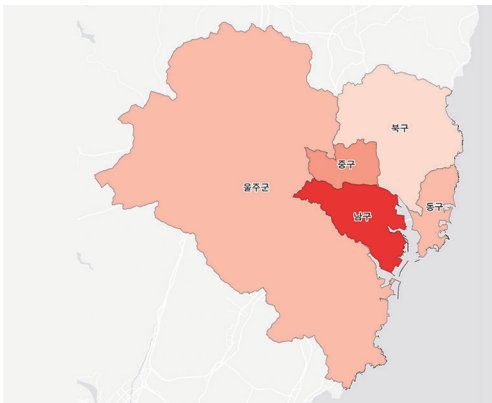
• 5대 범죄 발생건수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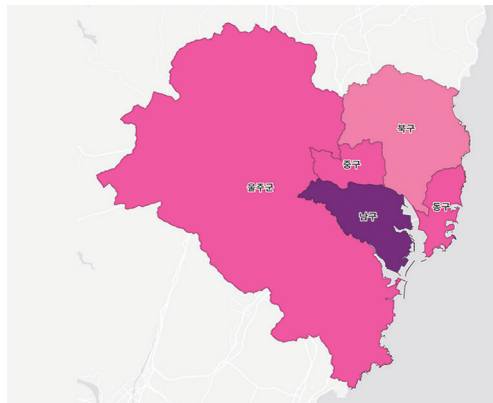
울산광역시 5대 범죄 발생 총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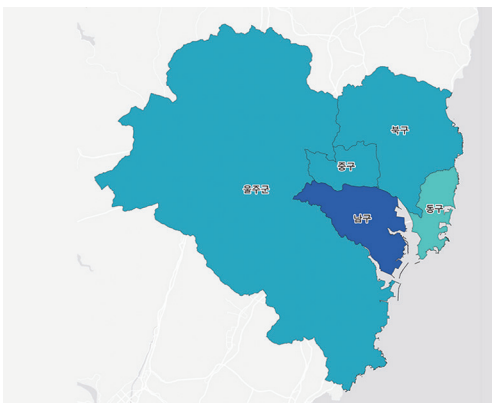
울산광역시 강도 범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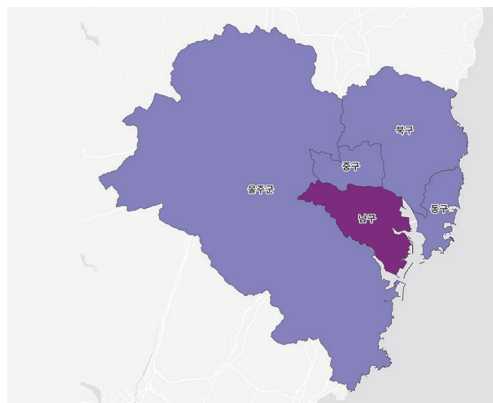
울산광역시 살인 범죄 발생



울산광역시 성폭력 범죄 발생



울산광역시 절도 범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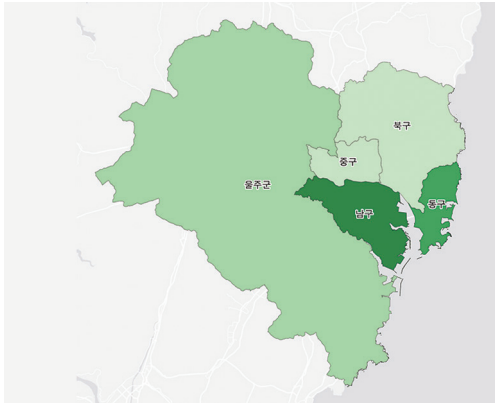


울산광역시 폭력 범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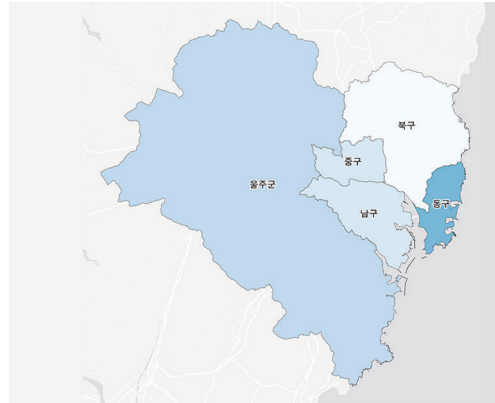
[그림 25] 5대 범죄 발생건수 지도(울산광역시)

출처: 경찰청 범죄통계(2023)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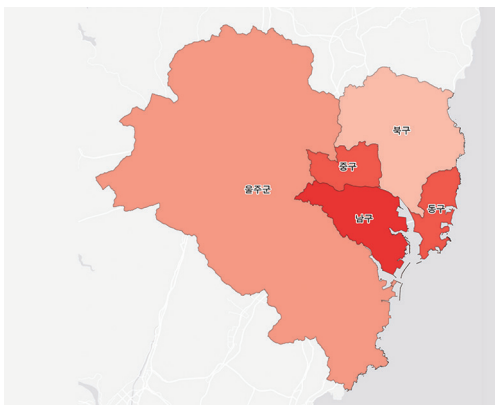
• 5대 범죄 인구 1만 명당 발생건수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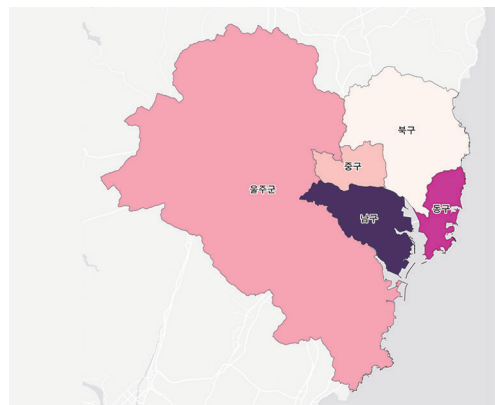
울산광역시 1만 명당 5대 범죄 발생 총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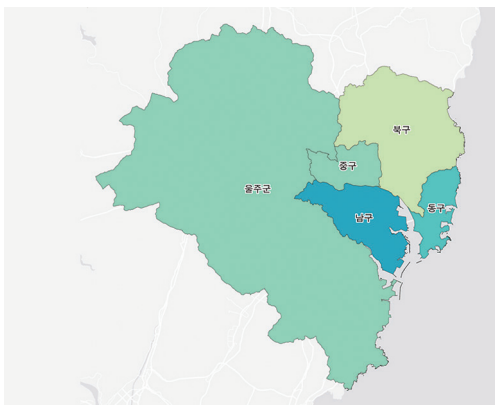
울산광역시 1만 명당 강도 범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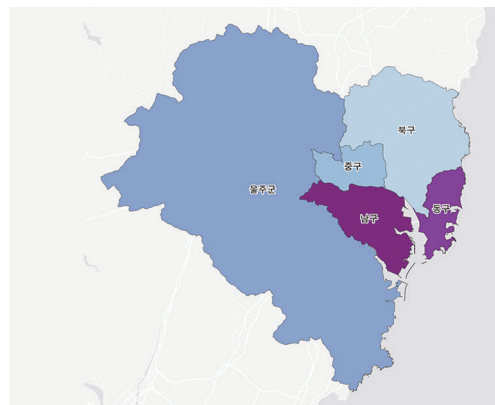
울산광역시 1만 명당 살인 범죄 발생



울산광역시 1만 명당 성폭력 범죄 발생



울산광역시 1만 명당 절도 범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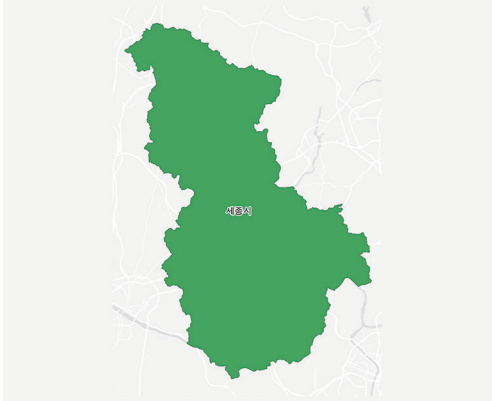
울산광역시 1만 명당 폭력 범죄 발생

[그림 26] 5대 범죄 인구 1만 명당 발생건수 지도(울산광역시)

출처: 경찰청 범죄통계(2023)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세종특별자치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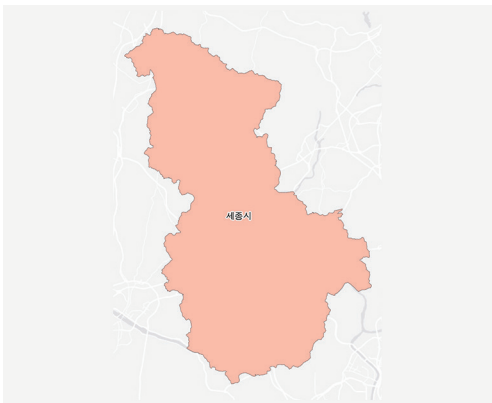
• 5대 범죄 발생건수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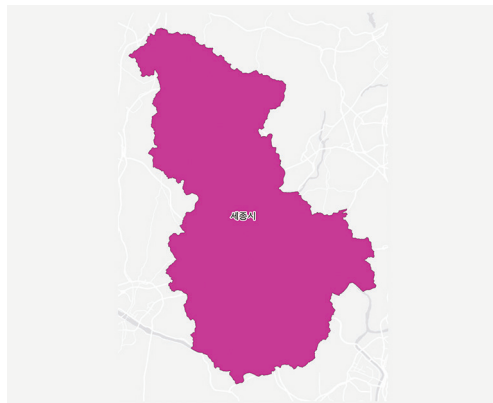
세종특별자치시 5대 범죄 발생 총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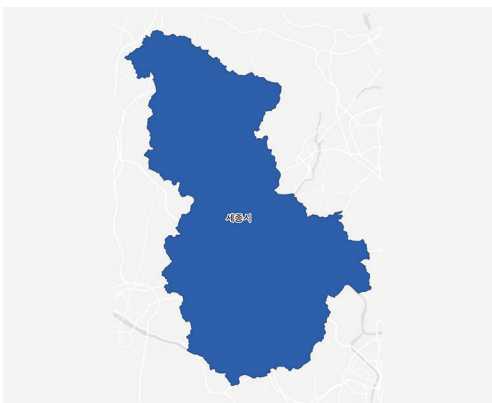
세종특별자치시 강도 범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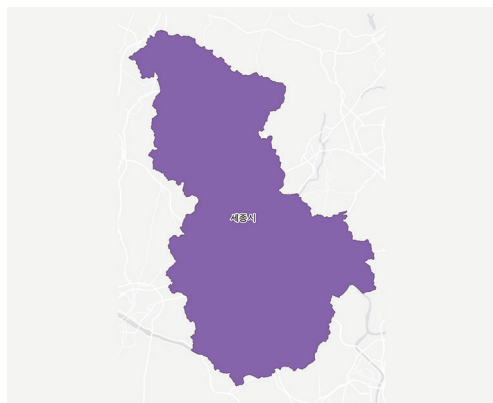
세종특별자치시 살인 범죄 발생



세종특별자치시 성폭력 범죄 발생



세종특별자치시 절도 범죄 발생



세종특별자치시 폭력 범죄 발생

[그림 27] 5대 범죄 발생건수 지도(세종특별자치시)

출처: 경찰청 범죄통계(2023)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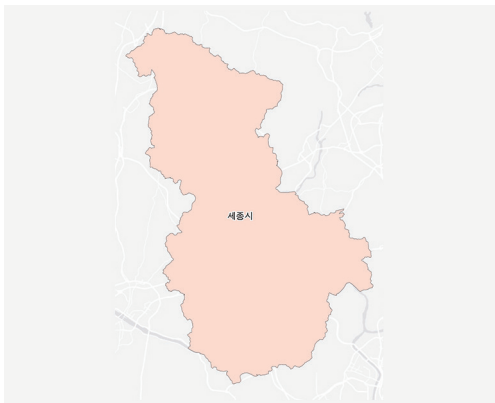
• 5대 범죄 인구 1만 명당 발생건수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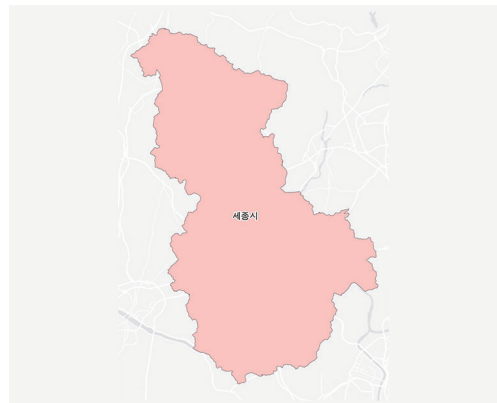
세종특별자치시 1만 명당 5대 범죄 발생 총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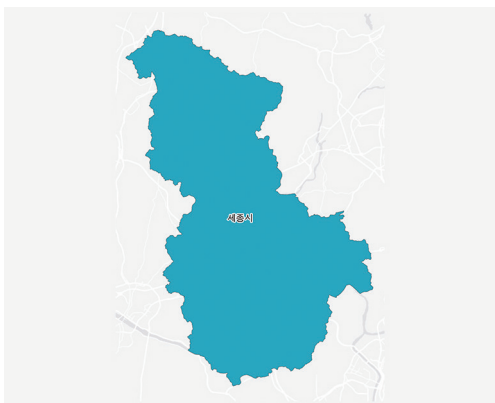
세종특별자치시 1만 명당 강도 범죄 발생



세종특별자치시 1만 명당 살인 범죄 발생



세종특별자치시 1만 명당 성폭력 범죄 발생



세종특별자치시 1만 명당 절도 범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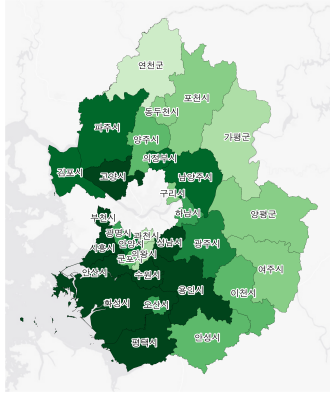
세종특별자치시 1만 명당 폭력 범죄 발생

[그림 28] 5대 범죄 인구 1만 명당 발생건수 지도(세종특별자치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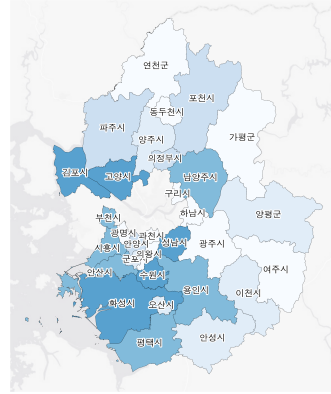
출처: 경찰청 범죄통계(2023)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경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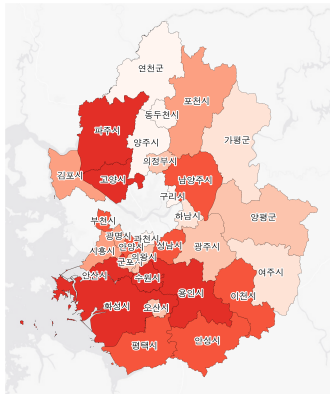
• 5대 범죄 발생건수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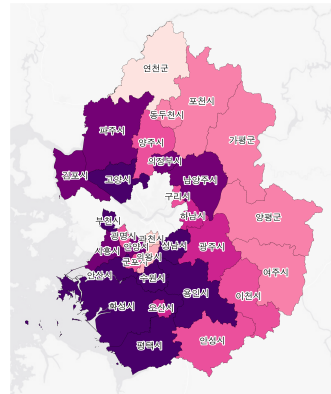
경기도 5대 범죄 발생 총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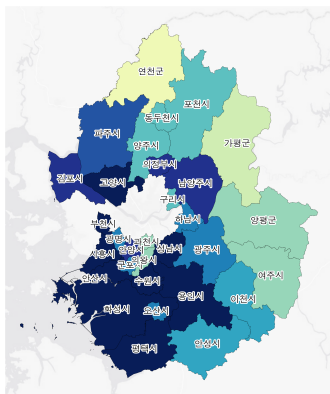
경기도 강도 범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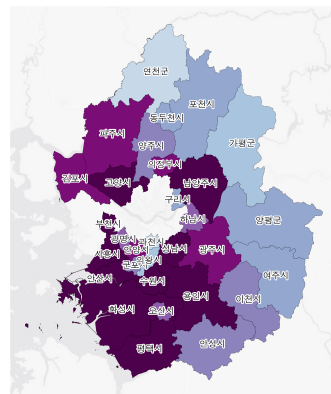
경기도 살인 범죄 발생



경기도 성폭력 범죄 발생



경기도 절도 범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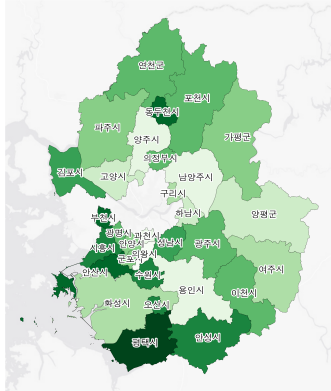


경기도 폭력 범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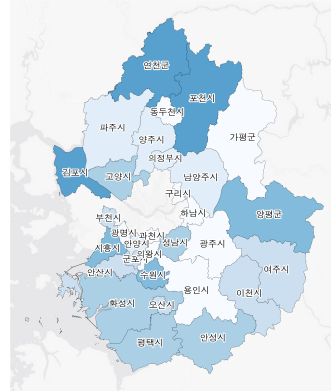
[그림 29] 5대 범죄 발생건수 지도(경기도)

출처: 경찰청 범죄통계(2023)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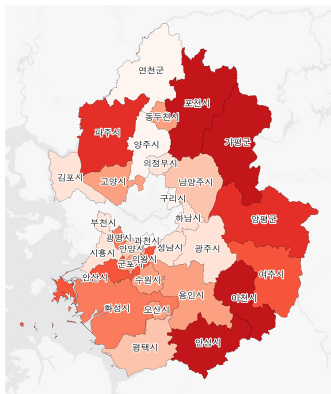
• 5대 범죄 인구 1만 명당 발생건수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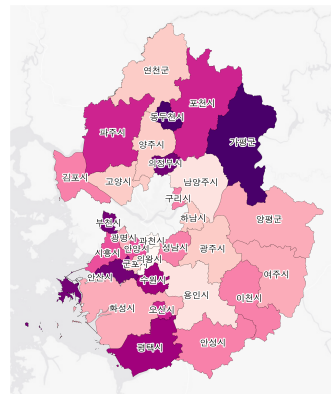
경기도 1만 명당 5대 범죄 발생 총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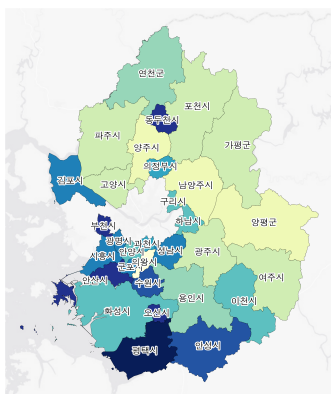
경기도 1만 명당 강도 범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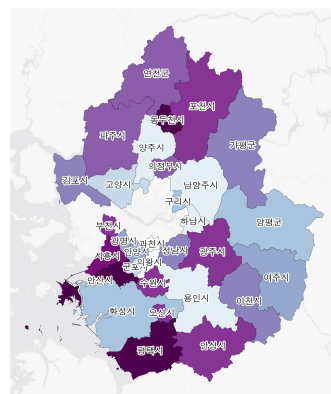
경기도 1만 명당 살인 범죄 발생



경기도 1만 명당 성폭력 범죄 발생



경기도 1만 명당 절도 범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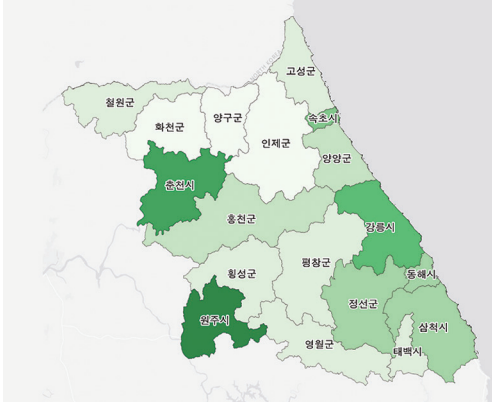
경기도 1만 명당 폭력 범죄 발생

[그림 30] 5대 범죄 인구 1만 명당 발생건수 지도(경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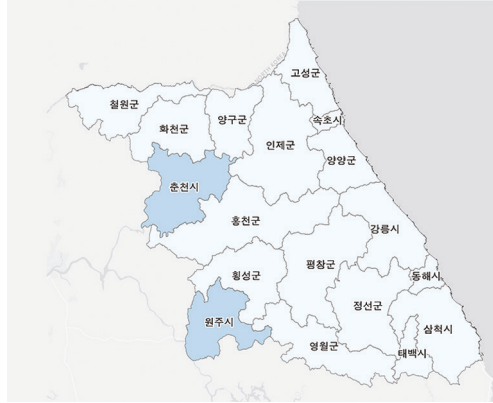
출처: 경찰청 범죄통계(2023)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강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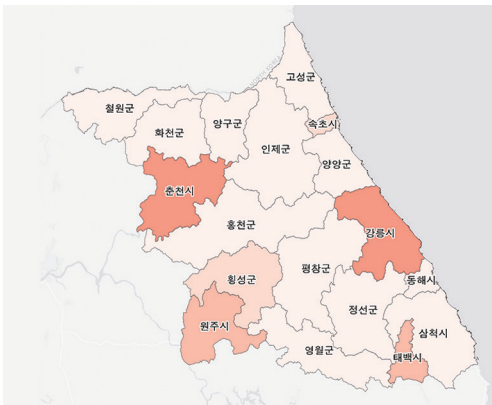
• 5대 범죄 발생건수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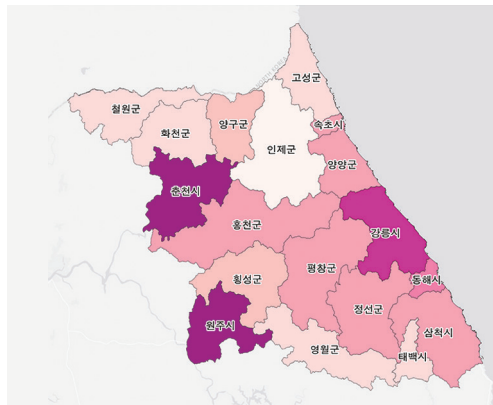
강원도 5대 범죄 발생 총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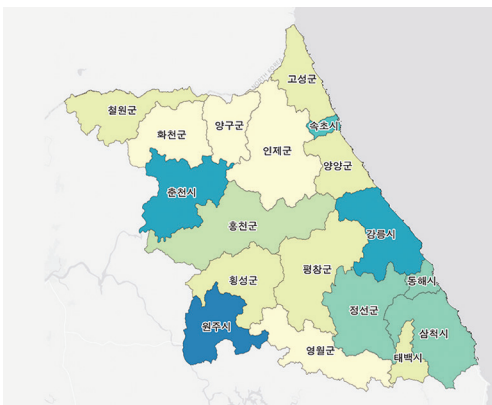
강원도 강도 범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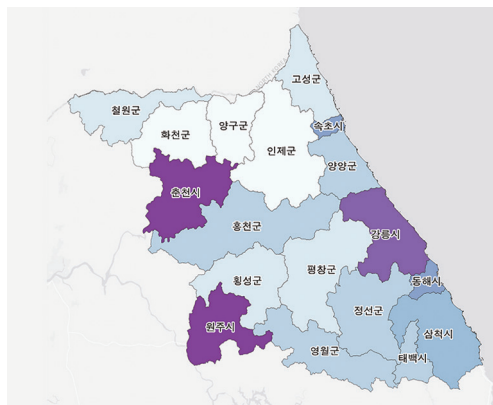
강원도 살인 범죄 발생



강원도 성폭력 범죄 발생



강원도 절도 범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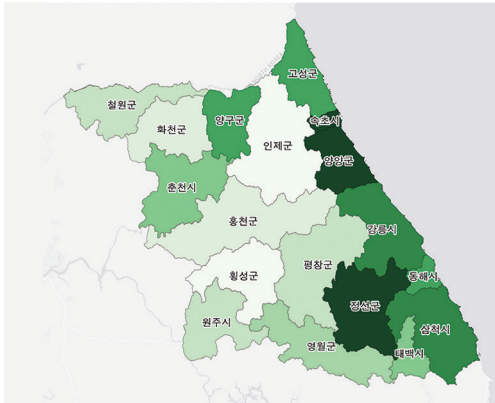


강원도 폭력 범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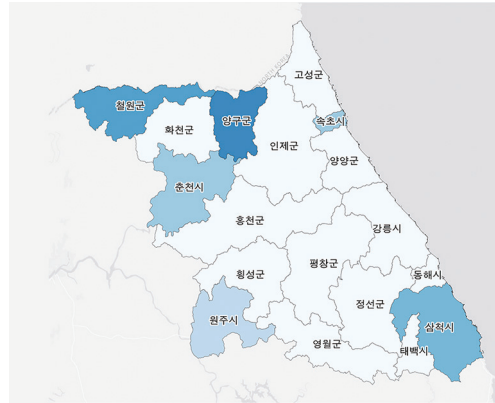
[그림 31] 5대 범죄 발생건수 지도(강원도)

출처: 경찰청 범죄통계(2023)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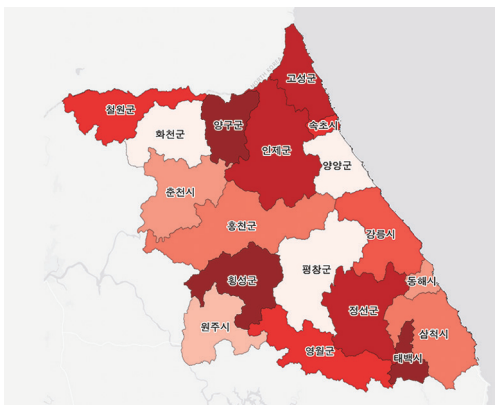
• 5대 범죄 인구 1만 명당 발생건수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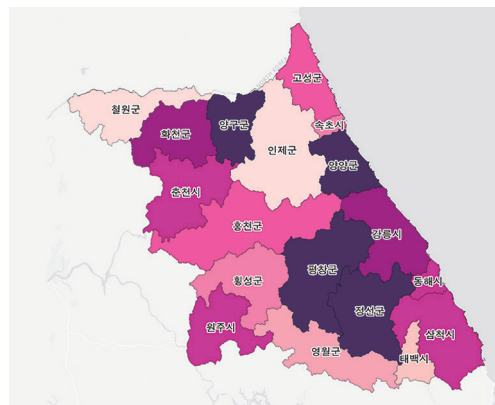
강원도 1만 명당 5대 범죄 발생 총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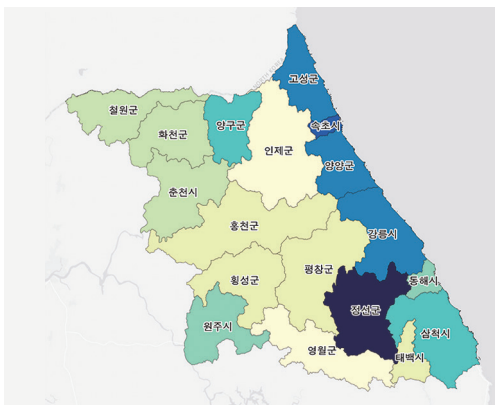
강원도 1만 명당 강도 범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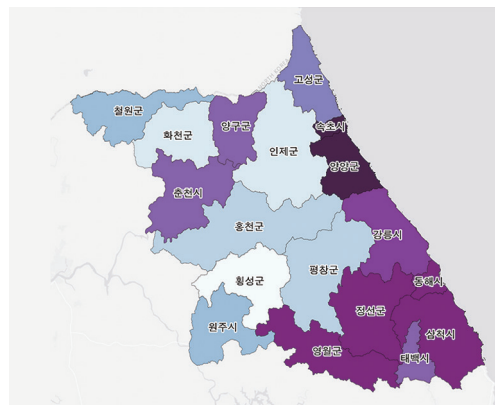
강원도 1만 명당 살인 범죄 발생



강원도 1만 명당 성폭력 범죄 발생



강원도 1만 명당 절도 범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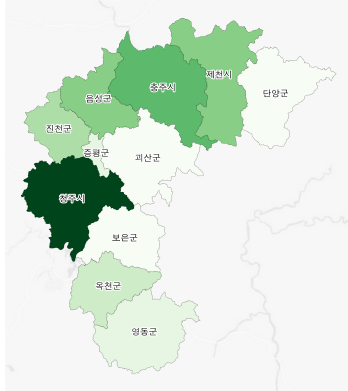
강원도 1만 명당 폭력 범죄 발생

[그림 32] 5대 범죄 인구 1만 명당 발생건수 지도(강원도)

출처: 경찰청 범죄통계(2023)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충청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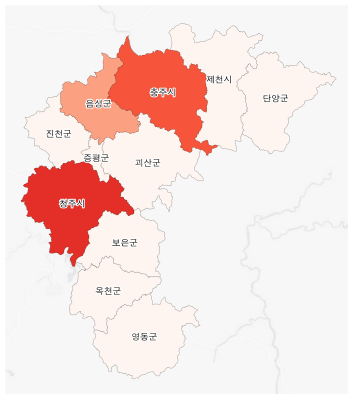
• 5대 범죄 발생건수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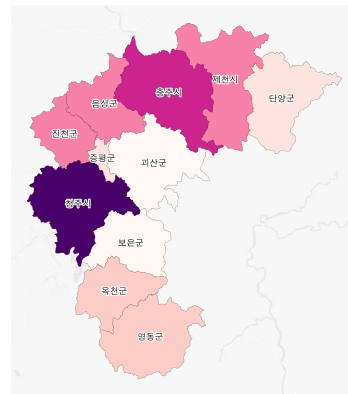
충청북도 5대 범죄 발생 총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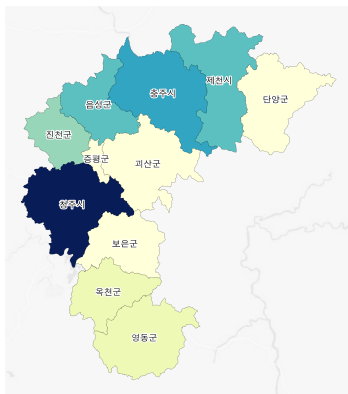
충청북도 강도 범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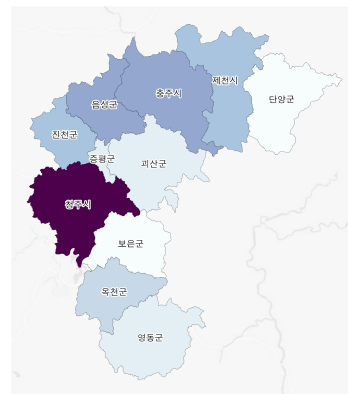
충청북도 살인 범죄 발생



충청북도 성폭력 범죄 발생



충청북도 절도 범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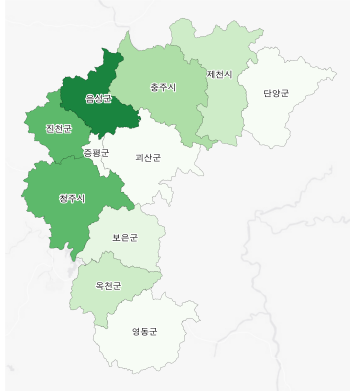


충청북도 폭력 범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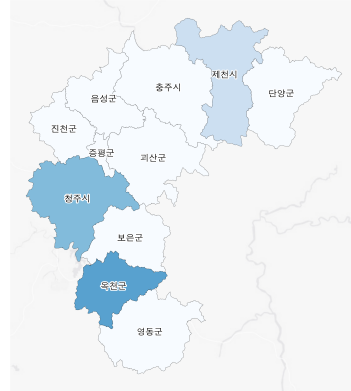
[그림 33] 5대 범죄 발생건수 지도(충청북도)

출처: 경찰청 범죄통계(2023)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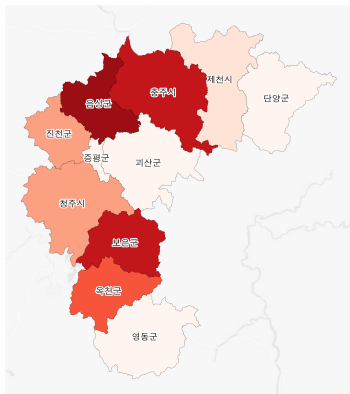
• 5대 범죄 인구 1만 명당 발생건수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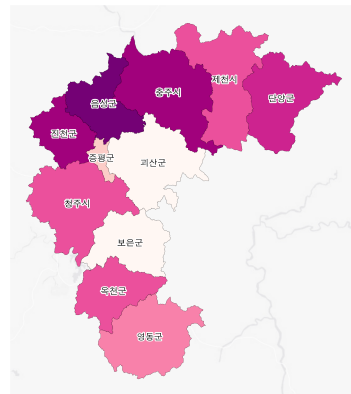
충청북도 1만 명당 5대 범죄 발생 총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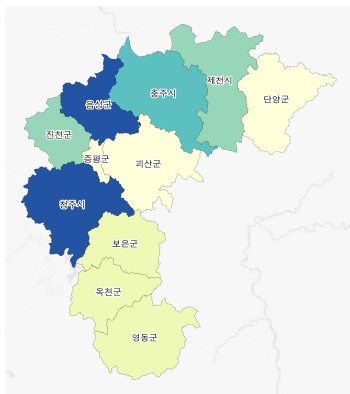
충청북도 1만 명당 강도 범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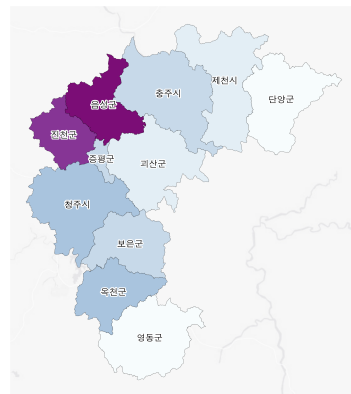
충청북도 1만 명당 살인 범죄 발생



충청북도 1만 명당 성폭력 범죄 발생



충청북도 1만 명당 절도 범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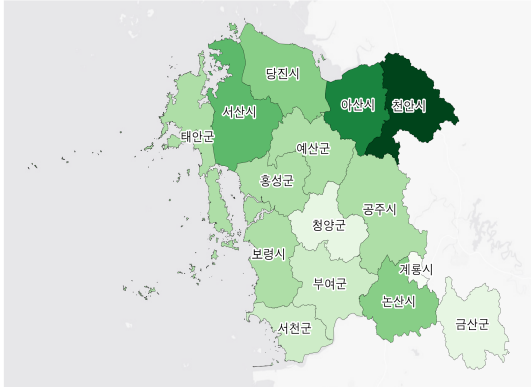
충청북도 1만 명당 폭력 범죄 발생

[그림 34] 5대 범죄 인구 1만 명당 발생건수 지도(충청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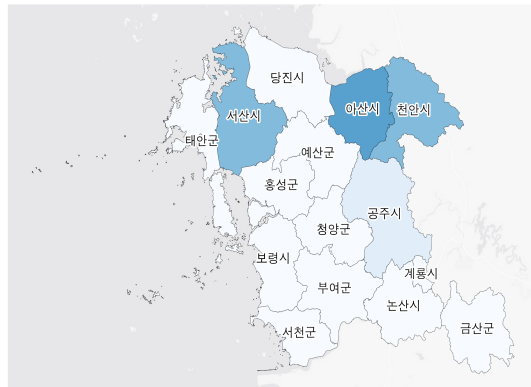
출처: 경찰청 범죄통계(2023)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충청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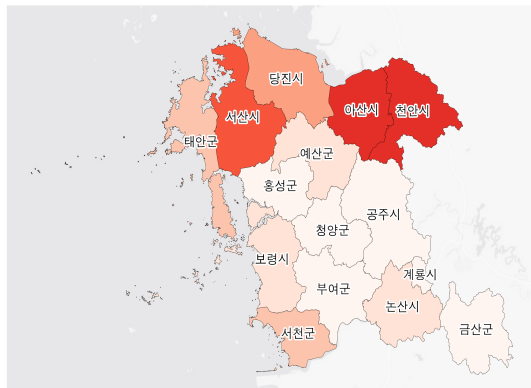
• 5대 범죄 발생건수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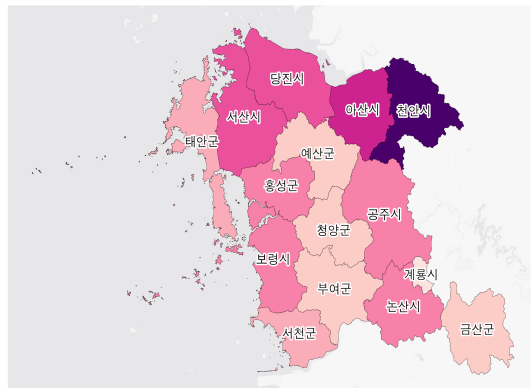
충청남도 5대 범죄 발생 총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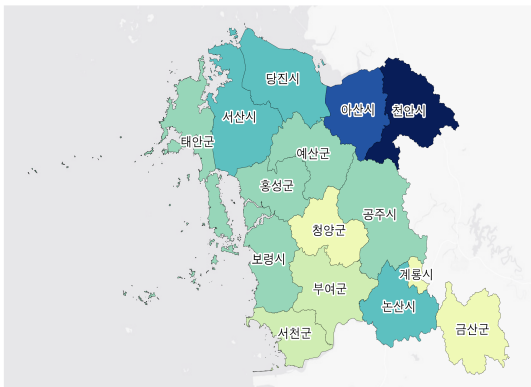
충청남도 강도 범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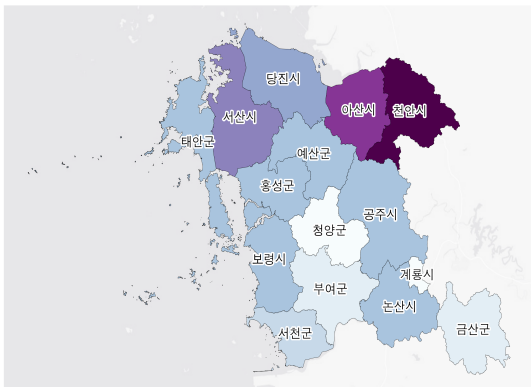
충청남도 살인 범죄 발생



충청남도 성폭력 범죄 발생



충청남도 절도 범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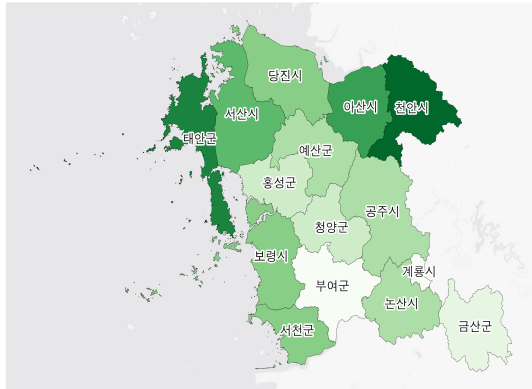


충청남도 폭력 범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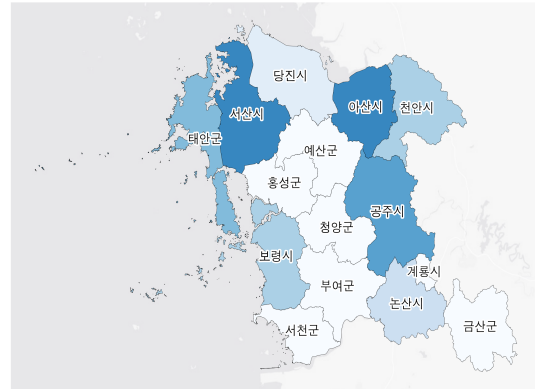
[그림 35] 5대 범죄 발생건수 지도(충청남도)

출처: 경찰청 범죄통계(2023)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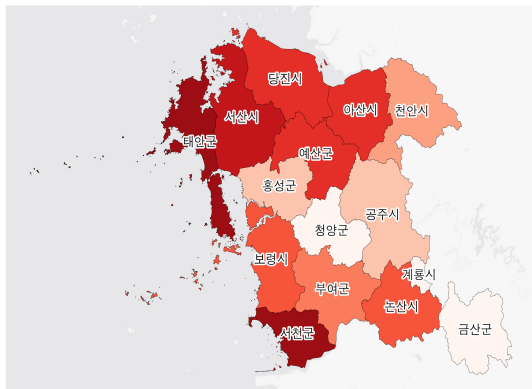
• 5대 범죄 인구 1만 명당 발생건수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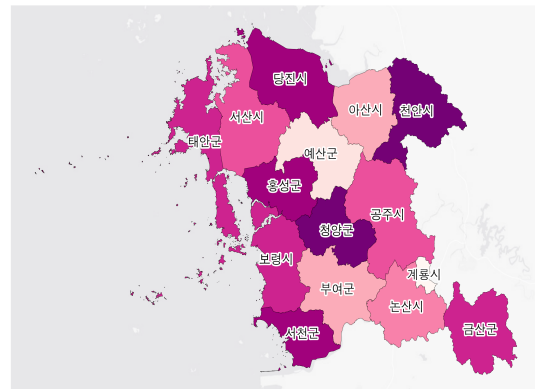
충청남도 1만 명당 5대 범죄 발생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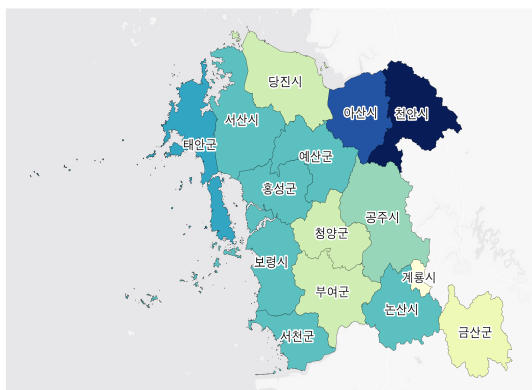
충청남도 1만 명당 강도 범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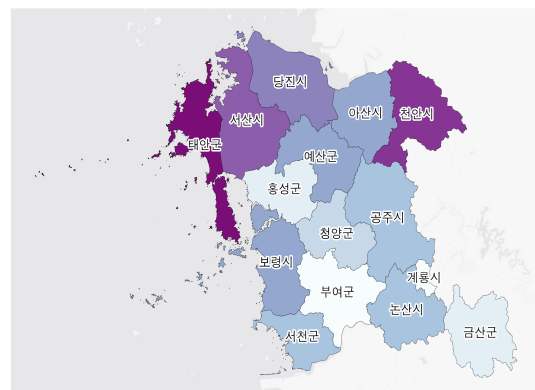
충청남도 1만 명당 살인 범죄 발생



충청남도 1만 명당 성폭력 범죄 발생



충청남도 1만 명당 절도 범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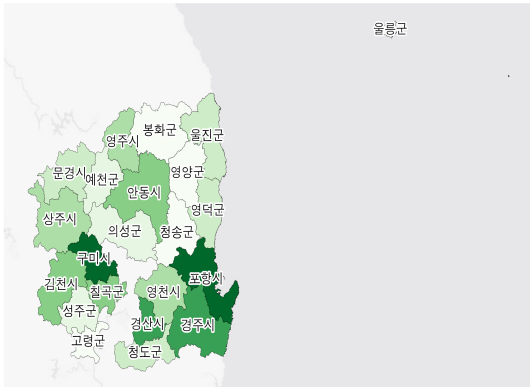
충청남도 1만 명당 폭력 범죄 발생

[그림 36] 5대 범죄 인구 1만 명당 발생건수 지도(충청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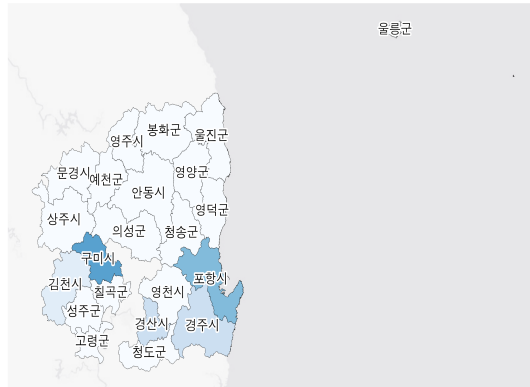
출처: 경찰청 범죄통계(2023)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경상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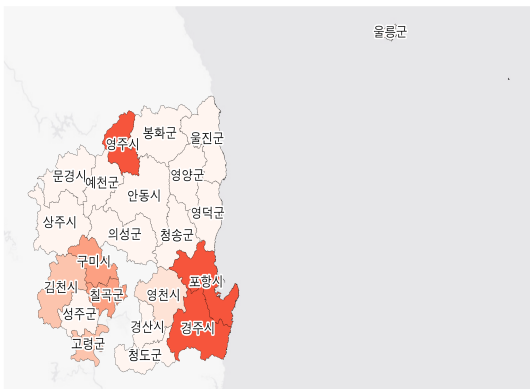
• 5대 범죄 발생건수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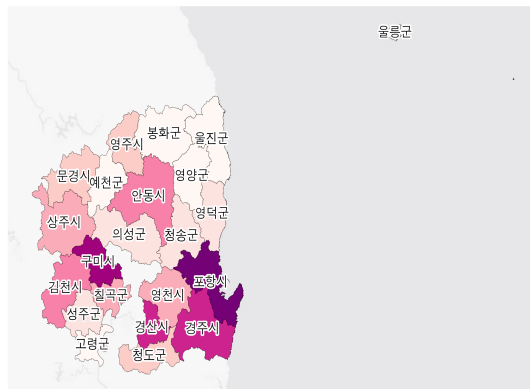
경상북도 5대 범죄 발생 총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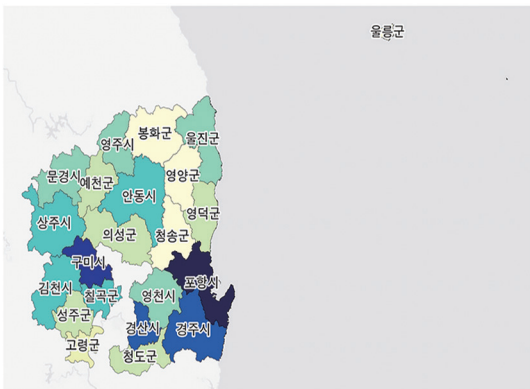
경상북도 강도 범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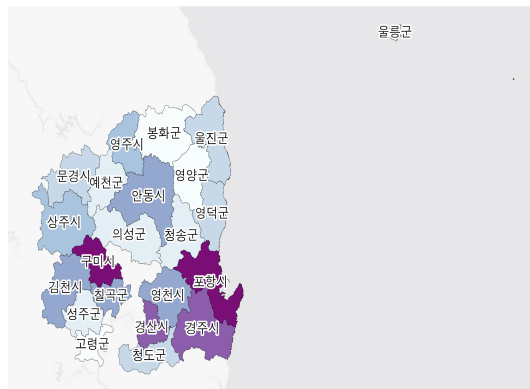
경상북도 살인 범죄 발생



경상북도 성폭력 범죄 발생



경상북도 절도 범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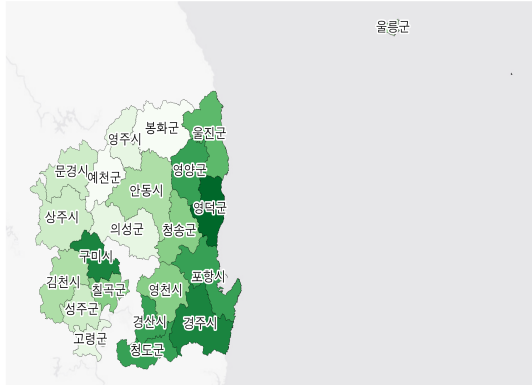


경상북도 폭력 범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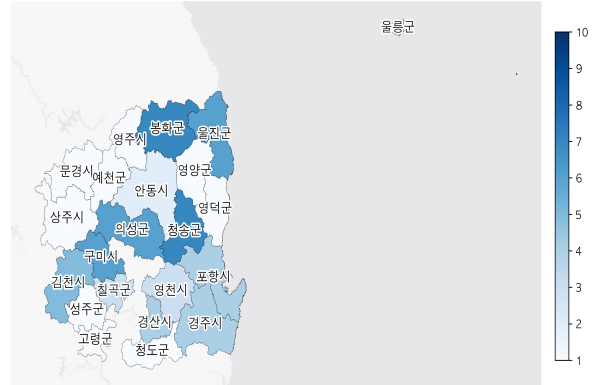
[그림 37] 5대 범죄 발생건수 지도(경상북도)

출처: 경찰청 범죄통계(2023)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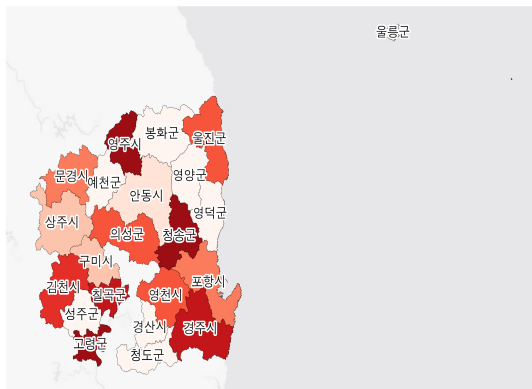
• 5대 범죄 인구 1만 명당 발생건수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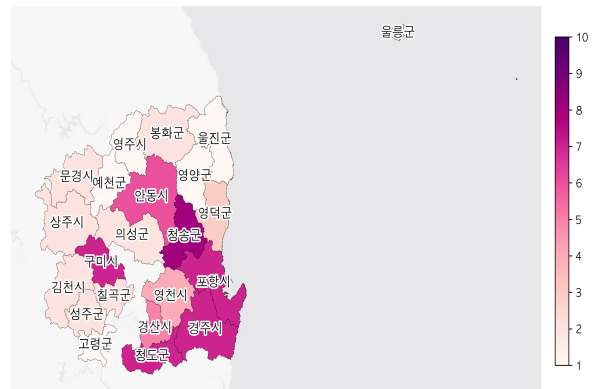
경상북도 1만 명당 5대 범죄 발생 총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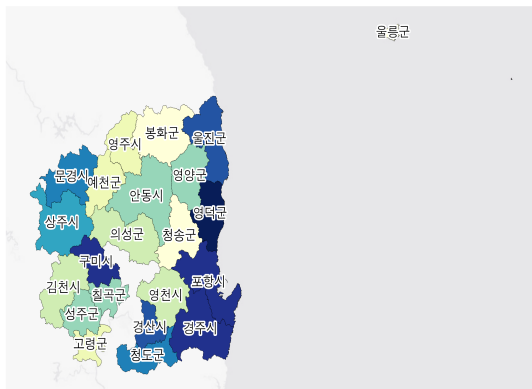
경상북도 1만 명당 강도 범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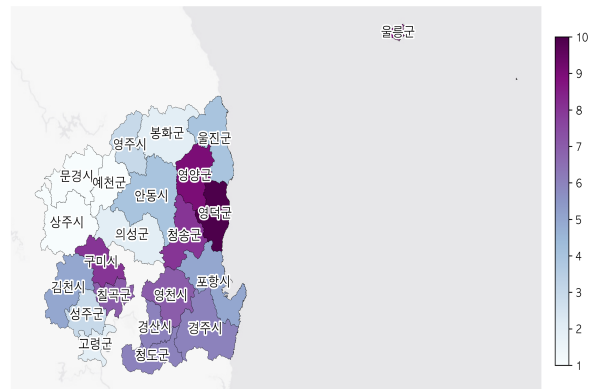
경상북도 1만 명당 살인 범죄 발생



경상북도 1만 명당 성폭력 범죄 발생



경상북도 1만 명당 절도 범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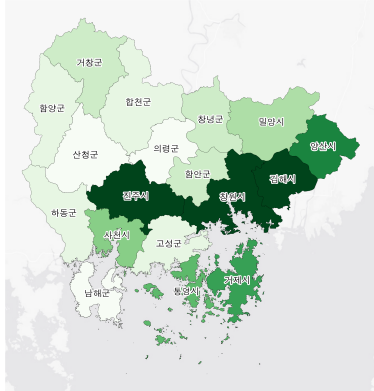
경상북도 1만 명당 폭력 범죄 발생

[그림 38] 5대 범죄 인구 1만 명당 발생건수 지도(경상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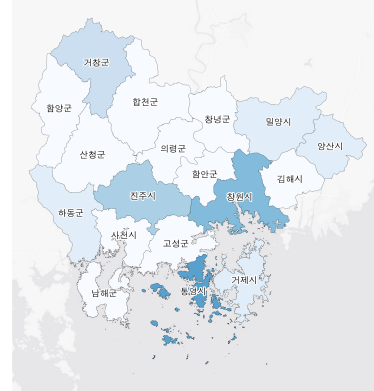
출처: 경찰청 범죄통계(2023)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경상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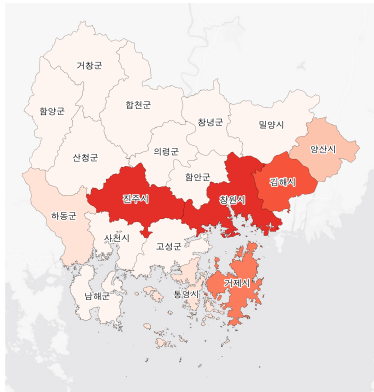
• 5대 범죄 발생건수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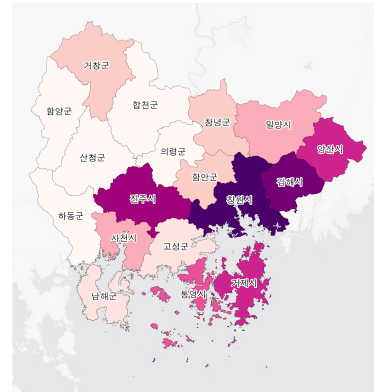
경상남도 5대 범죄 발생 총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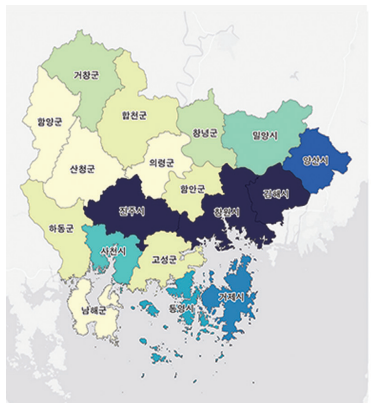
경상남도 강도 범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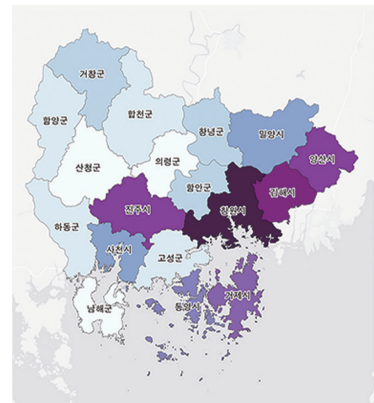
경상남도 살인 범죄 발생



경상남도 성폭력 범죄 발생



경상남도 절도 범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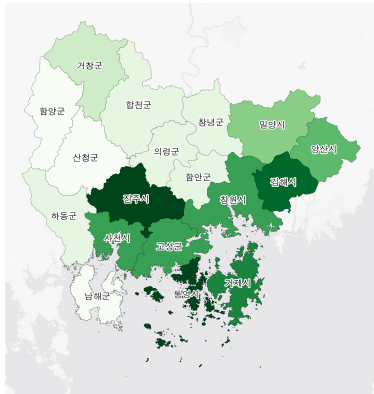


경상남도 폭력 범죄 발생

[그림 39] 5대 범죄 발생건수 지도(경상남도)

출처: 경찰청 범죄통계(2023)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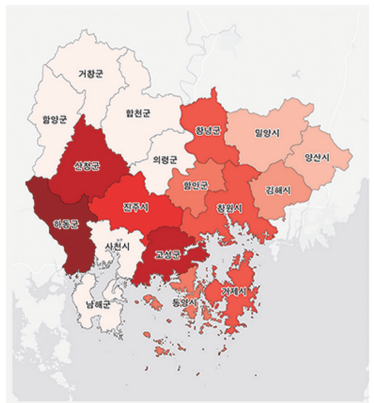
• 5대 범죄 인구 1만 명당 발생건수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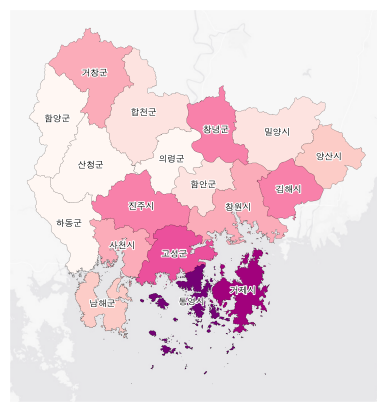
경상남도 1만 명당 5대 범죄 발생 총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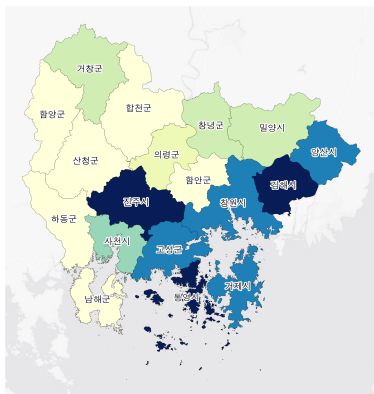
경상남도 1만 명당 강도 범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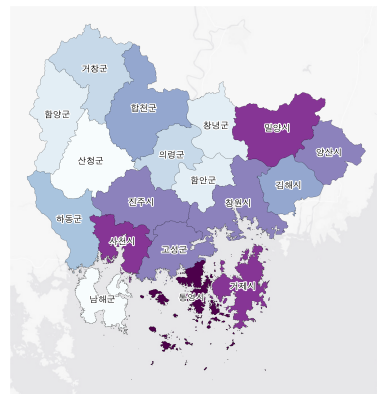
경상남도 1만 명당 살인 범죄 발생



경상남도 1만 명당 성폭력 범죄 발생



경상남도 1만 명당 절도 범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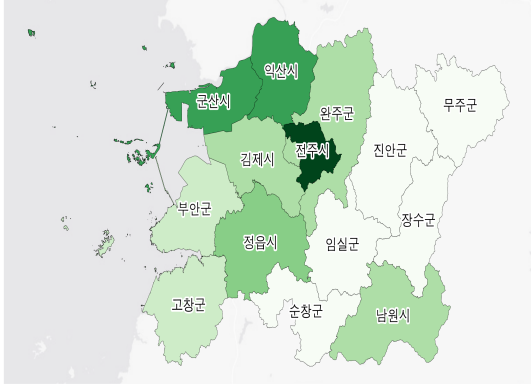
경상남도 1만 명당 폭력 범죄 발생

[그림 40] 5대 범죄 인구 1만 명당 발생건수 지도(경상남도)

출처: 경찰청 범죄통계(2023)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전라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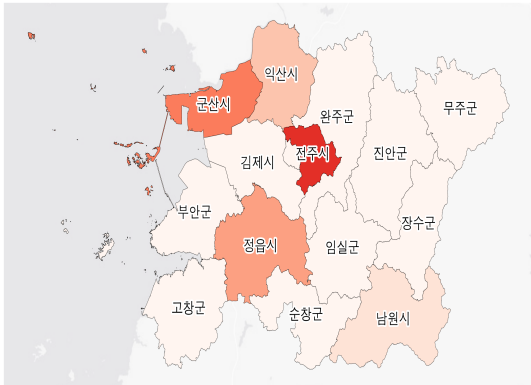
• 5대 범죄 발생건수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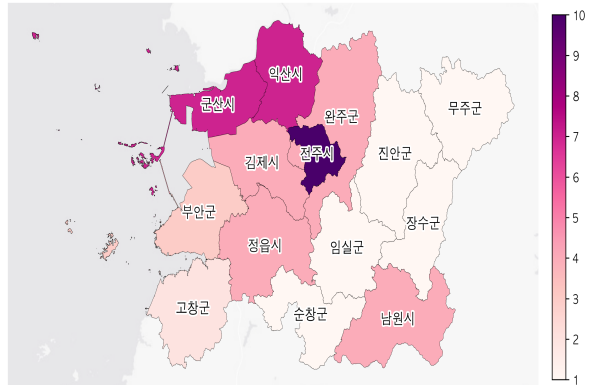
전라북도 5대 범죄 발생 총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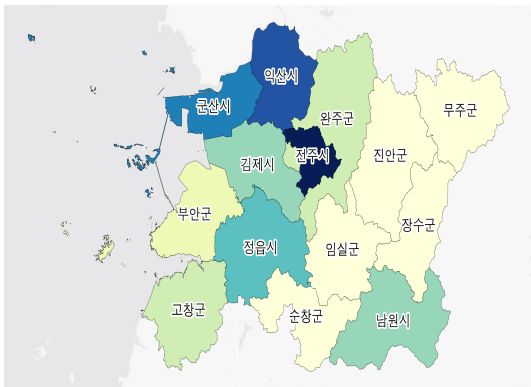
전라북도 강도 범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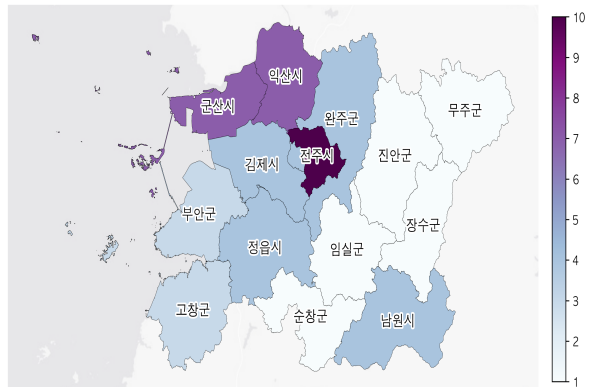
전라북도 살인 범죄 발생



전라북도 성폭력 범죄 발생



전라북도 절도 범죄 발생



전라북도 폭력 범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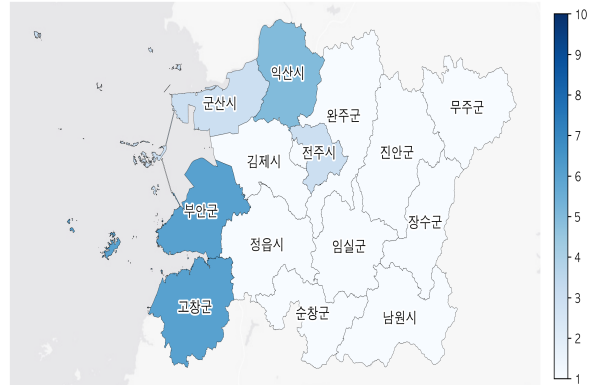
[그림 41] 5대 범죄 발생건수 지도(전라북도)

출처: 경찰청 범죄통계(2023)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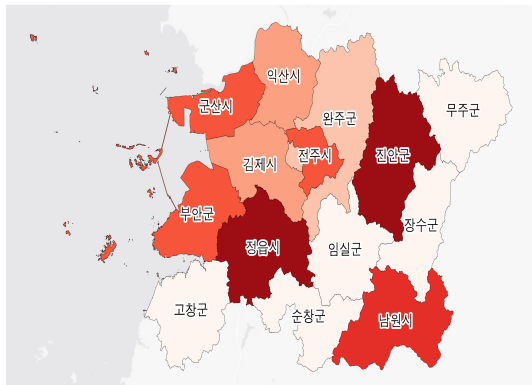
• 5대 범죄 인구 1만 명당 발생건수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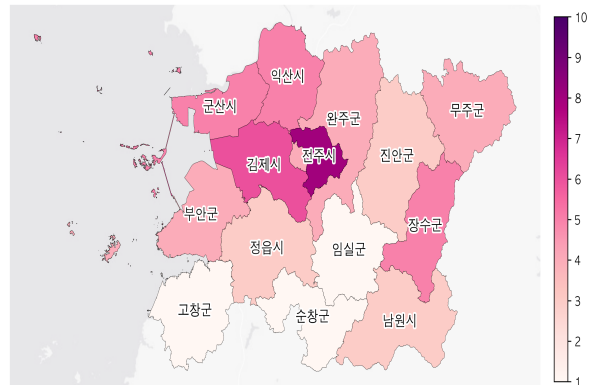
전라북도 1만 명당 5대 범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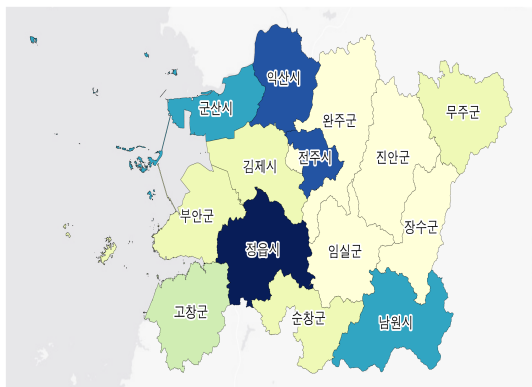
전라북도 1만 명당 강도 범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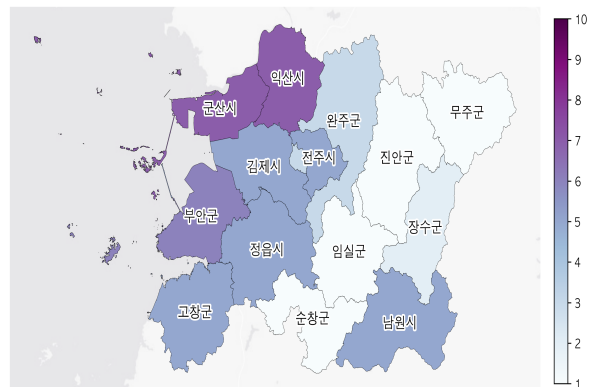
전라북도 1만 명당 살인 범죄 발생



전라북도 1만 명당 성폭력 범죄 발생



전라북도 1만 명당 절도 범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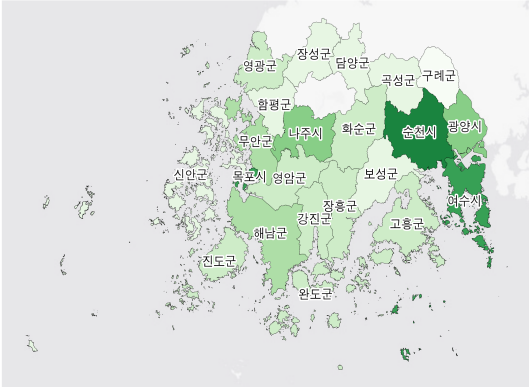
전라북도 1만 명당 폭력 범죄 발생

[그림 42] 5대 범죄 인구 1만 명당 발생건수 지도(전라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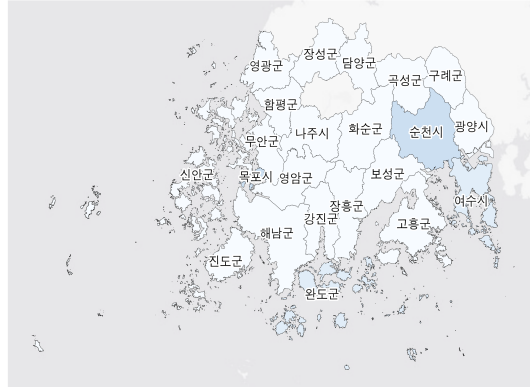
출처: 경찰청 범죄통계(2023)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전라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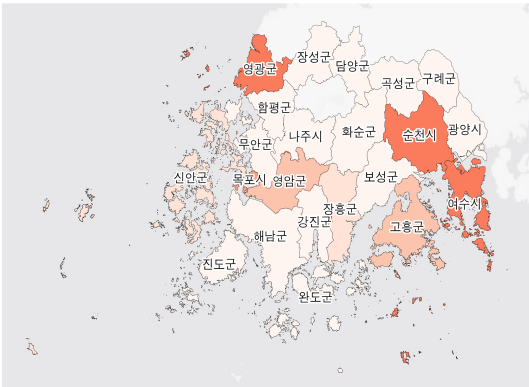
• 5대 범죄 발생건수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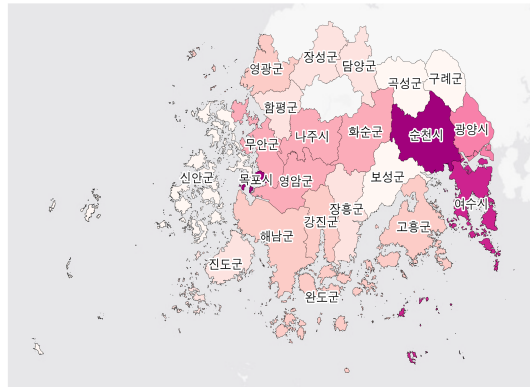
전라남도 5대 범죄 발생 총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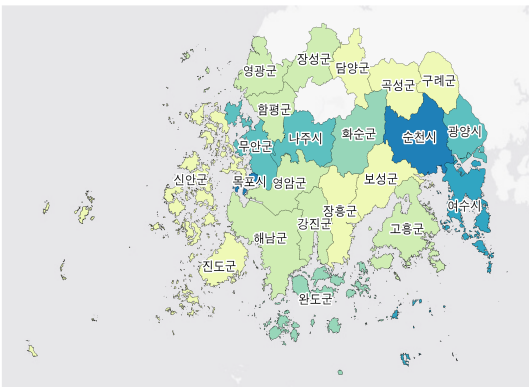
전라남도 강도 범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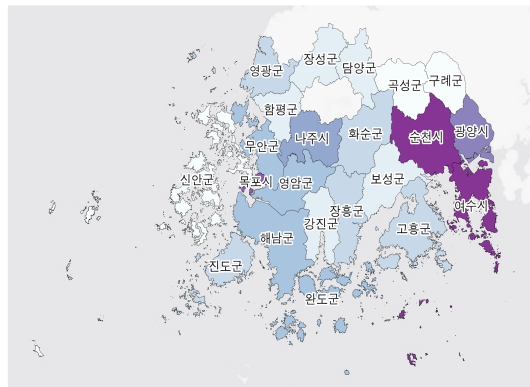
전라남도 살인 범죄 발생



전라남도 성폭력 범죄 발생



전라남도 절도 범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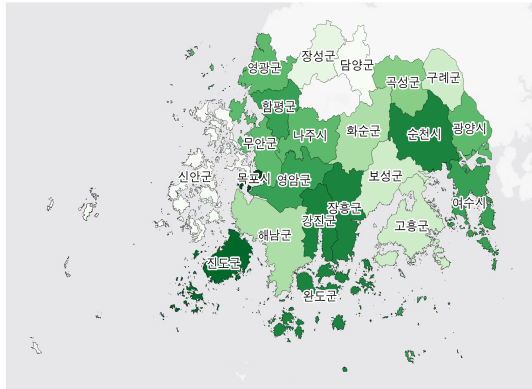


전라남도 폭력 범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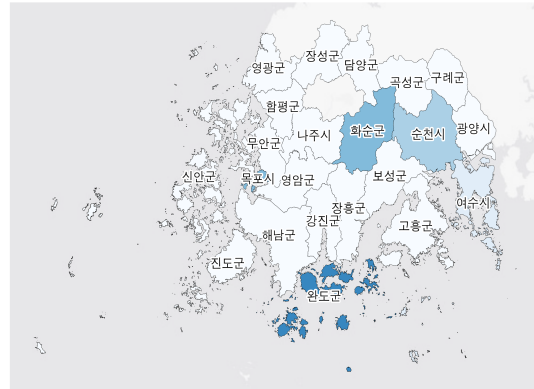
[그림 43] 5대 범죄 발생건수 지도(전라남도)

출처: 경찰청 범죄통계(2023)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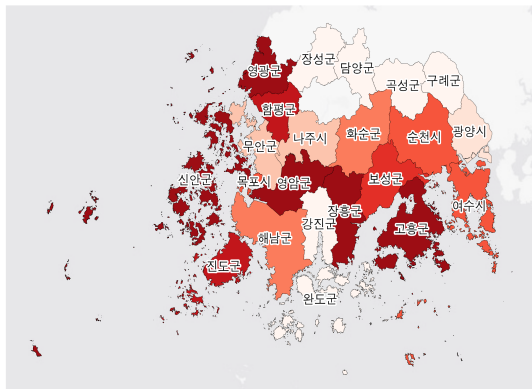
• 5대 범죄 인구 1만 명당 발생건수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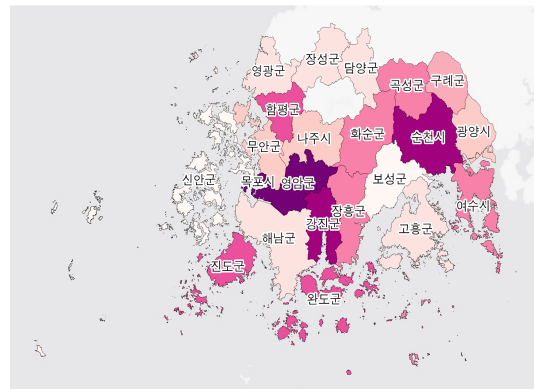
전라남도 1만 명당 5대 범죄 발생 총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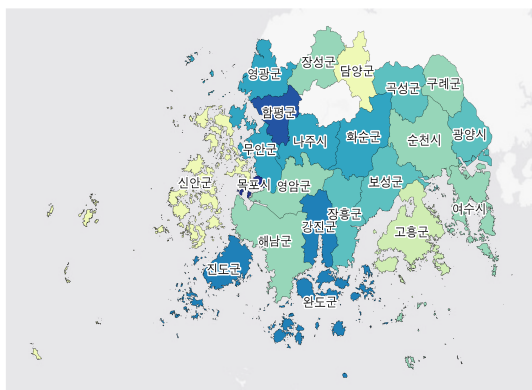
전라남도 1만 명당 강도 범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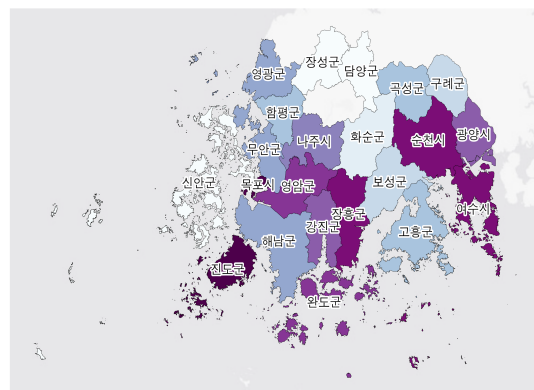
전라남도 1만 명당 살인 범죄 발생



전라남도 1만 명당 성폭력 범죄 발생



전라남도 1만 명당 절도 범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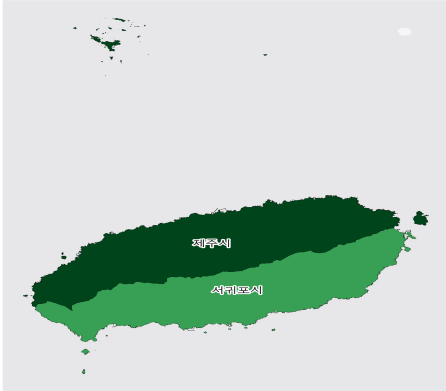
전라남도 1만 명당 폭력 범죄 발생

[그림 44] 5대 범죄 인구 1만 명당 발생건수 지도(전라남도)

출처: 경찰청 범죄통계(2023)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제주도

• 5대 범죄 발생건수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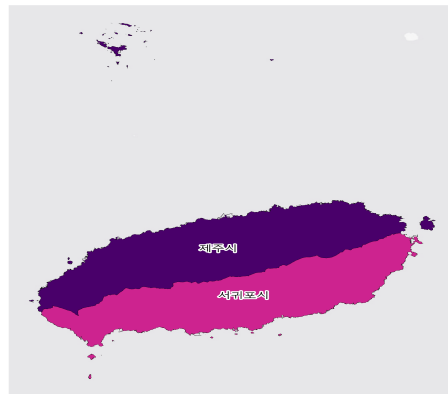
제주도 5대 범죄 발생 총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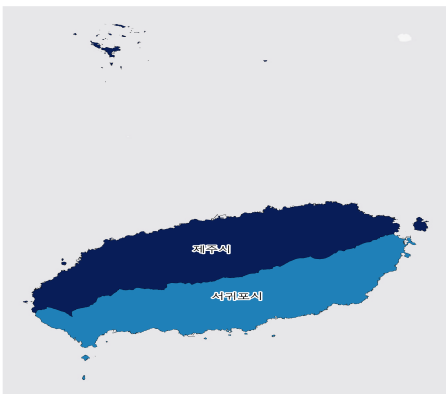
제주도 강도 범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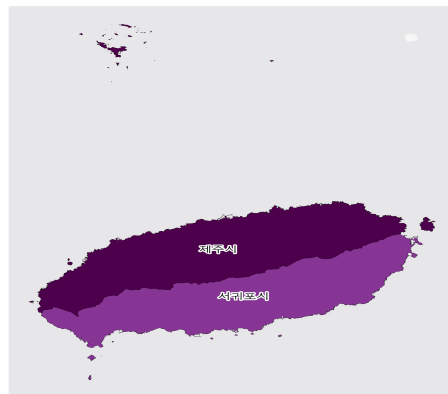
제주도 살인 범죄 발생



제주도 성폭력 범죄 발생



제주도 절도 범죄 발생



제주도 폭력 범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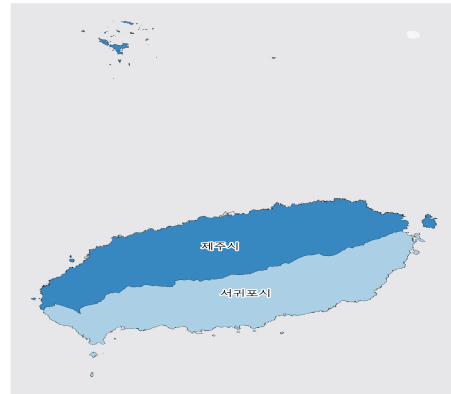
[그림 45] 5대 범죄 발생건수 지도(제주도)

출처: 경찰청 범죄통계(2023)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 5대 범죄 인구 1만 명당 발생건수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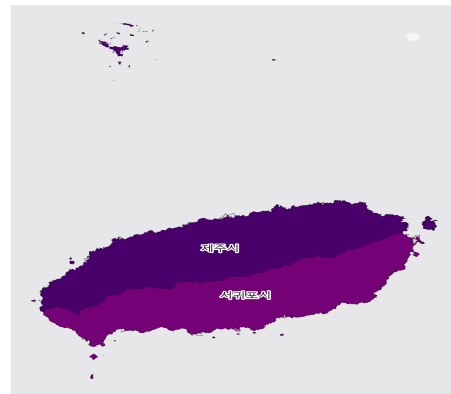
제주도 1만 명당 5대 범죄 발생 총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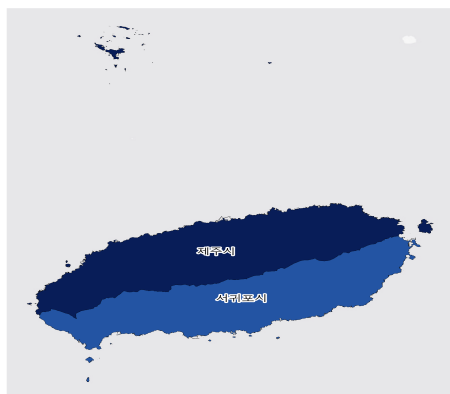
제주도 1만 명당 강도 범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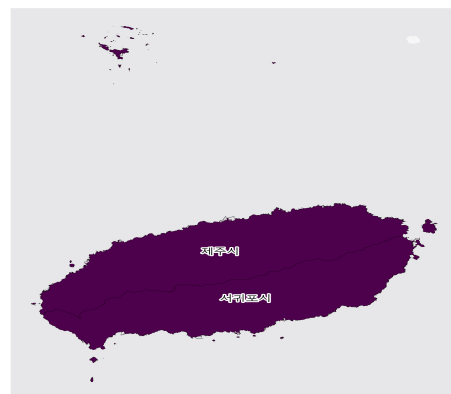
제주도 1만 명당 살인 범죄 발생



제주도 1만 명당 성폭력 범죄 발생



제주도 1만 명당 절도 범죄 발생



제주도 1만 명당 폭력 범죄 발생

[그림 46] 5대 범죄 인구 1만 명당 발생건수 지도(제주도)

출처: 경찰청 범죄통계(2023)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2.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2023)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2023)는 경찰청 통계와 마찬가지로 시·군·구 행정구역 단위의 세부 범죄 최종별 현황을 제공하여 5대 강력 범죄를 재집계할 수 있다. 다만 제공 범위에 차이가 있어 전국 모든 시·군·구 자료를 포함하는 경찰청 통계와 달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소속 시·군·구와 인구 10만 명 이상 일반시에 한해 통계를 제공한다.

1) 지방자치단체 5대 범죄 발생 통계(발생건수)

[표 3]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2023) 지방자치단체 5대 범죄 발생 통계

(단위: 건)

광역자치체	기초자치체	강도	살인	성폭력	절도	폭력	총합
서울	합계	599	801	38,698	189,942	235,452	465,492
	소계	131	155	9,422	37,086	43,115	89,909
	종로	5	4	344	1,174	1,551	3,078
	중구	6	5	304	1,526	1,613	3,454
	용산	3	3	360	987	1,798	3,151
	성동	3	2	237	891	1,003	2,136
	광진	5	2	361	1,619	1,556	3,543
	동대문	4	5	256	1,280	1,517	3,062
	종랑	2	6	263	1,404	1,754	3,429
	성북	1	1	279	983	1,278	2,542
	강북	1	7	240	919	1,427	2,594
	도봉	4	7	163	1,005	838	2,017
	노원	3	7	304	1,631	1,766	3,711
	은평	3	7	284	1,610	1,711	3,615
	서대문	0	5	247	1,190	1,020	2,462
	마포	4	3	712	1,479	1,902	4,100
	양천	2	5	216	1,409	1,482	3,114
	강서	6	1	511	1,790	2,160	4,468
	구로	7	14	319	1,636	1,983	3,959
	금천	5	4	207	983	1,122	2,321
	영등포	9	12	473	1,858	2,229	4,581
	동작	3	4	335	1,189	1,267	2,798
	관악	10	17	572	2,003	2,382	4,984
	서초	9	7	612	1,944	2,153	4,725
	강남	22	15	1,062	2,484	3,556	7,139
	송파	9	8	503	2,415	2,489	5,424
	강동	5	4	258	1,677	1,558	3,502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강도	살인	성폭력	절도	폭력	총합
부산	소계	28	53	2,683	15,074	16,496	34,334
	중구	2	2	58	657	698	1,417
	서구	3	3	56	714	497	1,273
	동구	4	4	78	588	758	1,432
	영도	1	5	63	468	568	1,105
	부산진	6	6	571	2,590	2,673	5,846
	동래	0	1	187	1,331	1,247	2,766
	남구	1	1	203	683	995	1,883
	북구	0	6	149	1,009	953	2,117
	해운대	4	3	264	1,536	1,418	3,225
	사하	0	2	169	939	1,273	2,383
	금정	0	4	132	880	839	1,855
	강서	0	2	109	475	642	1,228
	연제	2	2	178	930	1,175	2,287
	수영	1	3	219	668	910	1,801
	사상	3	6	146	952	1,084	2,191
	기장군	1	3	101	654	766	1,525
대구	소계	28	24	1,706	9,877	11,094	22,729
	중구	1	1	299	1,235	1,151	2,687
	동구	3	5	235	1,543	1,768	3,554
	서구	3	1	112	867	1,084	2,067
	남구	5	4	103	656	770	1,538
	북구	3	4	256	1,641	1,688	3,592
	수성	7	4	226	1,142	1,609	2,988
	달서	5	5	375	2,064	2,135	4,584
	달성군	1	0	97	713	861	1,672
	군위군	0	0	3	16	28	47
	인천	소계	61	43	2,511	9,552	14,421
중구		1	2	166	679	1,011	1,859
동구		2	0	26	180	251	459
서구		3	5	490	1,297	2,699	4,494
미추홀		11	7	400	1,611	2,264	4,293
연수		5	6	263	1,243	1,440	2,957
남동		14	14	431	1,401	2,204	4,064
부평		17	4	456	2,209	2,845	5,531
계양		7	3	232	734	1,286	2,262
강화군		1	2	36	173	332	544
옹진군		0	0	11	25	89	125

공간으로 읽는 범죄 데이터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강도	살인	성폭력	절도	폭력	총합
광주	소계	21	24	1,110	6,018	6,473	13,646
	동구	2	4	120	668	696	1,490
	서구	7	2	318	1,171	1,677	3,175
	남구	3	3	107	708	771	1,592
	북구	6	10	288	1,745	1,654	3,703
	광산	3	5	277	1,726	1,675	3,686
대전	소계	22	21	1,158	5,992	7,556	14,749
	중구	1	6	192	1,059	1,338	2,596
	동구	8	5	176	1,175	1,406	2,770
	서구	8	2	410	1,959	2,450	4,829
	유성	2	4	279	1,257	1,572	3,114
	대덕	3	4	101	542	790	1,440
울산	소계	8	22	726	3,264	4,954	8,974
	중구	1	6	81	587	780	1,455
	동구	2	3	105	479	772	1,361
	남구	2	8	332	1,021	1,726	3,089
	북구	1	2	79	562	780	1,424
	울주군	2	3	129	615	896	1,645
일반시	부천	6	6	664	3,680	4,015	8,371
	수원	16	16	1,056	4,957	6,050	12,095
	성남	10	8	684	3,475	4,043	8,220
	전주	6	13	538	2,579	2,655	5,791
	안양	3	6	385	1,722	2,340	4,456
	청주	13	15	571	3,382	3,374	7,355
	창원	6	22	546	3,665	4,461	8,700
	광명	1	4	180	975	1,185	2,345
	포항	5	7	324	2,201	2,015	4,552
	안산	7	12	628	2,657	3,838	7,142
	진주	4	8	204	2,925	1,547	4,688
	고양	13	13	659	2,791	3,751	7,227
	제주	15	3	490	2,520	3,654	6,682
	목포	4	4	179	1,019	1,351	2,557
	의정부	5	3	386	1,478	2,201	4,073
	익산	5	3	144	1,081	1,265	2,498
	군산	2	5	179	851	1,219	2,256
	구미	10	4	280	1,739	2,127	4,160
	천안	7	9	603	3,179	3,407	7,205
	여수	2	5	151	717	1,549	2,424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강도	살인	성폭력	절도	폭력	총합	
일반시	춘천	3	4	209	698	1,356	2,270	
	원주	3	3	251	984	1,404	2,645	
	평택	6	6	471	2,942	3,686	7,111	
	경주	3	7	139	1,130	1,076	2,355	
	김해	1	6	333	3,463	2,253	6,056	
	순천	3	5	217	787	1,616	2,628	
	군포	2	3	154	945	932	2,036	
	남양주	5	7	386	1,612	2,356	4,366	
	강릉	0	5	172	756	1,100	2,033	
	충주	0	6	167	638	752	1,563	
	안동	1	1	92	432	586	1,112	
	경산	3	1	180	1,069	1,220	2,473	
	아산	9	9	198	1,367	1,422	3,005	
	거제	2	5	159	871	1,201	2,238	
	김천	2	3	64	354	587	1,010	
	정읍	0	4	44	525	457	1,030	
	용인	5	13	518	2,881	3,413	6,830	
	시흥	8	4	319	1,970	2,992	5,293	
	파주	3	13	432	1,239	2,287	3,974	
	양산	2	3	194	1,231	1,545	2,975	
	이천	2	7	157	681	993	1,840	
	구리	0	0	143	536	695	1,374	
	서산	7	6	106	523	868	1,510	
	제천	1	1	73	376	442	893	
	논산	1	2	51	334	417	805	
	기타 도시		56	91	3,430	18,007	25,606	47,190
	도시이외		32	78	1,872	9,135	14,034	25,151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2023) 활용하여 연구진 재작성.



단위공간 주요 범죄 발생 현황 및 공간 취약성 분석

공간으로 읽는 범죄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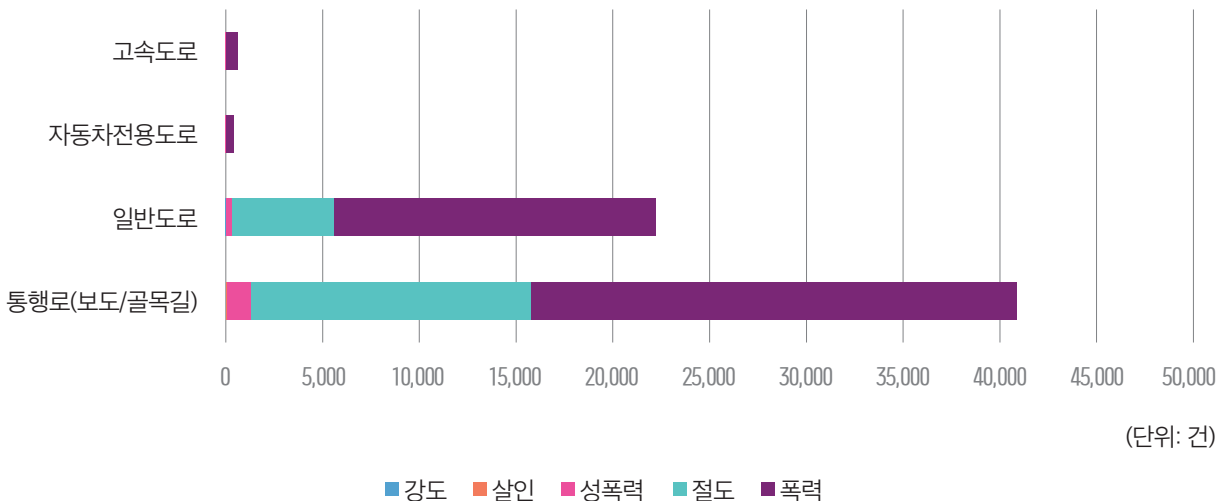
PART 4

단위공간 주요 범죄 발생 현황 및 공간 취약성 분석

1. 가로 단위 5대 범죄 발생 분석

1) 경찰청 범죄통계(2023)

경찰청 범죄통계(2023)에 기반한 가로 단위의 범죄 발생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폭력(48,721건)과 절도(22,610건)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동과 통행이 빈번한 공간에서 일상적 범죄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통행로(보도/골목길)에서 총 46,671건이 발생하여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절도와 폭력뿐 아니라 성폭력(1,415건) 발생도 가장 많아 생활권 내 보행 공간이 주요 범죄 취약지로 나타났다. 일반도로에서도 25,387건이 발생하여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차량 이동이 많은 공간에서 폭력(18,980건)과 절도(6,036건)가 집중되었다. 반면 자동차전용도로(472건)와 고속도로(701건)에서는 전체 발생건수가 현저히 낮다.



[그림 47] 경찰청 범죄통계(2023) 가로 단위 5대 범죄 발생건수 현황

출처: 경찰청 범죄통계(2023) 활용하여 연구진 재작성.

[표 4] 가로 단위 5대 범죄 발생 현황

(단위: 건)

구분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일반도로	통행로(보도/골목길)	총합
강도	1	1	18	42	62
살인	1	2	20	48	71
성폭력	15	4	333	1,415	1,767
절도	32	19	6,036	16,523	22,610
폭력	652	446	18,980	28,643	48,721
총합	701	472	25,387	46,671	73,231

출처: 경찰청 범죄통계(2023) 활용하여 연구진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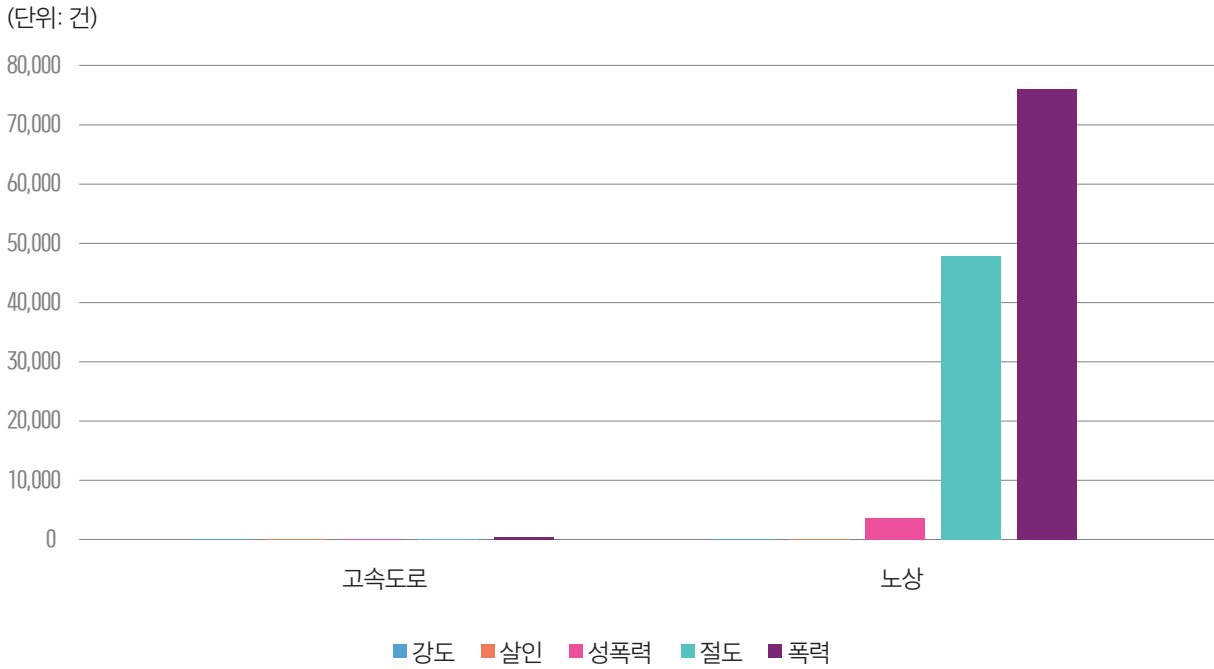
2)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2023)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2023)에 기반한 가로 단위의 범죄 발생 분석 결과, 가로에서 발생한 5대 범죄(강도, 살인, 성폭력, 절도, 폭력)는 총 12만 8천여 건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대부분은 일반도로인 노상에서 발생했으며, 고속도로에서의 범죄는 극히 일부에 그친다.

노상에서는 전체의 99% 이상인 약 12만 7천 8백 건이 발생하였으며, 폭력(7만 6천 건)과 절도(4만 7천 8백 건)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성폭력 사건도 3,600여 건에 달해, 도심지나 생활권 주변의 노상에서 다양한 유형의 범죄가 빈번히 발생함을 보여준다. 반면, 살인(156건)과 강도(142건)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다른 공간 유형에 비해 노상에서의 강력범죄 위험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에서는 총 621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폭력이 45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절도 146건, 성폭력 21건이 뒤를 이었으며, 살인과 강도는 각각 1건씩 보고되었다. 이는 고속도로가 접근성이 낮고 폐쇄적인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간 분쟁이나 운행 중 충돌 등으로 인한 폭력 사건이 주로 발생함을 시사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가로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주로 노상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특히 폭력과 절도 사건의 비중이 매우 높다. 이는 일상생활 동선상 노출 빈도가 높은 공공장소에서 범죄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가로환경 개선, 방범시설 확충, 보행자 안전 중심의 도시 설계 등 예방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림 48]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2023) 가로 단위 5대 범죄 현황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2023) 활용하여 연구진 재작성.

[표 5]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2023) 가로 단위 5대 범죄 현황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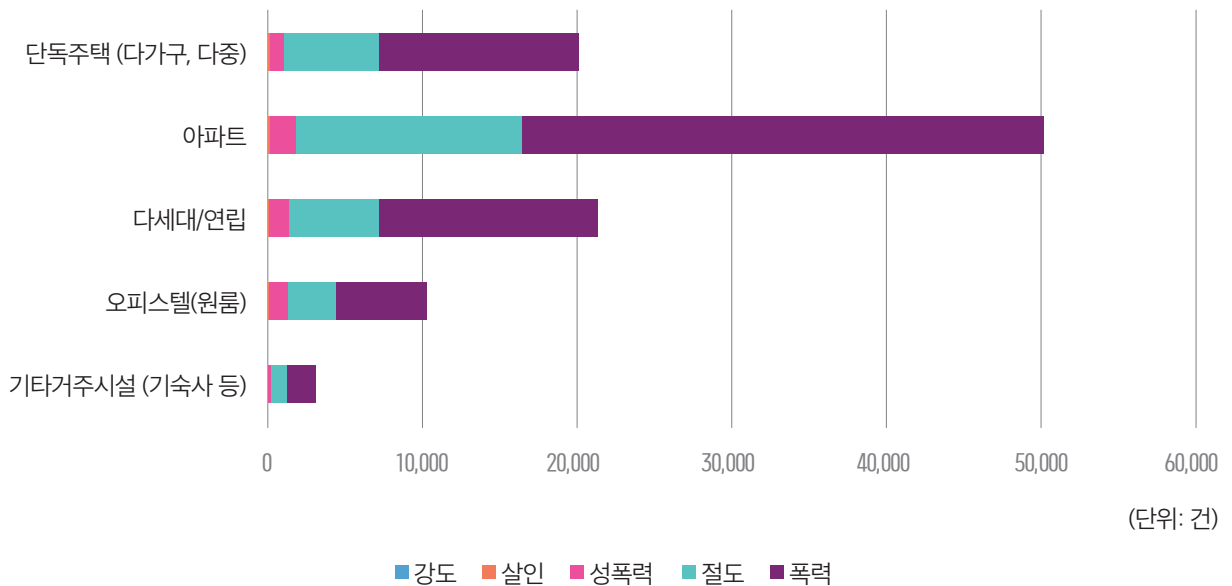
구분	고속도로	노상
강도	1	142
살인	1	156
성폭력	21	3,658
절도	146	47,838
폭력	452	76,007
총합	621	127,801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2023) 활용하여 연구진 재작성.

2. 주거건축물 단위 5대 범죄 발생 분석

1) 경찰청 범죄통계(2023)

경찰청 범죄통계(2023)에 기반한 주거건축물 단위 5대 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아파트에서의 범죄 발생이 전체 중 가장 많아 약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그 뒤를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주택이 잇는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과 절도 비중이 모든 주거유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폭력은 특히 오피스텔과 연립·다세대주택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 49] 경찰청 범죄통계(2023) 주거건축물 단위 5대 범죄 발생 현황

출처: 경찰청 범죄통계(2023) 활용하여 연구진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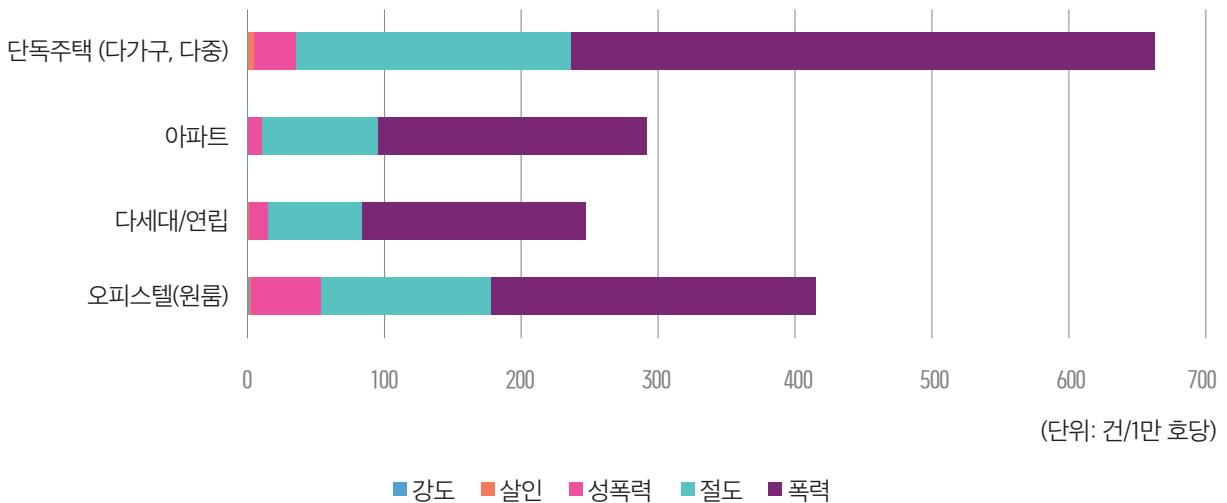
[표 6] 경찰청 범죄통계(2023) 주거건축물 단위 5대 범죄 발생 현황

(단위: 건)

구분	단독주택 (다가구, 다중)	아파트	다세대/연립	오피스텔(원룸)	기타거주시설 (기숙사 등)
강도	36	40	29	42	9
살인	109	133	83	35	19
성폭력	940	1,671	1,247	1,257	204
절도	6,109	14,565	5,884	3,078	1,023
폭력	12,929	33,749	14,123	5,879	1,848
총합	20,123	50,158	21,366	10,291	3,103

출처: 경찰청 범죄통계(2023) 활용하여 연구진 재작성.

범죄 발생건수 자체는 아파트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이를 주거용 건축물 유형별로 전체 호수(통계청 2025)와 나누어 1만 호당 범죄 발생 빈도로 분석한 결과 단독주택과 오피스텔의 빈도가 높고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보였다. 절도 범죄 발생건수를 보면 단독주택은 타 주택유형 대비 2배 가까운 1만 호당 발생 빈도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 오피스텔의 발생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오피스텔이 1인 가구 주거 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외부 활동이 많은 계층이 거주하며 대부분 임차로 주거하여 익명성이 높고 주택 시설의 공동체 의식이 부재하다는 특징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성폭력 범죄에서는 주택 유형 중 1만 호당 범죄 발생건수가 가장 높아 여성 및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취약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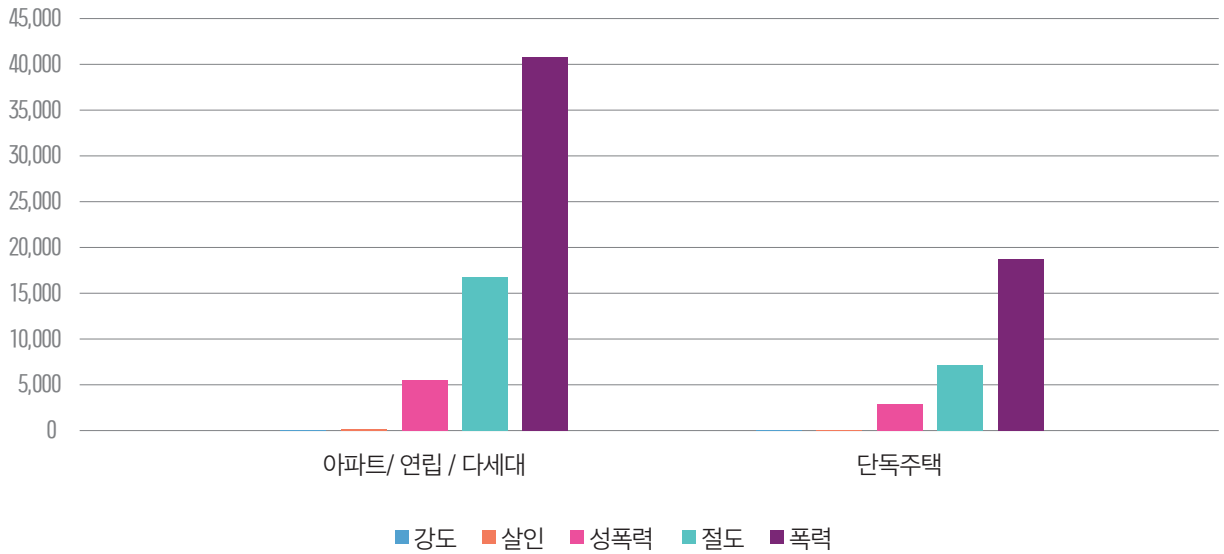
[그림 50] 경찰청 범죄통계(2023) 주거건축물 단위 1만 호당 5대 범죄 발생 현황

출처: 경찰청 범죄통계(2023)와 통계청(2025) 활용하여 연구진 재작성.

2)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2023)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2023)에 기반한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5대 범죄 건수는 총 63,491건으로, 단독주택(29,012건) 대비 약 2.2배 많았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두 주거 유형 모두 폭력 범죄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아파트·연립·다세대의 폭력 사건은 40,835건, 단독주택은 18,745건이었다. 다음으로 절도 범죄가 각각 16,810건, 7,211건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강도와 살인은 전체 대비 미미한 수준(각 0.1~0.3%)이었으며, 성폭력 사건은 아파트·연립·다세대에서 약 5,544건, 단독주택에서 2,884건으로 나타났다.

(단위: 건)



[그림 51]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2023) 주거 건축물 단위 5대 범죄 발생건수 현황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2023) 활용하여 연구진 재작성.

[표 7]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2023) 주거 건축물 단위 5대 범죄 발생건수 현황

(단위: 건)

구분	아파트/연립/다세대	단독주택
강도	85	45
살인	217	127
성폭력	5,544	2,884
절도	16,810	7,211
폭력	40,835	18,745
총합	63,491	29,012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2023) 활용하여 연구진 재작성.

3. 비주거건축물 단위 5대 범죄 발생 분석

1) 경찰청 범죄통계(2023)

경찰청 범죄통계(2023)에 기반한 비주거건축물 단위의 범죄 발생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절도(80,610건)와 폭력(48,678건)이 전체 범죄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일상적 생활 공간에서의 범죄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상업시설 중에서는 '기타상점(42,238건)'과 '편의점(21,040건)', '무인상점(22,692건)'의 발생건수가 높게 나타나 소규모 점포와 무인 운영 매장이 새로운 취약 공간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무인점포의 절도 건수는 모든 유형 중 가장 많아 인적 감시가 부재한 환경에서의 보안 취약성이 확인된다. 유흥·음식 관련 업소에서는 '음식점(30,944건)', '주점(23,500건)', '단란·유흥주점(17,196건)' 등에서 폭력과 성범죄가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야간 시간대의 인적 밀집과 음주 환경이 결합된 특성과 관련이 있다. 숙박시설(15,454건) 또한 강도, 살인, 성폭력 등 강력범죄 비율이 높게 나타나 폐쇄적 공간 구조와 사적 접촉이 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교통시설에서는 '지하철역·전철역(4,852건)'과 '버스터미널(1,772건)'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절도와 성폭력 범죄가 다발하는 경향을 보인다. 문화·여가시설 중에서는 '공원·놀이시설(6,284건)'과 '체육시설(5,726건)'의 절도 및 폭력 건수가 높게 나타나 개방형 공공공간에서의 방범 인프라 강화 필요성이 드러난다. 교육시설의 경우, '학교(7,772건)'에서 절도와 폭력 사건이 집중되어 있으며 청소년 대상 범죄와 교내 폭력의 지속적 관리 필요성이 확인된다.

종합적으로 비주거공간의 범죄는 영업시간대, 이용인구, 개방성, 감시 수준 등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이며, 특히 무인점포와 야간 상권에서의 새로운 범죄 유형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예방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표 8] 경찰청 범죄통계(2023) 비주거건축물 단위 5대 범죄 현황

(단위: 건)

구분	강도	살인	성폭력	절도	폭력	총합
백화점	3	0	36	2,486	199	5,448
대형할인점	4	1	61	8,861	476	18,806
슈퍼마켓 소매점	13	3	85	8,586	644	18,662
편의점	35	1	310	8,029	2,145	21,040
시장/노점	3	2	91	2,918	1,344	8,716
창고(매장창고한정)	0	2	16	842	249	2,218
무인상점	3	0	21	10,847	475	22,692
기타상점	23	14	503	15,401	5,178	42,238
숙박업소(호텔/모텔/여관)	45	30	2,373	1,442	3,837	15,454
목욕탕/찜질방/사우나	1	3	229	1,583	341	4,314
이발소/미용실	1	1	41	278	262	1,166
마사지업소	7	1	160	120	247	1,070
공중위생업소기타	1	0	77	169	353	1,200
음식점	7	16	1,096	5,418	8,935	30,944
카페	9	2	209	1,535	1,133	5,776
주점	10	14	1,211	1,873	8,642	23,500
단란/유흥주점/나이트(클럽)/카바레	15	9	1,330	1,112	6,132	17,196
버스터미널/정류소	0	1	98	402	385	1,772
지하철역/전철역	3	1	441	1,031	950	4,852
기차역	0	0	6	144	82	464
여객선터미널	0	0	0	12	18	60
공항	0	0	9	196	99	608
공연장/극장	1	0	36	168	147	704
체육시설	1	1	214	1,657	990	5,726
공원/놀이시설	5	0	245	1,287	1,605	6,284
게임장/PC방	7	0	108	1,657	946	5,436
기타(DVD방유원지)	1	1	156	388	447	1,986
어린이집/유치원	1	0	7	48	68	248
학교	2	3	433	1,541	1,907	7,772
도서관	0	0	15	255	94	728
학원	0	0	106	165	198	938
기타 교육시설	0	1	58	159	150	736
총합	201	107	9,781	80,610	48,678	278,754

출처: 경찰청 범죄통계(2023) 활용하여 연구진 재작성.

2)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2023)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2023)에 기반한 비주거 건축물에서 발생한 5대 범죄(강도, 살인, 성폭력, 절도, 폭력)는 총 23만 4천여 건으로 집계된다. 이 중 절도와 폭력 범죄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비주거 공간의 범죄가 주로 재산 침해와 대인 폭력 형태로 나타남을 보여준다.

장소별로 살펴보면, '기타' 항목에서 9만 6천여 건으로 가장 많은 범죄가 발생하였다. 이는 구체적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은 노상, 공공장소, 주차장 등 다양한 공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다음으로 상점이 5만 6천여 건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전체 상점 범죄 중 절도 건수가 4만 8천여 건으로 85% 이상을 차지해 재산범죄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유흥접객업소에서는 약 3만 2천여 건의 범죄가 발생하였으며 폭력과 절도, 성폭력 범죄가 두드러진다. 이는 음주, 야간영업 등 사회적·환경적 요인이 결합된 취약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숙박업소와 목욕탕에서도 6,700여 건이 발생하였고 폭력과 절도, 성폭력 사건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사무실의 경우 약 8,100건이 발생했으며 폭력과 절도 사건이 주요 유형으로 나타났다.

공장, 공사장, 창고 등 산업시설에서도 총 6,700여 건이 발생하였으며 대부분 절도나 폭력 등 재산 범죄 중심의 양상을 보였다. 학교는 3,900여 건으로 폭력과 절도 사건이 다수였고, 이는 청소년 및 교육환경 내 갈등과 관련된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의료기관과 종교기관에서도 각각 3,300여 건과 1,000여 건이 발생했으며 폭력과 절도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금융기관은 2,600여 건으로 절도 사건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다.

한편, 산야와 유원지에서도 각각 4,300여 건과 4,200여 건의 범죄가 발생하여, 행락철이나 특정 시기 인파가 몰리는 공공장소에서의 폭력과 절도 범죄가 두드러졌다. 전반적으로 비주거 건축물에서는 절도와 폭력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며 상점·유흥업소·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범죄 집중도가 높게 나타난다. 이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특성과 인적 밀집도가 범죄 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9]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2023) 비주거 건축물 단위 5대 범죄 발생건수 현황

(단위: 건)

구분	강도	살인	성폭력	절도	폭력	총합
상점	73	18	1,184	48,770	6,662	56,707
시장노점	0	2	45	1,535	744	2,326
숙박업소·목욕탕	34	26	1,828	2,336	2,527	6,751
유형접객업소	42	31	3,459	8,176	20,879	32,587
사무실	18	20	703	2,245	5,151	8,137
공장	0	3	69	1,616	1,124	2,812
공사장·광산	0	0	22	1,210	1,475	2,707
창고	0	3	8	971	216	1,198
역대합실	1	2	755	1,203	1,167	3,128
은행장	1	2	127	538	304	972
유원지	5	5	375	2,043	1,851	4,279
학교	2	5	655	1,444	1,793	3,899
금융기관	12	0	16	2,405	237	2,670
의료기관	1	25	399	1,185	1,756	3,366
종교기관	1	4	47	546	408	1,006
산야	3	6	29	2,761	1,534	4,333
해상	1	2	2	43	112	160
부대	0	0	120	18	128	266
구금장소	0	0	52	13	459	524
공지	0	0	0	57	43	100
기타	126	138	14,451	35,737	45,964	96,416
총합	320	292	24,346	114,852	94,534	234,344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2023) 활용하여 연구진 재작성.

4. 범죄 피해조사 기반 공간 취약성 분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전국범죄피해조사)(2020)를 격년 단위로 발표한다. 이 데이터는 실제 범죄 피해를 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의 범죄피해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보고서와 암호화 된 메타데이터 형태로 공개한다. 이 데이터는 범죄 피해자들이 겪은 범죄 발생 장소와 공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¹⁾ 다만, 피해자 특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정단위의 공간 정보는 서울시와 광역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에 대한 구분 정도로만 제공한다. 또한, 주택 유형과 사건 발생 지역별로의 피해 조사 결과를 공유하여 범죄에 취약한 공간 유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단, [표 13]-[표 21]은 사례 수가 한정적이라 해석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1) 사건 발생 장소 유형별 피해 경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대다수가 현재 거주하는 시·군·구(약 90% 이상)로 나타나 생활권 내부에서 사건이 집중된다([표 10]). [표 11] 사건 발생 장소를 보면 주택유형별로는 단독·연립/다세대 거주자의 ‘집’에서의 발생 비중이 높다(각각 41%, 44%). 도시 규모별로는 읍면지역은 ‘집’(약 46%)과 ‘주택가 인접 도로’(약 19%) 비중이 높아 주거지 내부·주변의 방범 취약이 핵심 이슈로 드러난다. 중소도시는 주차장(약 17%)과 상업지(약 20%)의 비중이 크며, 서울은 상업지(약 29%)와 야외·거리/교통(약 14%)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상업·교통 결절부 중심의 취약성이 나타난다. ‘집’에서의 피해는 전체적으로 ‘우리 집’에서 발생한 것이 압도적이다([표 12]). 주택가 인접 도로의 경우 거주 유형과 일치한 주변에서의 피해가 두드러진다([표 13]). 주차장 피해는 전체적으로 ‘아파트/연립주택 단지 주차장’이 압도적으로 높다([표 14]). 야외·거리·등산로·대중교통시설은 도시 규모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 서울·광역은 공원·산책로 등 개방공간 비중이, 중소도시는 교통수단 내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표 18]).

종합하면 저층 주거지(단독·연립/다세대)는 주거 내부·주변(집·골목) 중심, 아파트는 단지 주차장·상업지 중심, 대도시는 상업·교통 결절부, 읍면은 주거지 내부·주변의 취약성이 두드러진다. 이에 따라 단독·연립/다세대 지역은 골목 조도·감시성·출입 통제, 아파트 지역은 단지 주차장 가시성·동선 관리·비상벨·CCTV 망 고도화, 대도시는 상업지·환승구간 가시성·혼잡도 관리·야간 순찰 최적화, 읍면은 주거지 중심 생활방법 인프라 보강이 우선 과제로 제시된다.

[표 10] 피해 발생 지역

	사례 수	피해를 당한 지역은 어디였습니까?			계	
		현재 사는 시군구	다른 시군구	모르겠다		
		%	%	%	%	
전체	727	91.5	7.2	1.2	100.0	
성별	남자	326	87.6	11.8	0.7	100.0
	여자	402	94.8	3.5	1.7	100.0
연령별	10대	44	86.2	7.2	6.6	100.0
	20대	112	88.7	7.8	3.5	100.0
	30대	121	94.9	5.1	0	100.0
	40대	166	92.7	7.3	0	100.0
	50대	155	90	8.6	1.4	100.0
	60대	89	90	10	0	100.0
	70대 이상	40	100	0	0	100.0
	가구 전체 소득	100만원 미만	32	100	0	0
	100~200만원 미만	69	94.9	5.1	0	100.0
	200~300만원 미만	101	90.7	9.3	0	100.0
	300~400만원 미만	169	89.4	7.5	3	100.0
	400~500만원 미만	141	88.1	9.8	2.1	100.0
	500~600만원 미만	90	97	1.8	1.1	100.0
	600~700만원 미만	95	90.6	9.4	0	100.0
	700~1,000만원 미만	16	96.1	3.9	0	100.0
	1,000만원 이상	14	88.4	11.6	0	100.0
주택 유형	단독주택	111	97.7	1.3	1.1	100.0
	아파트	404	89.9	9.6	0.5	100.0
	연립주택/다세대주택	184	92.1	4.8	3.1	100.0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11	100	0	0	100.0
	오피스텔	14	100	0	0	100.0
	기타	4	0	100	0	100.0
	도시 규모	서울시	96	98.8	1.2	0
	광역시	202	88.5	10.6	0.9	100.0
	중소도시	308	91.4	6.6	2	100.0
	읍면지역	120	91.2	7.8	1	100.0

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전국범죄피해조사)(2020) 활용하여 연구진 재작성.

[표 11] 사건 발생 장소

	사례수	발생 장소								계	
		집	주택가나 그 인접한 도로 (거주자 우선주차 도로 포함)	학교	주차장	인구 밀집 상업지	공공 기관, 사무실, 공장	야외, 거리, 등산로, 산책로, 대중 교통 시설 등	그 외의 장소		
		%	%	%	%	%	%	%	%		
전체	718	37.1	12.3	1.3	12.2	20.7	6.3	6.7	3.3	100.0	
성별	남자	324	31.9	12.4	1.8	16.5	20	8.4	4.4	4.5	100.0
	여자	395	41.5	12.3	1	8.6	21.2	4.6	8.6	2.4	100.0
연령별	10대	42	17.3	37.7	15.6	16.5	8.9	0	0	4.1	100.0
	20대	108	34.3	12.1	1.9	7.5	24.1	9.4	7.5	3.3	100.0
	30대	121	27.2	11.3	0.8	16.4	28.5	2.2	10.5	3.2	100.0
	40대	166	36.9	9.8	0	16.5	19.4	8.9	6.5	2	100.0
	50대	153	39.3	12.4	0	12.4	22.4	6.9	6.2	0.4	100.0
	60대	89	42.1	10.6	0	6.3	17.2	5.9	7.6	10.4	100.0
	70대 이상	40	77.1	4.3	0	1.6	6.5	5.9	0.4	4.2	100.0
가구 전체 소득	100만원 미만	32	74.6	15.3	0	0	0	7.4	0	2.6	100.0
	100~200만원 미만	69	57.7	5	0	9.4	21.7	0	3.3	2.9	100.0
	200~300만원 미만	101	41.7	12.8	0	13.2	20.7	2.4	2.7	6.7	100.0
	300~400만원 미만	163	26.8	13.6	4.2	7.9	26.5	7.6	9.8	3.5	100.0
	400~500만원 미만	138	32.9	14.2	1.2	16.8	16.3	8	8.5	2	100.0
	500~600만원 미만	89	47.3	12.9	0	7	15.4	5	11.1	1.4	100.0
	600~700만원 미만	95	27.7	12.8	0	20.2	25.5	6.6	3.2	4.1	100.0
	700~1,000만원 미만	16	9.4	0	0	18.1	30.9	27.4	9.9	4.3	100.0
1,000만원 이상	14	13	13	6.8	20.4	25.5	14.6	6.6	0	100.0	
주택 유형	단독주택	110	41.3	17.5	0	4.8	22.1	4.7	2.4	7.3	100.0
	아파트	401	33.9	8.9	1.3	16.1	20.7	8.1	8.4	2.4	100.0
	연립주택/다세대주택	178	43.5	17.2	2.4	7.2	19.5	4.5	2.6	3.1	100.0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11	46.6	26.4	0	15.6	11.4	0	0	0	100.0
	오피스텔	14	4.8	0	0	19.9	33.9	0	36.6	4.8	100.0
기타	4	50	0	0	0	0	0	50	0	100.0	
도시 규모	서울시	96	29.4	8.1	0	8.1	29	6.8	13.8	4.8	100.0
	광역시	201	37	11	3.4	9.8	24.1	6.1	5.4	3.1	100.0
	중소도시	302	36.1	11.8	0.3	16.7	19.6	7.1	6.7	1.8	100.0
	읍면지역	119	46.3	19.4	1.4	7.9	10.9	4.4	3.2	6.4	100.0

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전국범죄피해조사)(2020) 활용하여 연구진 재작성.

[표 12] 사건 발생 구체 장소(집)

	사례 수	집			계	
		우리 집	가해자의 집	다른 사람의 집		
		%	%	%		
전체	267	91.8	2	6.3	100.0	
성별	남자	103	95.4	1.3	3.3	100.0
여자	여자	164	89.5	2.4	8.1	100.0
연령별	10대	7	100	0	0	100.0
	20대	37	100	0	0	100.0
	30대	33	100	0	0	100.0
	40대	61	93	1.8	5.2	100.0
	50대	60	89.2	5.4	5.4	100.0
	60대	37	76.3	2.5	21.2	100.0
	70대 이상	31	92.5	0	7.5	100.0
	가구 전체 소득	100만원 미만	24	85	0	15
100~200만원 미만		40	97.4	0	2.6	100.0
200~300만원 미만		42	89	0	11	100.0
300~400만원 미만		44	96.4	3.6	0	100.0
400~500만원 미만		45	87.2	3.4	9.4	100.0
500~600만원 미만		42	94.5	5.2	0.4	100.0
600~700만원 미만		26	95.7	0	4.3	100.0
700~1,000만원 미만		2	100	0	0	100.0
1,000만원 이상	2	0	0	100	100.0	
주택 유형	단독주택	45	98.5	1.5	0	100.0
	아파트	136	87.6	1.9	10.5	100.0
	연립주택/다세대주택	77	94.3	2.6	3.1	100.0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5	100	0	0	100.0
	오피스텔	1	100	0	0	100.0
	기타	2	100	0	0	100.0
	도시 규모	서울시	28	79.4	7.1	13.5
광역시		74	89.5	2.6	7.8	100.0
중소도시		109	95.6	0	4.4	100.0
읍면지역		55	93.5	2.4	4.1	100.0

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전국범죄피해조사)(2020) 활용하여 연구진 재작성.

[표 13] 사건 발생 구체 장소(주택가나 그 인접한 도로)

	사례수	주택가나 그 인접한 도로(거주자 우선도차도로 포함)			계	
		아파트 단지 주변	다세대 / 연립주택가 주변	단독주택 마을 주변		
		%	%	%		
전체	89	32.2	45	22.9	100.0	
성별	남자	40	24.2	58.8	17	100.0
	여자	48	38.8	33.5	27.7	100.0
연령별	10대	16	33	67	0	100.0
	20대	13	11.6	48.7	39.7	100.0
	30대	14	33.1	42.5	24.4	100.0
	40대	16	58.3	32.4	9.3	100.0
	50대	19	33.9	35.8	30.3	100.0
	60대	9	4.1	55.1	40.8	100.0
	70대 이상	2	60.5	0	39.5	100.0
	가구 전체 소득	100만원 미만	5	68.8	31.2	0
100~200만원 미만		3	86.9	0	13.1	100.0
200~300만원 미만		13	9.5	36.3	54.1	100.0
300~400만원 미만		22	33.3	48.9	17.8	100.0
400~500만원 미만		20	31	54	14.9	100.0
500~600만원 미만		11	40.8	44.2	15.1	100.0
600~700만원 미만		12	7.3	58	34.7	100.0
1,000만원 이상		2	100	0	0	100.0
주택 유형	단독주택	19	5.5	14.1	80.5	100.0
	아파트	36	71.3	23.3	5.4	100.0
	연립주택/다세대주택	31	6.3	88.7	5	100.0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3	0	53.9	46.1	100.0
도시 규모	서울시	8	0	100	0	100.0
	광역도시	22	16.9	48.8	34.4	100.0
	중소도시	36	37.2	41.4	21.4	100.0
	읍면지역	23	50	28.1	21.9	100.0

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전국범죄피해조사)(2020) 활용하여 연구진 재작성.

[표 14] 사건 발생 구체 장소(주차장)

	사례수	주차장					기타	계
		상업시설 (백화점, 쇼핑센터 등) 주차장	공공기관 (관공서, 은행 등) 주차장	아파트/ 연립주택 단지 주차장	도로변 유료 주차장이나 주차전용 건물			
		%	%	%	%	%		
전체	87	6.8	3.5	74.1	14.5	1.1	100.0	
성별	남자	53	7.6	1.8	74.3	16.3	0	100.0
	여자	34	5.7	6.2	73.8	11.6	2.7	100.0
연령별	10대	7	0	0	100	0	0	100.0
	20대	8	11.8	0	76.2	12.1	0	100.0
	30대	20	13.2	0	74.4	7.7	4.7	100.0
	40대	27	8.8	7.7	75.8	7.8	0	100.0
	50대	19	0	5.1	52.7	42.3	0	100.0
	60대	6	0	0	100	0	0	100.0
	70대 이상	1	0	0	100	0	0	100.0
	가구 전체 소득	100~200만원 미만	6	0	0	84.9	15.1	0
200~300만원 미만	13	7.1	0	81	11.9	0	100.0	
300~400만원 미만	13	0	7.5	70.5	22	0	100.0	
400~500만원 미만	23	13	0	71.1	12	4	100.0	
500~600만원 미만	6	0	0	100	0	0	100.0	
600~700만원 미만	19	10.4	0	66.4	23.3	0	100.0	
700~1,000만원 미만	3	0	0	100	0	0	100.0	
1,000만원 이상	3	0	72.5	27.5	0	0	100.0	
주택 유형	단독주택	5	0	0	40.8	59.2	0	100.0
	아파트	65	9.2	4.8	74.4	10.1	1.4	100.0
	연립주택/다세대주택	13	0	0	90.5	9.5	0	100.0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2	0	0	0	100	0	100.0
	오피스텔	3	0	0	100	0	0	100.0
도시 규모	서울시	8	0	0	84.3	15.7	0	100.0
	광역시	20	0	0	86.1	13.9	0	100.0
	중소도시	50	11.9	4.2	71.3	12.7	0	100.0
	읍면지역	9	0	10.2	55.4	24.5	9.8	100.0

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전국범죄피해조사)(2020) 활용하여 연구진 재작성.

[표 15] 사건 발생 구체 장소(학교)

	사례수	학교			계	
		교실	체육관,강당, 매점등 학교 내부시설	학교 담장 주변		
						%
전체	9	10.4	55.9	33.7	100.0	
성별	남자	6	17.2	27.1	55.7	100.0
	여자	4	0	100	0	100.0
연령별	10대	6	15.3	35.3	49.5	100.0
	20대	2	0	100	0	100.0
	30대	1	0	100	0	100.0
가구 전체 소득	300~400만원 미만	7	14.4	39.2	46.5	100.0
	400~500만원 미만	2	0	100	0	100.0
	1,000만원 이상	1	0	100	0	100.0
주택 유형	아파트	5	18.6	81.4	0	100.0
	연립주택/다세대주택	4	0	23.8	76.2	100.0
도시 규모	광역도시	7	0	53.1	46.9	100.0
	중소도시	1	100	0	0	100.0
	읍면지역	2	0	100	0	100.0

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전국범죄피해조사)(2020) 활용하여 연구진 재작성.

[표 16] 사건 발생 구체 장소(인구 밀집 상업지)

	사례수	인구 밀집 상업지					계	
		백화점, 시장, 가게 (상점) 등 상업건물	식당, 술집, ไนท์ 클럽 등 유흥업소	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 목욕탕	극장, 공연장	기타		
		%	%	%	%	%		
전체	148	56.3	40.5	0.9	0.8	1.6	100.0	
성별	남자	65	50.6	47.4	0	0	2.1	100.0
	여자	84	60.8	35.1	1.5	1.3	1.3	100.0
연령별	10대	4	71.3	0	0	0	28.7	100.0
	20대	26	48.9	44.3	0	4.3	2.5	100.0
	30대	34	49.7	50.3	0	0	0	100.0
	40대	32	35.5	60.5	4	0	0	100.0
	50대	34	79.8	20.2	0	0	0	100.0
	60대	15	68.3	31.7	0	0	0	100.0
	70대 이상	3	73.8	0	0	0	26.2	100.0
	가구 전체 소득	100~200만원 미만	15	88.4	11.6	0	0	0
200~300만원 미만		21	55.9	40.8	0	0	3.3	100.0
300~400만원 미만		43	49.9	45	0	2.6	2.4	100.0
400~500만원 미만		23	39.3	52.1	5.7	0	2.9	100.0
500~600만원 미만		14	54.3	45.7	0	0	0	100.0
600~700만원 미만		24	74.2	25.8	0	0	0	100.0
700~1,000만원 미만		5	42.7	57.3	0	0	0	100.0
1,000만원 이상		4	15.4	84.6	0	0	0	100.0
주택 유형	단독주택	24	53.5	36.4	0	4.6	5.5	100.0
	아파트	83	55.9	42.5	1.6	0	0	100.0
	연립주택/다세대주택	35	55.4	41.5	0	0	3.1	100.0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1	45.9	54.1	0	0	0	100.0
	오피스텔	5	85.5	14.5	0	0	0	100.0
도시 규모	서울시	28	70.8	24.5	4.6	0	0	100.0
	광역시	48	52.2	40.5	0	2.3	5	100.0
	중소도시	59	49.2	50.8	0	0	0	100.0
	읍면지역	13	72.9	27.1	0	0	0	100.0

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전국범죄피해조사)(2020) 활용하여 연구진 재작성.

[표 17] 사건 발생 구체 장소(공공기관, 사무실, 공장)

	사례수	공공기관, 사무실, 공장				계	
		동사무소, 세무서 등 관공서	기업, 회사 사무실	공장이나 창고, 공사장	기타		
		%	%	%	%		
전체	46	8.3	85.9	4.1	1.7	100.0	
성별	남자	27	8.8	84.1	4.2	2.9	100.0
	여자	18	7.5	88.7	3.8	0	100.0
연령별	20대	10	0	100	0	0	100.0
	30대	3	52.7	47.3	0	0	100.0
	40대	15	0	100	0	0	100.0
	50대	11	0	75	17.5	7.5	100.0
	60대	5	0	100	0	0	100.0
	70대 이상	2	100	0	0	0	100.0
	가구 전체 소득	100만원 미만	2	100	0	0	0
200~300만원 미만		2	0	100	0	0	100.0
300~400만원 미만		12	0	94.4	5.6	0	100.0
400~500만원 미만		11	0	95.2	4.8	0	100.0
500~600만원 미만		4	31	51.2	0	17.8	100.0
600~700만원 미만		6	0	89.9	10.1	0	100.0
700~1,000만원 미만		5	0	100	0	0	100.0
1,000만원 이상		2	0	100	0	0	100.0
주택 유형	단독주택	5	26.8	47.5	10.3	15.4	100.0
	아파트	33	0	95.9	4.1	0	100.0
	연립주택/다세대주택	8	30.2	69.8	0	0	100.0
도시 규모	서울시	7	0	100	0	0	100.0
	광역시	12	0	90.6	9.4	0	100.0
	중소도시	22	11.1	88.9	0	0	100.0
	읍면지역	5	26.2	45.4	13.3	15.1	100.0

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전국범죄피해조사)(2020) 활용하여 연구진 재작성.

[표 18] 사건 발생 구체 장소(야외, 거리, 등산로, 산책로, 대중교통시설 등)

		야외, 거리, 등산로, 산책로, 대중교통시설 등					기타	계
		사례수	유원지, 공원, 등산, 산책로, 공터, 체육시설, 운동장 (학교 운동장 제외)	도로 상에서 (주택과 인접한도로 제외)	버스, 기차, 지하철, 택시, 항공기, 선박 등 교통시설 내부	대중교통 정거장, 역 또는 대합실		
			%	%	%	%		
전체		48	42.4	4.1	26.6	11.6	15.4	100.0
성별	남자	14	32.1	7.1	49.9	0	10.8	100.0
	여자	34	46.8	2.8	16.7	16.5	17.3	100.0
연령별	20대	8	44.9	0	21.5	33.5	0	100.0
	30대	13	56.8	8.1	22.3	12.8	0	100.0
	40대	11	20.6	0	57.6	0	21.8	100.0
	50대	10	57.6	0	5.8	12.8	23.8	100.0
	60대	7	26.8	14	18.5	0	40.7	100.0
	70대 이상	0	0	0	100	0	0	100.0
	가구 전체 소득	100~200만원 미만	2	21.9	0	78.1	0	0
200~300만원 미만		3	93.8	0	6.2	0	0	100.0
300~400만원 미만		16	5.4	6.4	46.2	24.7	17.2	100.0
400~500만원 미만		12	33.9	0	24.8	13.8	27.4	100.0
500~600만원 미만		10	85.6	0	0	0	14.4	100.0
600~700만원 미만		3	50.6	31.1	18.2	0	0	100.0
700~1,000만원 미만		2	100	0	0	0	0	100.0
1,000만원 이상		1	100	0	0	0	0	100.0
주택 유형	단독주택	34	42.2	3	22.8	16	16	100.0
	아파트	5	96.8	0	0	3.2	0	100.0
	연립주택/다세대주택	5	18.2	18.2	63.7	0	0	100.0
	오피스텔	2	0	0	100	0	0	100.0
도시 규모	서울시	13	61	0	9.4	29.6	0	100.0
	광역시	11	59.9	9.4	21.3	1.4	8	100.0
	중소도시	20	23.5	4.7	45.7	7.3	18.7	100.0
	읍면지역	4	27.2	0	0	0	72.8	100.0

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전국범죄피해조사)(2020) 활용하여 연구진 재작성.

2) 가해자 특성과 침입 경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에 살았거나 허락을 받고 들어온 비율은 전체 9.4%로 낮으며 대다수 사건은 비거주·무허가 진입(90.6%)에 해당한다([표 19]). [표 20]을 보면 실제로 집 내부(현관·마당 등)까지 침입이 이루어진 비율은 31.9%이며, 주택유형별 격차가 크다. 단독주택은 침입 비율이 67.0%로 가장 높고, 아파트 20.5%, 연립/다세대 17.2% 순으로 나타난다(표본수가 적은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 제외). 도시규모별로는 읍면지역의 침입 비율이 48.2%로 높고, 서울은 0%로 보고 되어 도시 외곽·농촌에서 주거공간 직접 침입형 위험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진다. 단, 서울시 응답자 수가 11명이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 22]를 보면 사건이 '집에서' 발생한 비중은 전체 32.7%이며, 연립/다세대(45.4%), 단독주택(40.3%) 거주자의 경우 높고 아파트 거주자는 낮은 응답(23.5%)을 보인다.

[표 19] 가해자가 집에 살았거나 들어왔는지 여부

	사례수	가해자는 귀하의 집에 사건 당시 살았거나 귀하의 허락으로 집에 들어왔습니까?		계	
		예	아니오		
		%	%	%	
전체	144	9.4	90.6	100.0	
성별	남자	60	14.1	85.9	100.0
	여자	83	6	94	100.0
연령별	10대	10	26.2	73.8	100.0
	20대	25	0	100	100.0
	30대	17	0	100	100.0
	40대	37	13.1	86.9	100.0
	50대	23	11.8	88.2	100.0
	60대	11	7.1	92.9	100.0
	70대 이상	22	12.5	87.5	100.0
	가구 전체 소득	100만원 미만	17	36.4	63.6
100~200만원 미만		32	3.3	96.7	100.0
200~300만원 미만		18	0	100	100.0
300~400만원 미만		21	2.1	97.9	100.0
400~500만원 미만		26	7.6	92.4	100.0
500~600만원 미만		20	19.9	80.1	100.0
600~700만원 미만		9	0	100	100.0
700~1,000만원 미만		0	0	100	100.0
주택 유형	단독주택	32	6.1	93.9	100.0
	아파트	53	15	85	100.0
	연립주택/다세대주택	51	7	93	100.0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	5	0	100	100.0
	오피스텔	1	0	100	100.0
	기타	2	0	100	100.0

도시	서울시	15	22.3	77.7	100.0
	광역시	32	5.8	94.2	100.0
규모	중소도시	61	13.2	86.8	100.0
	읍면지역	36	1	99	100.0

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전국범죄피해조사)(2020) 활용하여 연구진 재작성.

[표 20] 가해자가 실제로 집에 들어왔는지 여부

	사례수	그 사건에서 가해자가 실제로 귀하의 집(현관, 마당 등)으로 들어왔습니까?		계	
		들어왔다	시도했으나 들어오지는 못했다		
		%	%	%	
전체	130	31.9	68.1	100.0	
성별	남자	52	39.9	60.1	100.0
	여자	78	26.6	73.4	100.0
연령별	10대	7	0	100	100.0
	20대	25	10.7	89.3	100.0
	30대	17	16.3	83.7	100.0
	40대	32	36.2	63.8	100.0
	50대	20	38.6	61.4	100.0
	60대	10	74.8	25.2	100.0
	70대 이상	19	48	52	100.0
	가구 전체 소득	100만원 미만	11	32.6	67.4
100~200만원 미만		31	30.5	69.5	100.0
200~300만원 미만		18	56.3	43.7	100.0
300~400만원 미만		21	39.8	60.2	100.0
400~500만원 미만		24	26.7	73.3	100.0
500~600만원 미만		16	17.3	82.7	100.0
600~700만원 미만		9	10.4	89.6	100.0
700~1,000만원 미만		0	0	100	100.0
주택 유형	단독주택	30	67	33	100.0
	아파트	45	20.5	79.5	100.0
	연립주택/다세대주택	48	17.2	82.8	100.0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5	80.6	19.4	100.0
	오피스텔	1	0	100	100.0
	기타	2	0	100	100.0
	도시 규모	서울시	11	0	100
광역시		30	33.9	66.1	100.0
중소도시		53	26.7	73.3	100.0
읍면지역		36	48.2	51.8	100.0

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전국범죄피해조사)(2020) 활용하여 연구진 재작성.

침입 경로는 주택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는 ‘문·창문 미잠금(문단속 미흡)’ 비중이 높고, 창문 파손 등 외곽 개구부 취약이 결합한다. 아파트는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응답 비중이 높아(표본 내 다수) 복도형·공동현관·주차장 등 공용부를 경유한 우회 접근이 많고 CCTV 사각 및 접근 경로 파악의 한계가 드러난다. 도시규모별로는 중소도시는 문단속 미흡 비중이 높고, 광역시는 공용부·공동현관 등 간접 경로 가능성, 읍면은 외부 개구부 취약과 야간 인적 희박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난다. 종합하면 저층 단독·연립/다세대는 개구부·출입문 물리 강화와 야간조도·면밀 경계, 아파트는 공동현관·주차장·엘리베이터 동선의 감시성·통제성 강화, 읍면은 주거 외곽 경계·담장·창호 보강과 생활순찰 결합이 핵심 대응 축이다.

[표 21] 가해자가 집에 들어오게 된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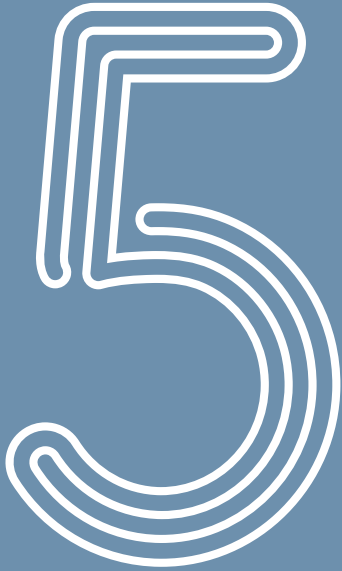
	사례수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계	
		열린 문이나 창문으로 (문단속을 하지 않아서)	잠긴 문을 열쇠로 열고	문이나 문에 달린 자물쇠를 부수고	유리창을 깨거나 방범창을 부수고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음	그 외의 경우		
		%	%	%	%	%	%		
주택 유형	단독주택	20	54	2.7	70	27	316	19	100.0
	아파트	9	5.7	14.4	0	0	79.9	0	100.0
	연립주택/다세대주택	8	57.1	18.5	0	5	19.3	0	100.0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4	24.2	0	0	0	75.8	0	100.0
도시 규모	광역도시	10	38.6	0	14.1	4	43.3	0	100.0
	중소도시	14	53.6	20.1	0	0	26.4	0	100.0
	읍면지역	17	32.5	3.2	0	3.2	58.8	2.3	100.0

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전국범죄피해조사)(2020) 활용하여 연구진 재작성.

[표 22] 사건이 집에서 발생했는지 여부

	사례수	그 사건은 귀하의 집에서 일어났습니까? (*집에 들어올 뻔한 것도 포함)		계	
		예	아니오		
		%	%		
전체	438	32.7	67.3	100.0	
성별	남자	199	30.3	69.7	100.0
	여자	240	34.7	65.3	100.0
연령별	10대	37	25.9	74.1	100.0
	20대	71	34.8	65.2	100.0
	30대	76	22.3	77.7	100.0
	40대	112	32.6	67.4	100.0
	50대	75	30.3	69.7	100.0
	60대	40	27.1	72.9	100.0
	70대 이상	26	83.1	16.9	100.0
	가구 전체 소득	100만원 미만	23	72	28
100~200만원 미만		46	69.9	30.1	100.0
200~300만원 미만		57	31.7	68.3	100.0
300~400만원 미만		103	20.3	79.7	100.0
400~500만원 미만		80	32.2	67.8	100.0
500~600만원 미만		56	35.9	64.1	100.0
600~700만원 미만		57	15.9	84.1	100.0
700~1,000만원 미만		9	4.9	95.1	100.0
1,000만원 이상	6	0	100	100.0	
주택 유형	단독주택	80	40.3	59.7	100.0
	아파트	226	23.5	76.5	100.0
	연립주택/다세대주택	112	45.4	54.6	100.0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9	49.7	50.3	100.0
	오피스텔	7	10	90	100.0
	기타	4	50	50	100.0
도시 규모	서울시	50	29.5	70.5	100.0
	광역시	118	26.9	73.1	100.0
	중소도시	185	33	67	100.0
	읍면지역	86	42	58	100.0

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전국범죄피해조사)(2020) 활용하여 연구진 재작성.



주관적 안전 인식과 범죄 두려움 분석

공간으로 읽는 범죄 데이터

PART 5

주관적 안전 인식과 범죄 두려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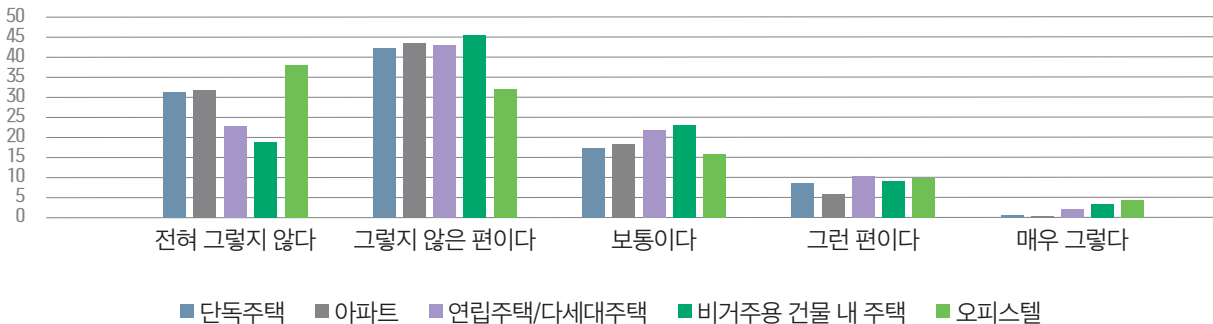
1.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2020)

이 절에서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2020)의 범죄피해조사에서 발표한 내용 중 주관적 두려움과 관련한 부분을 소개한다. 두려움 정도는 상황별 두려움 정도, 일상생활 중 범죄피해 두려움 정도, 범죄피해 유형별 두려움 정도로 구분한다.

1) 상황별 두려움 정도

주택 유형에 따른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렵다'는 범죄 두려움 정도는 오피스텔 거주자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오피스텔 거주자들은 14.2%가 '두렵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고 응답하여, 아파트 거주자의 두려움 응답률(6.3%) 대비 두 배 이상 높았다. 즉, 오피스텔 거주자는 주거 보안 시스템이 갖춰진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두려움을 느끼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아파트 거주자들은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31.8%)과 두려움이 없는 편이라는 응답(43.4%)을 합친 비율이 75.2%로 가장 높아, 상대적으로 아파트 거주자의 주관적 안전 인식이 가장 안정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오피스텔 거주자는 '두렵다'는 응답이 14.2%로 높게 나타나 주거 보안 시스템이 갖춰진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두려움을 느끼는 경향을 보였다.

(단위: %)



[그림 52] 주택유형별 상황별 두려움 정도 -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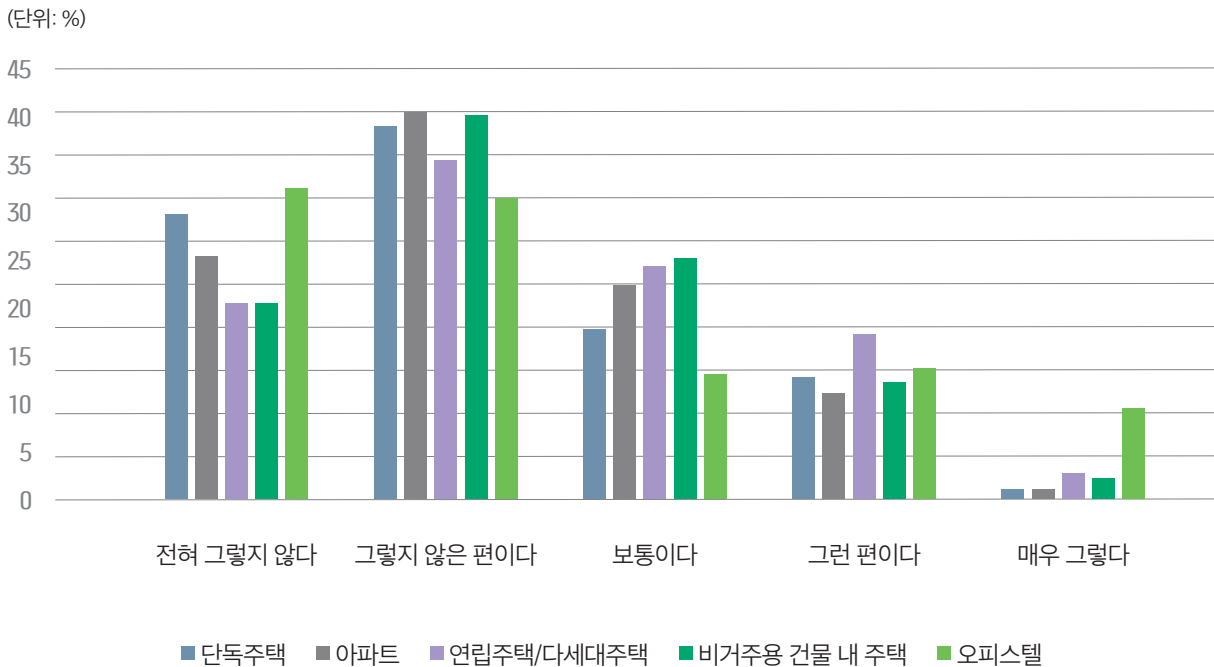
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전국범죄피해조사)(2020) 활용하여 연구진 재작성.

[표 23] 상황별 두려움 정도 -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렵다

	사례수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렵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	%	%	%	%		
전체	13,772	29.8	42.8	18.9	7.5	0.9	100.0	
성별	남자	6,863	40.1	42.5	12.8	4.2	0.5	100.0
	여자	6,909	19.7	43.2	25	10.7	1.4	100.0
연령별	10대	1,009	25.0	42.2	22.2	7.8	2.8	100.0
	20대	2,140	31.2	39.4	20.4	8.1	1.0	100.0
	30대	2,172	31.5	41.5	18.3	7.7	1.1	100.0
	40대	2,452	29.8	42.3	19.2	7.7	1.0	100.0
	50대	2,590	29.9	44.8	17.9	6.7	0.7	100.0
	60대	1,868	28.2	45.8	19	6.7	0.4	100.0
	70대 이상	1,540	30.6	43.9	17.1	7.9	0.5	100.0
	가구 전체 소득	100만원 미만	802	29.3	42.9	18.9	8.9	0
100~200만원 미만		1,124	30.1	42.8	18.3	8.1	0.7	100.0
200~300만원 미만		2,071	29.1	43.8	18.8	8.0	0.3	100.0
300~400만원 미만		2,711	28.5	42.1	20.8	7.6	1.1	100.0
400~500만원 미만		2,789	28.1	42.3	20.9	8.1	0.6	100.0
500~600만원 미만		2,010	28.7	43.1	19.8	6.9	1.5	100.0
600~700만원 미만		1,282	35.2	42.1	14.3	6.0	2.3	100.0
700~1,000만원 미만		750	34.3	46.4	13.1	5.5	0.7	100.0
1,000만원 이상	232	38.5	39.5	15.6	4.5	1.9	100.0	
주택 유형	단독주택	2,650	31.2	42.2	17.4	8.5	0.6	100.0
	아파트	7,659	31.8	43.4	18.4	5.9	0.4	100.0
	연립주택/다세대주택	2,902	22.9	43.0	21.9	10.3	2.0	100.0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170	18.8	45.5	23.1	9.2	3.5	100.0
	오피스텔	376	38.0	32	15.8	9.8	4.4	100.0
	기타	15	17.9	52.4	18.3	0	11.5	100.0
도시 규모	서울시	2,598	17.4	44.3	25.9	9.5	2.9	100.0
	광역시	3,406	34.3	39.7	18.2	7.5	0.3	100.0
	중소도시	5,484	31.4	43.5	17.6	7.0	0.5	100.0
	읍면지역	2,284	33.4	44.1	15.4	6.3	0.8	100.0

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전국범죄피해조사)(2020) 활용하여 연구진 재작성.

이에 반해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는 응답은 오피스텔 거주자가 23.1%로 주택 유형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특히 '매우 그렇다'는 응답 비율(9.5%)이 다른 유형 대비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연립/다세대주택 거주자 역시 19.9%로 높은 두려움을 보였으며, 이는 주거 밀집도와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부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반면, 아파트 거주자는 12.0%로 주택 유형 중 두려움 정도가 가장 낮아, 주거 환경이 외부 활동 시의 주관적 안전 인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53] 주택유형별 상황별 두려움 정도 -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

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전국범죄피해조사)(2020) 활용하여 연구진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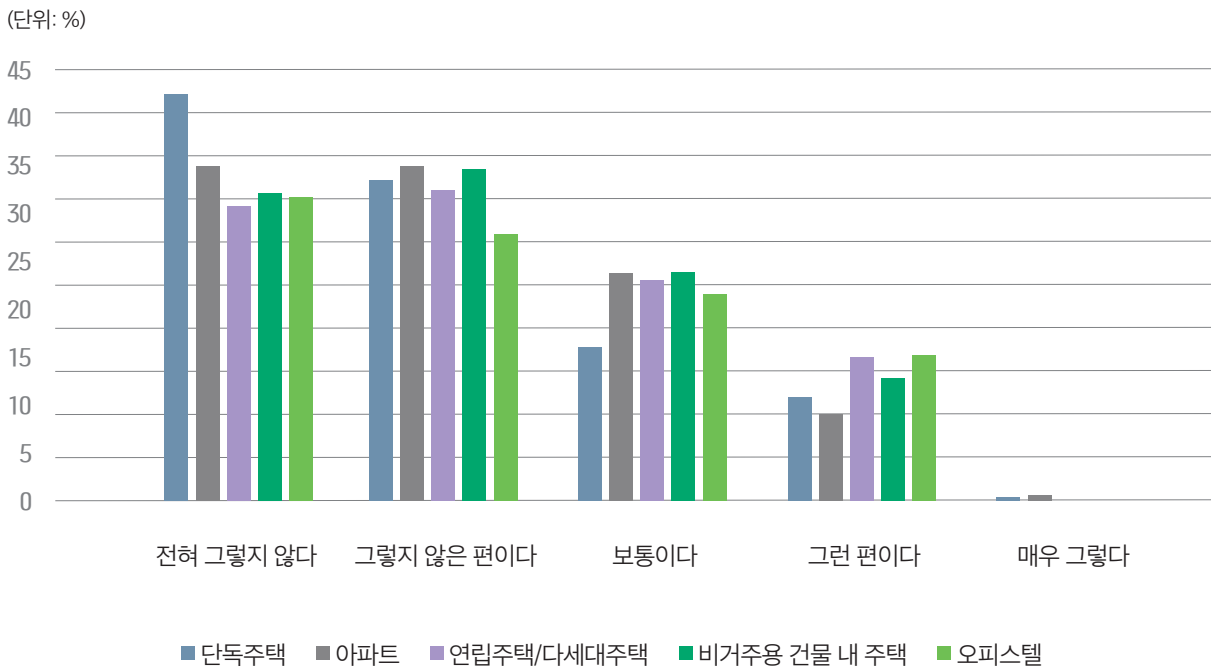
[표 24] 상황별 두려움 정도 -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

	사례수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	%	%	%	%		
전체	13,772	25.2	38.8	21.6	12.7	1.6	100.0	
성별	남자	6,863	35.7	42.5	16.4	4.9	0.6	100.0
	여자	6,909	14.9	35.2	26.9	20.4	2.6	100.0
연령별	10대	1,009	21.6	35.3	24.7	15	3.5	100.0
	20대	2,140	26	36	20.6	15.1	2.3	100.0
	30대	2,172	25	39.4	20.6	13	1.9	100.0
	40대	2,452	24.6	38.5	23.1	12.2	1.6	100.0
	50대	2,590	26.3	38.9	22.9	10.8	1.2	100.0
	60대	1,868	24.8	42.1	21	11.1	1.1	100.0
	70대 이상	1,540	26.7	40.6	18.9	13.4	0.5	100.0
	가구 전체 소득	100만원 미만	802	27.6	37.6	19.4	14.8	0.5
	100~200만원 미만	1,124	25.8	39.1	19.1	14.6	1.4	100.0
	200~300만원 미만	2,071	26.2	39.5	20.6	12.4	1.2	100.0
	300~400만원 미만	2,711	24.4	38.3	23.8	11.7	1.8	100.0
	400~500만원 미만	2,789	23.4	38.6	23.3	13.3	1.4	100.0
	500~600만원 미만	2,010	23.3	38.4	22.4	13.3	2.6	100.0
	600~700만원 미만	1,282	30.2	37.4	19.8	10.4	2.3	100.0
	700~1,000만원 미만	750	24.7	44.7	18.8	11.1	0.8	100.0
	1,000만원 이상	232	28.2	36.6	18.2	15.1	1.9	100.0
주택 유형	단독주택	2,650	29.7	38.9	17.7	12.7	1	100.0
	아파트	7,659	25.3	40.4	22.3	11	1	100.0
	연립주택/다세대주택	2,902	20.4	35.4	24.3	17.2	2.7	100.0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170	20.4	40.1	25.1	12.2	2.2	100.0
	오피스텔	376	32.4	31.4	13	13.6	9.5	100.0
	기타	15	0	62.7	18.3	7.5	11.5	100.0
도시 규모	서울시	2,598	15.2	39.1	28.4	13.7	3.5	100.0
	광역시	3,406	27.9	36.4	23.3	11.3	1.1	100.0
	중소도시	5,484	26.2	39.7	19.7	13.3	1.1	100.0
	읍면지역	2,284	30.5	39.9	16	12	1.5	100.0

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전국범죄피해조사)(2020) 활용하여 연구진 재작성.

2) 일상생활 중 범죄피해 두려움 정도

일상생활 중 '나 자신이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두렵다'는 응답은 오피스텔 거주자가 21.5%로 주택 유형 중 가장 높았다. 이는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 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이다. 연립/다세대주택 거주자 역시 16.5%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두려움을 나타냈으며, 이는 범죄피해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가 주거 환경의 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됨을 시사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단독주택 거주자는 10.9%만이 두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여, 주관적 범죄피해 두려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반적으로 아파트 거주자의 두려움 응답률(9.4%)과 함께 단독주택 거주자가 범죄피해 우려에 대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4] 주택유형별 일상생활 중 범죄피해 두려움 정도 - 나 자신이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두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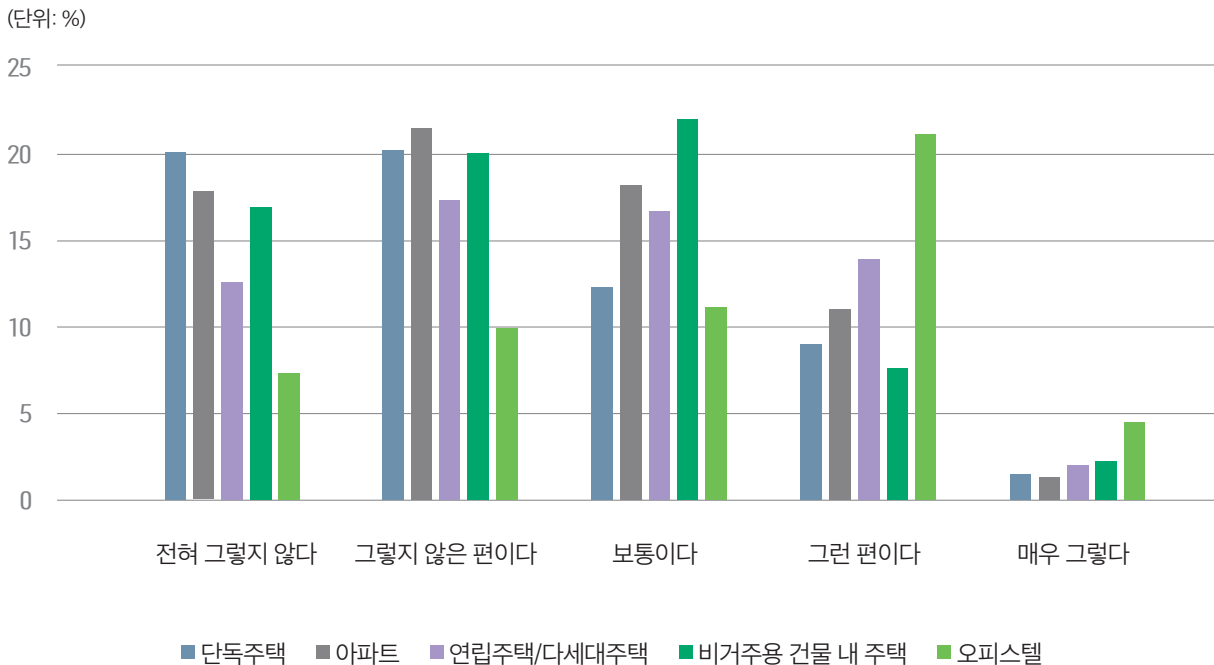
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전국범죄피해조사)(2020) 활용하여 연구진 재작성.

[표 25] 일상생활 중 범죄피해 두려움 정도 - 나 자신이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두렵다

	사례수	나 자신이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두렵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	%	%	%	%		
전체	13,772	34.2	32.8	21.4	10.5	1	100.0	
성별	남자	6,863	46.5	34.7	14.3	4	0.5	100.0
	여자	6,909	22	30.9	28.5	17.1	1.4	100.0
연령별	10대	1,009	27.2	29.8	28.1	13	1.9	100.0
	20대	2,140	34.3	31	20.1	13.1	1.5	100.0
	30대	2,172	33.8	33.9	20.5	10.5	1.4	100.0
	40대	2,452	33.2	32.5	23.8	9.4	1.2	100.0
	50대	2,590	34.6	33.1	21.5	10.1	0.7	100.0
	60대	1,868	36.3	33.7	20.1	9.7	0.2	100.0
	70대 이상	1,540	38	34.8	17.8	9.2	0.3	100.0
가구 전체 소득	100만원 미만	802	39.9	31.1	18.4	9.8	0.8	100.0
	100~200만원 미만	1,124	37.4	33.1	17.7	11.4	0.4	100.0
	200~300만원 미만	2,071	36	31.7	20.8	10.9	0.6	100.0
	300~400만원 미만	2,711	36.3	31.2	20.1	11.2	1.2	100.0
	400~500만원 미만	2,789	31.8	32	24.2	11.4	0.6	100.0
	500~600만원 미만	2,010	30.3	34.5	23.9	9.8	1.4	100.0
	600~700만원 미만	1,282	32	37.2	19.8	9.2	1.8	100.0
	700~1,000만원 미만	750	31.7	35.6	23.5	8.7	0.5	100.0
1,000만원 이상	232	42.8	27.8	17.3	8.9	3.3	100.0	
주택 유형	단독주택	2,650	41.1	32.4	15.5	10.5	0.4	100.0
	아파트	7,659	33.8	33.8	23	8.8	0.5	100.0
	연립주택/다세대주택	2,902	29.8	31.4	22.3	14.5	2	100.0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170	31.1	33.5	23.1	12.4	0	100.0
	오피스텔	376	30.7	26.9	20.9	14.7	6.8	100.0
	기타	15	10.4	27.2	50.9	0	11.5	100.0
도시 규모	서울시	2,598	19.4	34.5	26.1	17.6	2.4	100.0
	광역시	3,406	39.7	30.3	20.3	9.3	0.4	100.0
	중소도시	5,484	35.6	33.9	21.4	8.3	0.8	100.0
	읍면지역	2,284	39.6	32.3	17.6	9.7	0.8	100.0

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전국범죄피해조사)(2020) 활용하여 연구진 재작성.

오피스텔 거주자는 배우자(애인)가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두렵다는 응답이 25.6%로 모든 주택 유형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인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에 대한 범죄 두려움 역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립/다세대주택 거주자는 15.9%로 두 번째로 높은 두려움 비율을 보였으며, 이는 주거 환경 취약성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단독주택 거주자(10.5%)와 아파트 거주자(12.3%)는 상대적으로 두려움 비율이 낮아, 거주 환경의 안정성이 가족의 안전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55] 주택유형별 일상생활 중 범죄피해 두려움 정도 - 배우자(애인)가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두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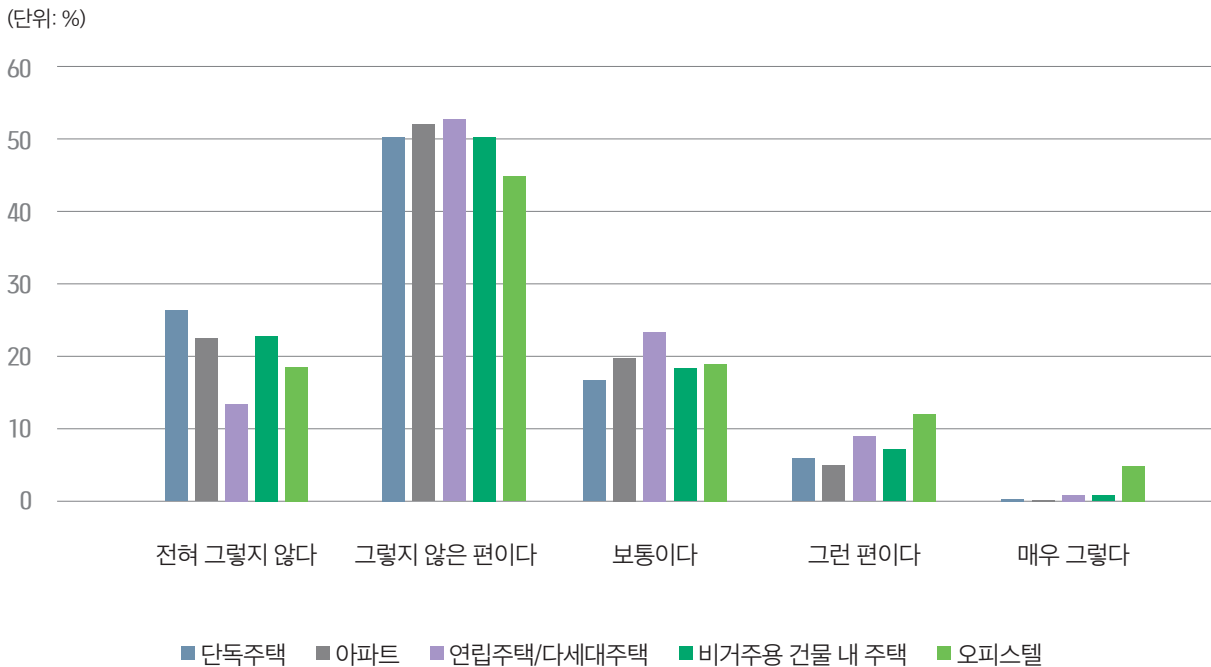
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전국범죄피해조사)(2020) 활용하여 연구진 재작성.

[표 26] 일상생활 중 범죄피해 두려움 정도 - 배우자(애인)가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두렵다

	사례수	배우자(애인)가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두렵다						계	
		해당자 없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	%	%	%	%	%		
전체	13,772	33.5	16.8	20.0	16.6	11.4	1.6	100.0	
성별	남자	6,863	32.1	15.2	17.1	17.8	15.7	2.2	100.0
	여자	6,909	35.0	18.5	22.9	15.5	7.2	1	100.0
연령별	10대	1,009	79.1	4.9	7.5	6.2	2.3	0	100.0
	20대	2,140	66.5	8.8	9.8	7.4	6.5	1.1	100.0
	30대	2,172	28.0	17.1	20.2	20.0	12.2	2.5	100.0
	40대	2,452	16.2	18.8	25.4	20.8	16.0	2.7	100.0
	50대	2,590	15.5	21.3	25.9	21.7	13.9	1.7	100.0
	60대	1,868	19.8	22.2	23.7	19.3	13.9	1.2	100.0
	70대 이상	1,540	40.2	18.3	19.1	13.0	9.0	0.5	100.0
가구 전체 소득	100만원 미만	802	60.7	13.2	13.9	7.7	3.8	0.6	100.0
	100~200만원 미만	1,124	42.9	17.7	19.7	11.4	7.6	0.7	100.0
	200~300만원 미만	2,071	60.7	16.9	17.9	16.8	9.8	0.9	100.0
	300~400만원 미만	2,711	42.9	19.6	20.5	19.1	12.7	1.9	100.0
	400~500만원 미만	2,789	37.8	18.0	19.7	17.8	13.1	2	100.0
	500~600만원 미만	2,010	26.2	14.9	23.3	18.9	14.0	1.6	100.0
	600~700만원 미만	1,282	35.1	15.2	20.2	16.0	11.6	1.9	100.0
	700~1,000만원 미만	750	35.6	13	22.7	14.7	12.0	1.9	100.0
1,000만원 이상	232	31.0	16.4	20.2	17.7	12.6	2	100.0	
주택 유형	단독주택	2,650	36.9	20.1	20.2	12.3	9.0	1.5	100.0
	아파트	7,659	30.3	17.8	21.5	18.2	11.0	1.3	100.0
	연립주택/다세대주택	2,902	37.5	12.6	17.3	16.7	13.9	2.0	100.0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170	31.2	16.9	20.0	22.0	7.6	2.2	100.0
	오피스텔	376	46.0	7.3	9.9	11.1	21.1	4.5	100.0
	기타	15	56.6	0.0	0.0	25.2	18.3	0.0	100.0
도시 규모	서울시	2,598	32.0	10.6	18.7	19.8	16.9	1.9	100.0
	광역시	3,406	34.9	19.2	19.2	15.1	9.5	2.0	100.0
	중소도시	5,484	33.1	16.8	21.4	16.6	10.8	1.3	100.0
	읍면지역	2,284	34.3	20.5	19.1	15.2	9.7	1.1	100.0

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전국범죄피해조사)(2020) 활용하여 연구진 재작성.

자녀가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두렵다는 응답은 연립/다세대주택 거주자가 24.2%로 모든 주택 유형 중 가장 높게 나타나, 자녀의 안전에 대한 높은 우려를 반영하였다. 다음으로 단독주택 거주자가 21.1%로 높은 두려움 수준을 보였다. 반면, 오피스텔 거주자는 앞선 항목들과 달리 15.6%로 상대적으로 낮은 두려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오피스텔 거주 유형의 특성상 자녀가 없는 가구가 많아 '해당 없음' 응답 비율(75.9%)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아파트 거주자는 21.2%가 두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여, 주거 유형에 관계없이 자녀의 안전에 대한 우려는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56] 주택유형별 일상생활 중 범죄피해 두려움 정도 - 자녀가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두렵다

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전국범죄피해조사)(2020) 활용하여 연구진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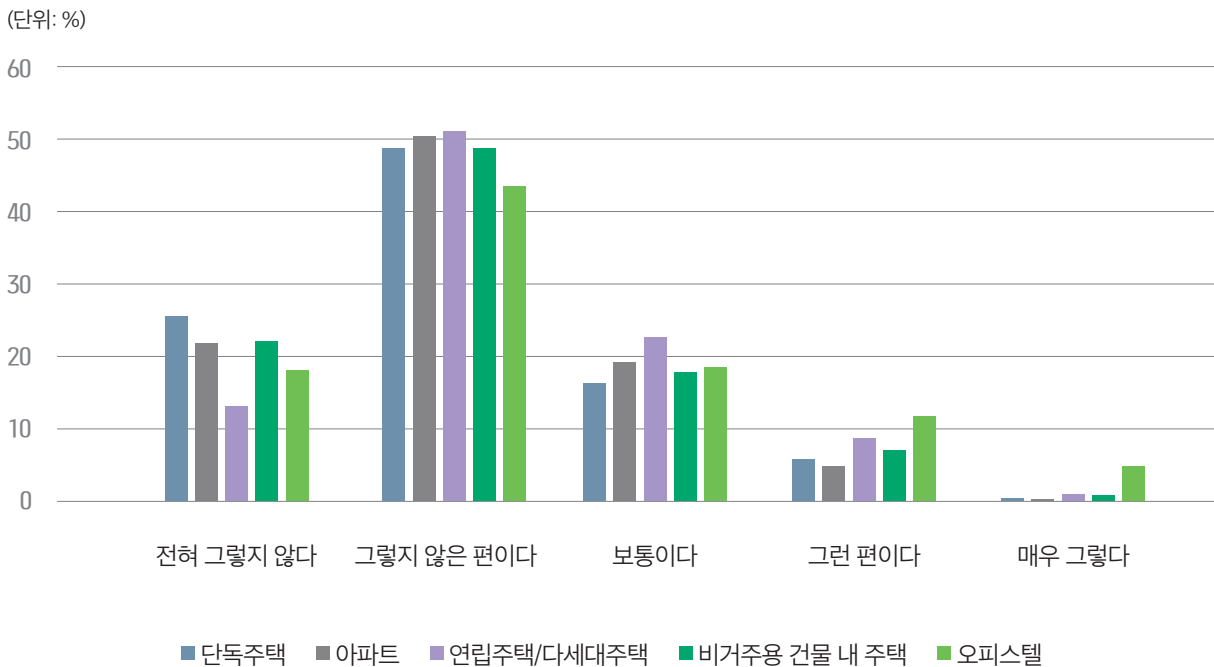
[표 27] 일상생활 중 범죄피해 두려움 정도 - 자녀가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두렵다

	사례수	자녀가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두렵다						계	
		해당자 없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	%	%	%	%	%		
전체	13,772	42.3	9.9	11.8	14.4	17.0	4.5	100.0	
성별	남자	6,863	45.5	10.3	11.5	13.8	15.0	3.8	100.0
	여자	6,909	39.1	9.5	12.1	15.0	19.1	5.2	100.0
연령별	10대	1,009	99.7	0.0	0.1	0.2	0.0	0.0	100.0
	20대	2,140	94.3	0.4	0.9	1.4	1.3	0.7	100.0
	30대	2,172	53.1	6.5	8.9	10.7	15.0	5.9	100.0
	40대	2,452	21.2	10.8	14.1	18.0	27.5	8.4	100.0
	50대	2,590	15.0	14.1	18.3	22.5	24.4	5.7	100.0
	60대	1,868	19.2	17.0	17.1	20.6	22.3	3.7	100.0
	70대 이상	1,540	24.8	16.2	17.7	20.6	17.3	3.4	100.0
가구 전체 소득	100만원 미만	802	42.7	13.1	13.1	14.3	13.0	3.7	100.0
	100~200만원 미만	1,124	40.2	12.8	14.8	15.9	13.7	2.6	100.0
	200~300만원 미만	2,071	47.7	9.8	10.6	13.6	14.8	3.5	100.0
	300~400만원 미만	2,711	39.0	11.9	11.9	14.6	17.3	5.3	100.0
	400~500만원 미만	2,789	39.9	8.5	10.9	15.1	19.8	5.8	100.0
	500~600만원 미만	2,010	42.3	9.2	11.8	14.3	17.6	4.8	100.0
	600~700만원 미만	1,282	44.8	8.7	11.2	14.2	16.5	4.6	100.0
	700~1,000만원 미만	750	45.6	5.5	14.2	12.6	19.3	2.9	100.0
1,000만원 이상	232	45.9	8.8	7.5	13.4	21.7	2.8	100.0	
주택 유형	단독주택	2,650	38.3	13.2	14.1	13.4	16.3	4.8	100.0
	아파트	7,659	39.4	10.6	12.1	16.7	16.8	4.4	100.0
	연립주택/다세대주택	2,902	49.0	6.3	10.1	10.2	19.4	4.8	100.0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170	42.5	14.6	11.4	18.7	11.3	1.6	100.0
	오피스텔	376	75.9	0.3	2.2	6.0	12.7	2.9	100.0
	기타	15	100.0	0.0	0.0	0.0	0.0	0.0	100.0
도시 규모	서울시	2,598	46.5	4.3	12.4	12.4	20.8	3.6	100.0
	광역시	3,406	42.0	11.3	10.8	16.1	14.4	5.5	100.0
	중소도시	5,484	43.8	10.5	11.2	13.4	17.1	4.0	100.0
	읍면지역	2,284	34.4	12.9	14.1	16.7	16.5	5.3	100.0

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전국범죄피해조사)(2020) 활용하여 연구진 재작성.

3) 범죄피해 유형별 두려움 정도

‘누군가 몰래 내 돈이나 물건을 훔쳐갈까 봐 두렵다’는 재산 피해 두려움 인식은 오피스텔 거주자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두렵다’는 응답 비율은 17.0%에 달했다. 특히 오피스텔 거주자 중 4.9%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다른 주택 유형 대비 높은 수준의 재산 범죄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연립/다세대주택 거주자가 9.9%로 높은 두려움 인식을 보였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보안 환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아파트 거주자는 5.2%, 단독주택 거주자는 6.2%만이 두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여, 아파트 거주자의 재산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주택 유형 중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57] 주택유형별 범죄피해 유형별 두려움 정도 - 누군가 몰래 내 돈이나 물건을 훔쳐갈까 봐 두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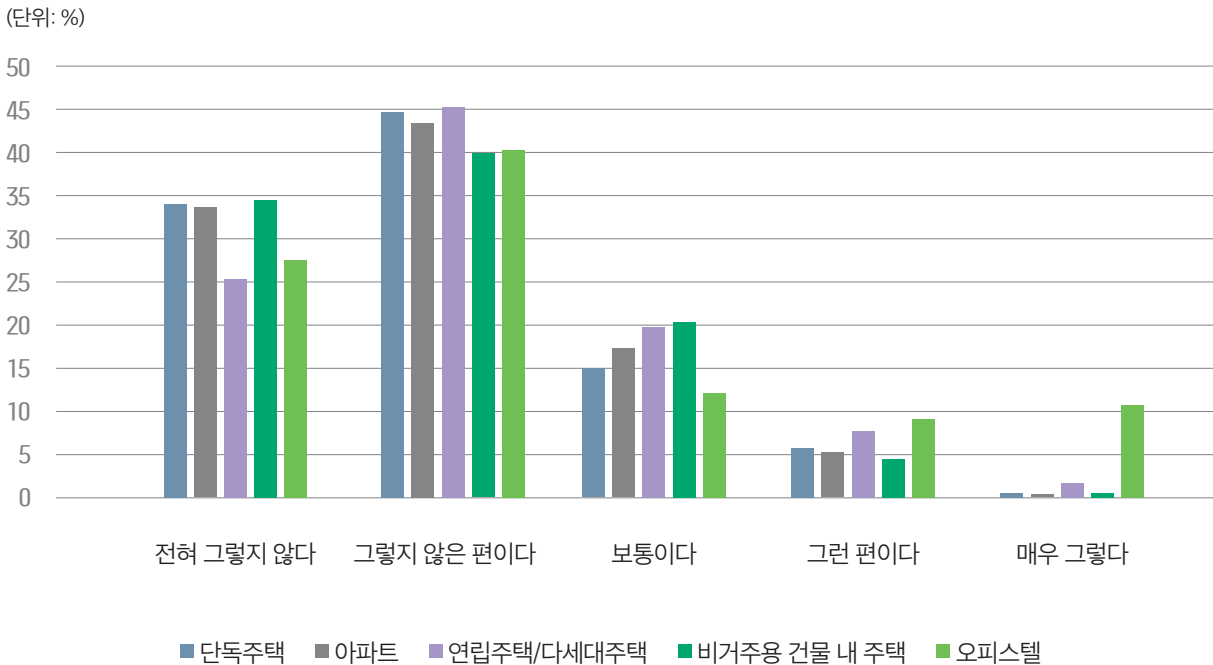
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전국범죄피해조사)(2020) 활용하여 연구진 재작성.

[표 28] 범죄피해 유형별 두려움 정도 - 누군가 몰래 내 돈이나 물건을 훔쳐갈까 봐 두렵다

	사례수	누군가 몰래 내 돈이나 물건을 훔쳐갈까 봐 두렵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	%	%	%	%		
전체	13,772	21.3	51.9	20.0	6.2	0.5	100.0	
성별	남자	6,863	25.6	52.3	17.1	4.7	0.4	100.0
	여자	6,909	17.1	51.6	23.0	7.8	0.6	100.0
연령별	10대	1,009	19.8	50.6	19.3	9.3	1.0	100.0
	20대	2,140	21.4	50.1	22.2	6.7	0.4	100.0
	30대	2,172	21.4	53.8	19.2	5.0	0.7	100.0
	40대	2,452	19.8	52.9	20.9	5.8	0.6	100.0
	50대	2,590	22.0	50.8	20.6	6.3	0.4	100.0
	60대	1,868	20.8	53.6	19.6	5.6	0.4	100.0
	70대 이상	1,540	25.2	51.3	16.9	6.5	0.2	100.0
	가구 전체 소득	100만원 미만	802	24.5	52.0	17.4	6.1	0.0
	100~200만원 미만	1,124	24.4	48.3	18.9	8.2	0.2	100.0
	200~300만원 미만	2,071	22.3	52.9	19.9	4.7	0.2	100.0
	300~400만원 미만	2,711	21.8	50.4	19.9	7.2	0.7	100.0
	400~500만원 미만	2,789	19.3	54.0	20.3	6.0	0.3	100.0
	500~600만원 미만	2,010	20.4	49.4	22.5	6.8	0.9	100.0
	600~700만원 미만	1,282	22.6	50.6	19.9	6.0	0.9	100.0
	700~1,000만원 미만	750	18.2	60.3	18.0	3.3	0.1	100.0
	1,000만원 이상	232	15.9	55.9	19.3	6.9	1.9	100.0
주택 유형	단독주택	2,650	26.5	50.6	16.8	5.9	0.3	100.0
	아파트	7,659	22.6	52.3	19.9	5.0	0.2	100.0
	연립주택/다세대주택	2,902	13.5	53.0	23.5	9.0	0.9	100.0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170	22.9	50.6	18.4	7.2	0.8	100.0
	오피스텔	376	18.7	45.1	19.1	12.1	4.9	100.0
	기타	15	0.0	70.2	29.8	0.0	0.0	100.0
도시 규모	서울시	2,598	8.2	50.1	27.2	12.9	1.6	100.0
	광역시	3,406	22.9	50.1	21.6	5.3	0.0	100.0
	중소도시	5,484	23.3	54.3	17.7	4.6	0.2	100.0
	읍면지역	2,284	29.2	51.1	15.1	4.0	0.6	100.0

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전국범죄피해조사)(2020) 활용하여 연구진 재작성.

‘누군가 강제로 내 돈이나 물건을 빼앗아갈까 봐 두렵다’는 강도 피해 두려움 인식 역시 오피스텔 거주자에게서 19.8%로 주택 유형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특히 ‘매우 그렇다’는 응답 비율(10.7%)이 다른 주택 유형과 비교할 때 현저히 높아, 강제적인 물리적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큰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연립/다세대주택 거주자가 9.4%로 두 번째로 높은 두려움 인식을 보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아파트 거주자는 5.5%, 단독주택 거주자는 6.2%만이 두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여, 아파트와 단독주택 거주자들이 강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58] 주택유형별 범죄피해 유형별 두려움 정도 - 누군가 강제로 내 돈이나 물건을 훔쳐갈까 봐 두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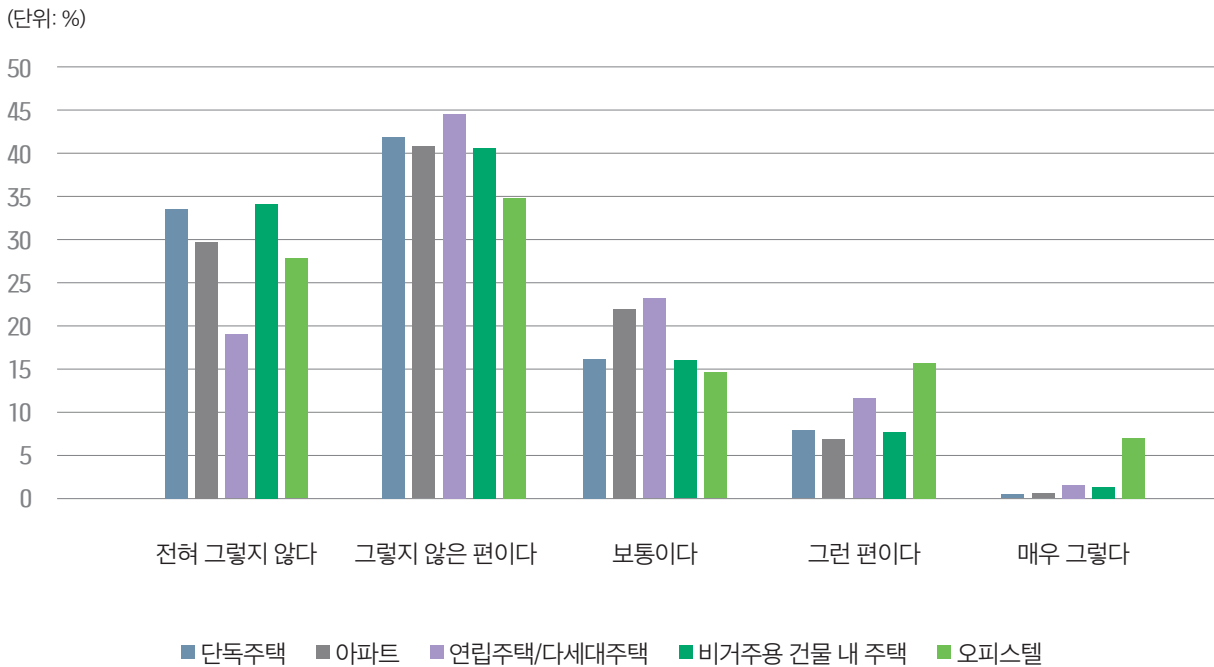
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전국범죄피해조사)(2020) 활용하여 연구진 재작성.

[표 29] 범죄피해 유형별 두려움 정도 - 누군가 강제로 내 돈이나 물건을 훔쳐갈까 봐 두렵다

	사례수	누군가 강제로 내 돈이나 물건을 훔쳐갈까 봐 두렵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	%	%	%	%		
전체	13,772	31.8	44.1	17.3	5.9	0.9	100.0	
성별	남자	6,863	37.0	42.8	15.5	3.9	0.8	100.0
	여자	6,909	26.8	45.3	19.0	8.0	1.0	100.0
연령별	10대	1,009	28.0	40.5	20.9	8.4	2.2	100.0
	20대	2,140	33.1	41.6	18.0	6.4	0.9	100.0
	30대	2,172	33.3	44.6	15.4	5.3	1.4	100.0
	40대	2,452	31.6	44.3	17.8	5.3	1.0	100.0
	50대	2,590	32.9	44.3	16.2	6.1	0.4	100.0
	60대	1,868	30.1	46.4	18.6	4.6	0.4	100.0
	70대 이상	1,540	31.3	45.4	15.6	7.0	0.7	100.0
	가구 전체 소득	100만원 미만	802	29.1	47.8	14.9	7.9	0.2
	100~200만원 미만	1,124	32.3	43.9	16.7	6.7	0.5	100.0
	200~300만원 미만	2,071	32.7	45.8	16.7	4.6	0.3	100.0
	300~400만원 미만	2,711	32.6	41.5	18.0	7.0	0.9	100.0
	400~500만원 미만	2,789	31.8	44.0	17.8	5.8	0.6	100.0
	500~600만원 미만	2,010	29.9	44.3	18.3	5.7	1.8	100.0
	600~700만원 미만	1,282	33.0	43.1	16.9	5.2	1.7	100.0
	700~1,000만원 미만	750	32.7	45.3	15.9	5.6	0.6	100.0
	1,000만원 이상	232	30.6	46.2	14.8	4.8	3.6	100.0
주택 유형	단독주택	2,650	34.1	44.8	15.0	5.7	0.5	100.0
	아파트	7,659	33.7	43.5	17.3	5.2	0.3	100.0
	연립주택/다세대주택	2,902	25.4	45.4	19.8	7.7	1.7	100.0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170	34.6	40.0	20.4	4.4	0.5	100.0
	오피스텔	376	27.6	40.4	12.1	9.1	10.7	100.0
	기타	15	7.5	62.7	0.0	29.8	0.0	100.0
도시 규모	서울시	2,598	18.0	41.5	24.6	12.7	3.1	100.0
	광역시	3,406	35.8	41.2	19.0	3.9	0.2	100.0
	중소도시	5,484	33.2	46.7	14.8	4.9	0.4	100.0
	읍면지역	2,284	38.3	44.9	12.2	3.7	0.8	100.0

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전국범죄피해조사)(2020) 활용하여 연구진 재작성.

‘누군가 나를 구타(폭행)하여 다치게 할까 봐 두렵다’는 폭행 피해 두려움 인식도 오피스텔 거주자에게서 22.7%로 주택 유형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오피스텔 거주자들이 물리적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전반적으로 높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연립/다세대주택 거주자가 13.1%로 두 번째로 높은 두려움 인식을 보였다. 반면, 아파트 거주자는 7.3%, 단독주택 거주자는 8.3%만이 폭행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여, 주거 환경이 안정적일수록 물리적 피해에 대한 주관적 두려움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오피스텔 거주자는 재산, 강도, 폭행 등 주요 범죄 유형에서 가장 높은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59] 주택유형별 범죄피해 유형별 두려움 정도 - 누군가 나를 구타(폭행)하여 다치게 할까 봐 두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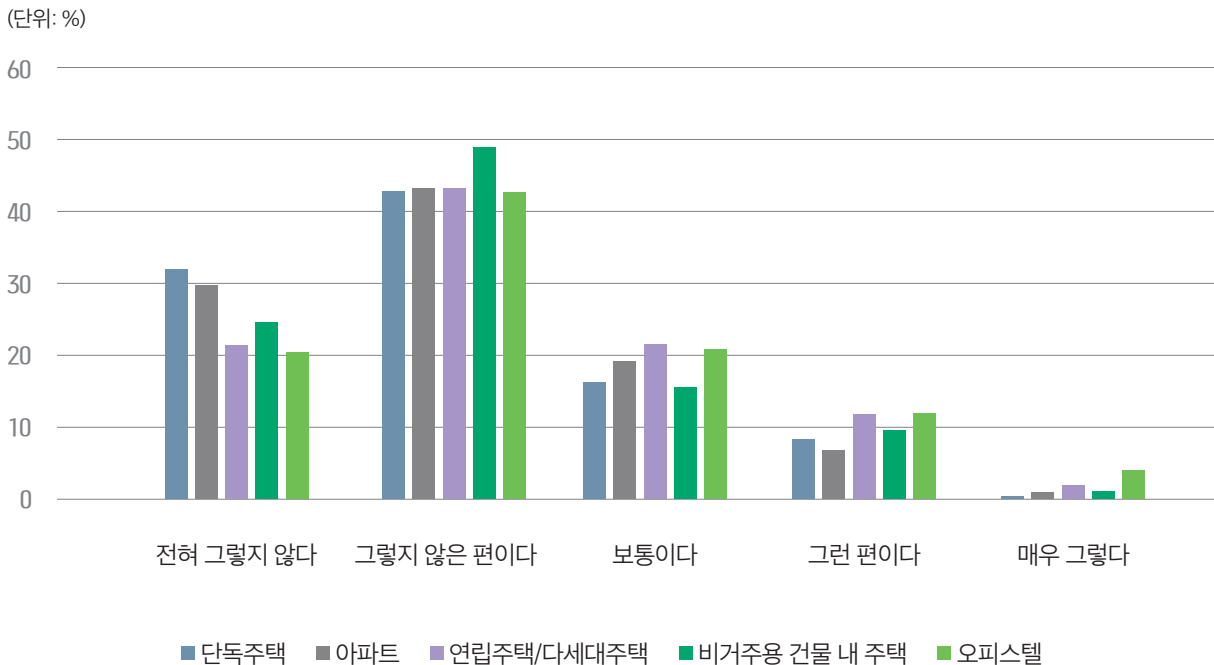
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전국범죄피해조사)(2020) 활용하여 연구진 재작성.

[표 30] 범죄피해 유형별 두려움 정도 - 누군가 나를 구타(폭행)하여 다치게 할까 봐 두렵다

		누군가 나를 구타(폭행)하여 다치게 할까 봐 두렵다						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
			%	%	%	%	%		
전체		13,772	28.3	41.7	20.8	8.3	0.9	100.0	
성별	남자	6,863	33.2	42.6	17.9	5.6	0.6	100.0	
	여자	6,909	23.3	40.8	23.7	11.0	1.1	100.0	
연령별	10대	1,009	25.7	38.7	23.6	8.6	3.4	100.0	
	20대	2,140	26.5	39.9	21.7	11.0	0.9	100.0	
	30대	2,172	29.6	41.7	19.6	7.8	1.3	100.0	
	40대	2,452	27.8	41.4	21.8	8.1	1.0	100.0	
	50대	2,590	28.3	43.3	20.6	7.6	0.2	100.0	
	60대	1,868	28.2	42.3	21.6	7.6	0.3	100.0	
	70대 이상	1,540	31.2	43.4	17.7	7.5	0.2	100.0	
가구 전체 소득	100만원 미만	802	33.0	42.4	16.3	8.3	0.0	100.0	
	100~200만원 미만	1,124	30.4	42.5	17.6	9.1	0.4	100.0	
	200~300만원 미만	2,071	28.8	45.0	18.5	7.3	0.3	100.0	
	300~400만원 미만	2,711	28.8	41.4	21.1	7.7	1.1	100.0	
	400~500만원 미만	2,789	28.8	41.2	21.3	8.0	0.6	100.0	
	500~600만원 미만	2,010	26.7	40.0	22.6	9.1	1.5	100.0	
	600~700만원 미만	1,282	27.1	38.2	22.8	10.7	1.3	100.0	
	700~1,000만원 미만	750	22.8	42.5	27.2	6.7	0.8	100.0	
1,000만원 이상	232	21.0	48.3	18.1	9.0	3.6	100.0		
주택 유형	단독주택	2,650	33.6	42.0	16.2	7.9	0.4	100.0	
	아파트	7,659	29.8	40.9	22.0	6.8	0.5	100.0	
	연립주택/다세대주택	2,902	19.0	44.7	23.2	11.6	1.5	100.0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170	34.2	40.7	16.0	7.7	1.3	100.0	
	오피스텔	376	27.9	34.9	14.6	15.7	7.0	100.0	
	기타	15	34.7	35.5	18.3	11.5	0.0	100.0	
도시 규모	서울시	2,598	11.5	37.5	31.1	17.4	2.4	100.0	
	광역시	3,406	32.7	40.9	20.4	5.6	0.3	100.0	
	중소도시	5,484	30.3	42.9	19.2	7.1	0.6	100.0	
	읍면지역	2,284	35.8	44.9	13.8	4.8	0.6	100.0	

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전국범죄피해조사)(2020) 활용하여 연구진 재작성.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해 내 재산을 잃을까 봐 두렵다’는 사기 피해 두려움 인식도 오피스텔 거주자가 1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그렇다’는 응답 비율(3.9%)도 가장 높았다. 이는 오피스텔 거주자들이 재산상 사기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연립/다세대주택 거주자가 13.7%로 뒤를 이었으며, 이는 연립/다세대주택 거주자들이 다양한 유형의 범죄에 취약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아파트 거주자는 7.8%, 단독주택 거주자는 8.7%만이 사기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여, 아파트 및 단독주택 거주자들이 사기 피해에 대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60] 주택유형별 범죄피해 유형별 두려움 정도 -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해 내 재산을 잃을까 봐 두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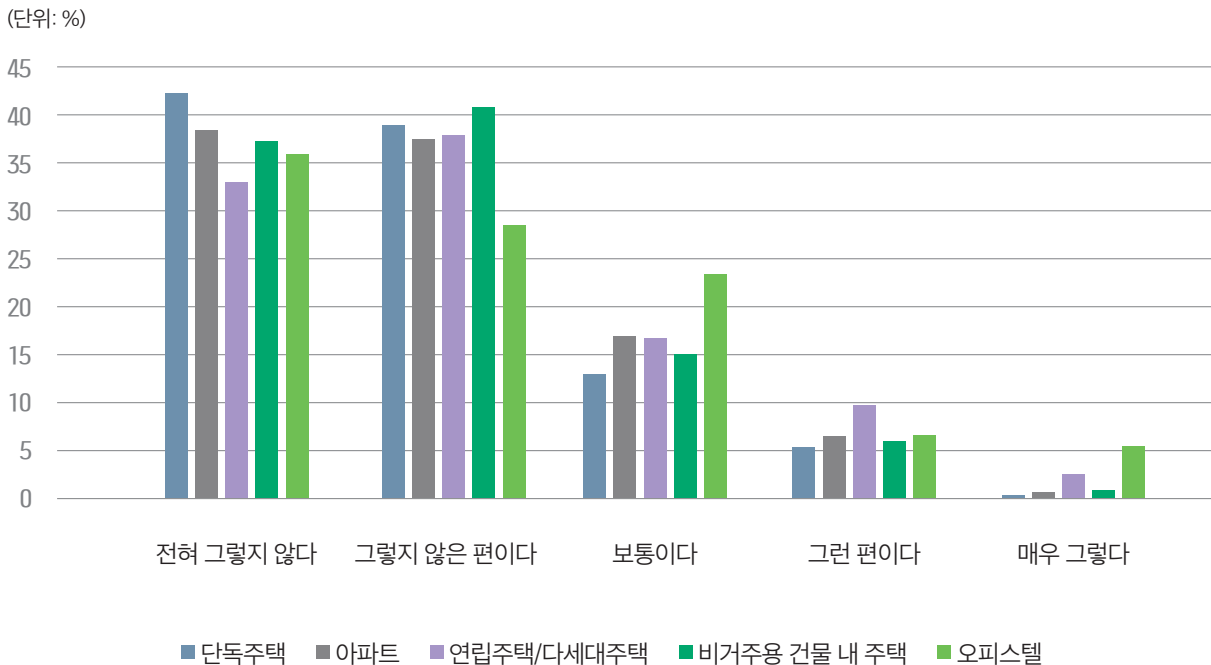
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전국범죄피해조사)(2020) 활용하여 연구진 재작성.

[표 31] 범죄피해 유형별 두려움 정도 -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해 내 재산을 잃을까 봐 두렵다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해 내 재산을 잃을까 봐 두렵다						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	%	%	%	%	
전체		13,772	28.1	43.3	19.2	8.3	1.2	100.0
성별	남자	6,863	32.7	43.4	16.4	6.7	0.8	100.0
	여자	6,909	23.5	43.1	22.0	9.8	1.5	100.0
연령별	10대	1,009	29.4	44.5	18.2	6.2	1.5	100.0
	20대	2,140	30.1	42.0	19.7	7.5	0.7	100.0
	30대	2,172	27.9	43.3	19.6	7.7	1.5	100.0
	40대	2,452	26.5	43.0	19.8	10.0	0.6	100.0
	50대	2,590	28.1	43.9	19.7	7.7	0.8	100.0
	60대	1,868	26.2	46.1	17.9	8.7	1.2	100.0
	70대 이상	1,540	29.5	40.1	18.5	9.4	2.5	100.0
가구 전체 소득	100만원 미만	802	31.7	39.3	15.1	10.7	3.2	100.0
	100~200만원 미만	1,124	29.1	38.6	21.5	9.1	1.6	100.0
	200~300만원 미만	2,071	26.5	45.6	20.0	6.9	0.9	100.0
	300~400만원 미만	2,711	27.8	43.2	19.6	8.2	1.2	100.0
	400~500만원 미만	2,789	28.6	43.6	19.9	7.4	0.5	100.0
	500~600만원 미만	2,010	26.4	42.8	20.9	8.6	1.3	100.0
	600~700만원 미만	1,282	29.6	43.4	16.2	9.8	1.0	100.0
	700~1,000만원 미만	750	28.0	49.5	16.5	5.4	0.6	100.0
	1,000만원 이상	232	28.1	39.2	13.1	17.3	2.2	100.0
주택 유형	단독주택	2,650	32.0	43.0	16.3	8.3	0.4	100.0
	아파트	7,659	29.8	43.3	19.2	6.8	1.0	100.0
	연립주택/다세대주택	2,902	21.5	43.3	21.6	11.8	1.9	100.0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170	24.6	49.1	15.6	9.6	1.1	100.0
	오피스텔	376	20.4	42.8	20.9	12.0	3.9	100.0
	기타	15	10.4	34.7	43.4	0.0	11.5	100.0
도시 규모	서울시	2,598	15.3	38.3	26.6	16.2	3.6	100.0
	광역시	3,406	29.7	41.5	22.0	6.4	0.3	100.0
	중소도시	5,484	30.5	47.3	15.6	6.0	0.6	100.0
	읍면지역	2,284	34.4	42.0	15.2	7.5	1.0	100.0

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전국범죄피해조사)(2020) 활용하여 연구진 재작성.

‘누군가 나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할까 봐 두렵다’는 성범죄 피해 두려움 인식은 연립/다세대주택 거주자가 12.2%로 주택 유형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립/다세대주택의 주거 환경 특성상 보안 취약성이 성범죄에 대한 높은 두려움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오피스텔 거주자가 12.0%로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으며, 오피스텔 거주자의 경우 ‘매우 그렇다’는 응답 비율(5.4%)이 모든 유형 중 가장 높아 성범죄에 대한 강한 우려를 보였다. 반면, 단독주택 거주자는 5.6%, 아파트 거주자는 7.0%만이 두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여, 단독주택 및 아파트 거주자가 성범죄에 대한 주관적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61] 주택유형별 범죄피해 유형별 두려움 정도 - 누군가 나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할까 봐 두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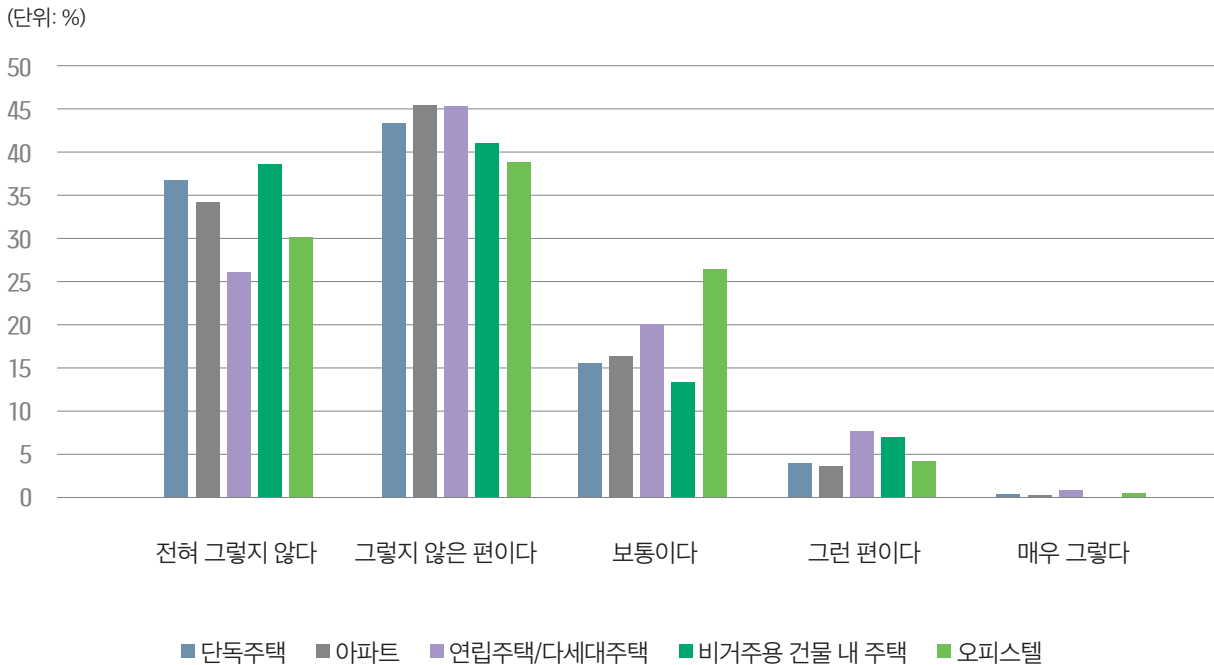
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전국범죄피해조사)(2020) 활용하여 연구진 재작성.

[표 32] 범죄피해 유형별 두려움 정도 - 누군가 나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할까 봐 두렵다

	사례수	누군가 나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할까 봐 두렵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	%	%	%	%		
전체	13,772	38.0	37.7	16.3	6.9	1.1	100.0	
성별	남자	6,863	51.4	36.1	9.5	2.6	0.3	100.0
	여자	6,909	24.7	39.4	23.0	11.1	1.8	100.0
연령별	10대	1,009	35.0	36.4	16.3	9.7	2.6	100.0
	20대	2,140	34.2	33.0	19.7	11.5	1.6	100.0
	30대	2,172	37.1	36.3	16.6	8.2	1.8	100.0
	40대	2,452	36.0	37.8	18.1	7.1	1.1	100.0
	50대	2,590	38.8	38.5	16.8	5.6	0.3	100.0
	60대	1,868	41.3	39.8	15.5	3.1	0.3	100.0
	70대 이상	1,540	44.7	43.3	8.3	3.5	0.3	100.0
가구 전체 소득	100만원 미만	802	43.1	44.1	10.0	2.7	0.2	100.0
	100~200만원 미만	1,124	42.2	39.7	13.3	3.9	0.9	100.0
	200~300만원 미만	2,071	37.6	40.8	15.4	5.8	0.5	100.0
	300~400만원 미만	2,711	37.7	36.9	17.7	6.6	1.1	100.0
	400~500만원 미만	2,789	35.6	39.1	17.1	7.4	0.8	100.0
	500~600만원 미만	2,010	37.2	35.2	17.4	8.2	2.1	100.0
	600~700만원 미만	1,282	38.8	31.9	18.0	9.5	1.7	100.0
	700~1,000만원 미만	750	38.8	34.5	17.6	8.8	0.4	100.0
1,000만원 이상	232	38.7	36.6	11.5	11.4	1.7	100.0	
주택 유형	단독주택	2,650	42.4	39.0	13.0	5.3	0.3	100.0
	아파트	7,659	38.5	37.5	16.9	6.4	0.6	100.0
	연립주택/다세대주택	2,902	33.1	38.0	16.7	9.7	2.5	100.0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170	37.4	40.9	15.0	5.9	0.8	100.0
	오피스텔	376	36.0	28.6	23.4	6.6	5.4	100.0
	기타	15	10.4	52.4	25.8	11.5	0.0	100.0
도시 규모	서울시	2,598	27.7	32.3	23.2	13.2	3.6	100.0
	광역시	3,406	40.6	38.9	15.8	4.5	0.2	100.0
	중소도시	5,484	39.1	38.4	15.5	6.4	0.5	100.0
	읍면지역	2,284	43.5	40.4	10.9	4.5	0.7	100.0

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전국범죄피해조사)(2020) 활용하여 연구진 재작성.

‘누군가 내 물건이나 재산을 부수거나 못쓰게 할까 봐 두렵다’는 재물손괴 피해 두려움 인식도 연립/다세대주택 거주자에게서 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립/다세대주택의 경우 외부 침입이나 시설물 관리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오피스텔 거주자가 4.5%로 높은 두려움 인식을 보였는데, 이는 오피스텔 거주자들이 재산 및 물리적 피해 전반에 걸쳐 높은 우려를 가지고 있는 기존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반면, 단독주택 거주자는 4.2%, 아파트 거주자는 3.8%만이 재물손괴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여, 아파트 및 단독주택 거주자의 두려움이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62] 범죄피해 유형별 두려움 정도 - 누군가 내 물건이나 재산을 부수거나 못쓰게 할까 봐 두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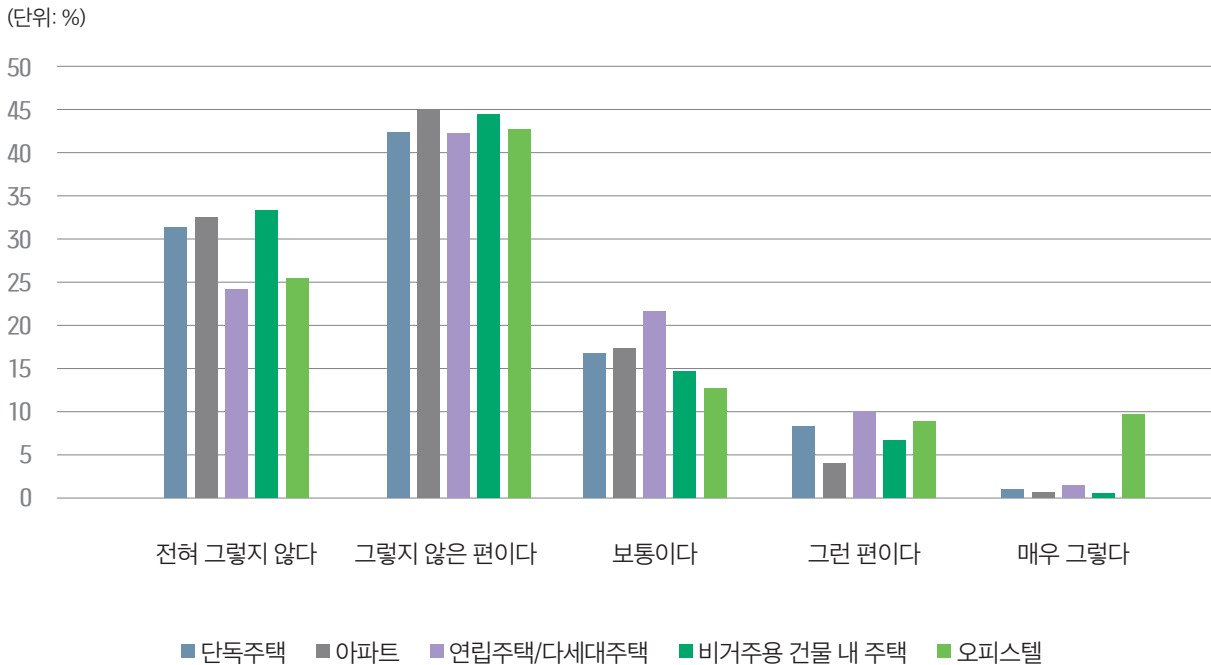
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전국범죄피해조사)(2020) 활용하여 연구진 재작성.

[표 33] 범죄피해 유형별 두려움 정도 - 누군가 내 물건이나 재산을 부수거나 못쓰게 할까 봐 두렵다

	사례수	누군가 내 물건이나 재산을 부수거나 못쓰게 할까 봐 두렵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	%	%	%	%		
전체	13,772	33.0	44.9	17.2	4.6	0.4	100.0	
성별	남자	6,863	38.5	43.5	14.3	3.3	0.3	100.0
	여자	6,909	27.5	46.2	20.1	5.8	0.4	100.0
연령별	10대	1,009	30.9	45.7	17.8	4.1	1.3	100.0
	20대	2,140	31.7	44.3	18.9	4.7	0.3	100.0
	30대	2,172	32.6	45.9	16.5	4.6	0.4	100.0
	40대	2,452	32.4	43.8	18.4	5.1	0.3	100.0
	50대	2,590	32.9	44.8	17.8	4.4	0.1	100.0
	60대	1,868	33.5	45.9	16.7	3.8	0.2	100.0
	70대 이상	1,540	37.0	44.2	13.4	5.1	0.3	100.0
가구 전체 소득	100만원 미만	802	34.0	45.4	16.1	4.4	0.1	100.0
	100~200만원 미만	1,124	36.2	43.7	14.7	5.2	0.1	100.0
	200~300만원 미만	2,071	33.1	45.5	17.1	4.0	0.2	100.0
	300~400만원 미만	2,711	33.3	43.5	17.8	4.7	0.7	100.0
	400~500만원 미만	2,789	32.4	44.7	17.4	5.2	0.3	100.0
	500~600만원 미만	2,010	31.2	44.6	18.9	4.9	0.4	100.0
	600~700만원 미만	1,282	34.1	43.9	16.4	5.0	0.6	100.0
	700~1,000만원 미만	750	31.6	49.2	17.4	1.7	0.1	100.0
	1,000만원 이상	232	28.8	53.3	15.2	2.7	0.0	100.0
주택 유형	단독주택	2,650	36.8	43.5	15.5	3.9	0.3	100.0
	아파트	7,659	34.3	45.5	16.3	3.6	0.2	100.0
	연립주택/다세대주택	2,902	26.1	45.4	20.1	7.6	0.8	100.0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170	38.7	41.1	13.3	6.9	0.0	100.0
	오피스텔	376	30.2	38.9	26.5	4.1	0.4	100.0
	기타	15	0.0	45.1	36.6	18.3	0.0	100.0
도시 규모	서울시	2,598	18.2	43.1	28.8	9.2	0.7	100.0
	광역시	3,406	36.0	42.9	17.0	4.0	0.1	100.0
	중소도시	5,484	35.6	46.8	14.0	3.3	0.3	100.0
	읍면지역	2,284	39.2	45.0	12.1	3.3	0.5	100.0

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전국범죄피해조사)(2020) 활용하여 연구진 재작성.

‘누군가 내 집에 침입할까 봐 두렵다’는 주거침입 피해 두려움 인식은 오피스텔 거주자에게서 18.7%로 모든 주택 유형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오피스텔 거주자들이 주거 보안에 대해 가장 큰 우려를 가지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다음으로 연립/다세대주택 거주자가 11.6%로 높은 두려움 인식을 보였으며, 이는 보안 시스템이 취약한 주거 형태에서 주거침입에 대한 두려움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시사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아파트 거주자는 4.7%만이 두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여, 주거침입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독주택 거주자는 9.3%로 아파트 거주자보다는 높았으나, 오피스텔 거주자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63] 주택유형별 범죄피해 유형별 두려움 정도 - 누군가 내 집에 침입할까 봐 두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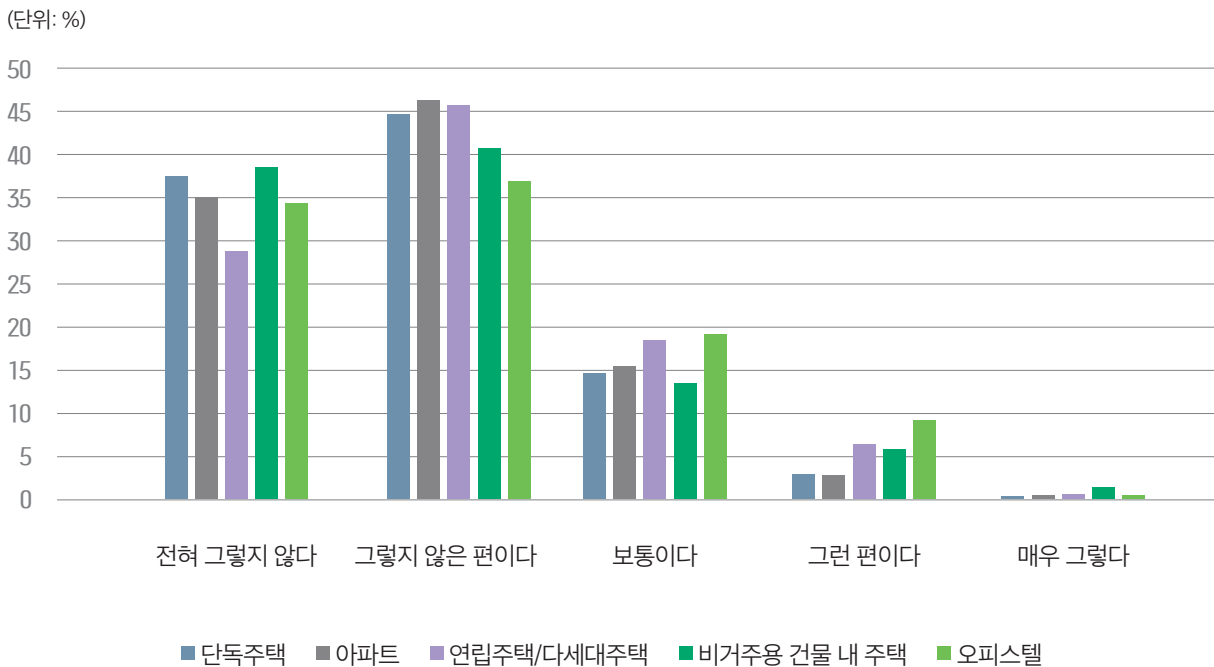
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전국범죄피해조사)(2020) 활용하여 연구진 재작성.

[표 34] 범죄피해 유형별 두려움 정도 - 누군가 내 집에 침입할까 봐 두렵다

	사례수	누군가 내 집에 침입할까 봐 두렵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	%	%	%	%		
전체	13,772	30.5	44.0	18.1	6.3	1.2	100.0	
성별	남자	6,863	36.7	43.7	14.4	4.3	1.0	100.0
	여자	6,909	24.3	44.2	21.8	8.3	1.4	100.0
연령별	10대	1,009	30.6	44.3	18.0	5.2	1.9	100.0
	20대	2,140	32.7	39.3	20.2	6.7	1.2	100.0
	30대	2,172	30.4	43.5	18.3	6.0	1.8	100.0
	40대	2,452	29.3	44.5	18.4	6.3	1.5	100.0
	50대	2,590	30.0	45.2	18.9	5.3	0.7	100.0
	60대	1,868	29.5	46.5	17.0	6.0	0.9	100.0
	70대 이상	1,540	31.3	44.9	14.6	8.6	0.6	100.0
가구 전체 소득	100만원 미만	802	30.2	44.9	16.3	8.0	0.6	100.0
	100~200만원 미만	1,124	34.4	41.6	14.8	8.1	1.1	100.0
	200~300만원 미만	2,071	29.2	44.1	19.8	6.2	0.6	100.0
	300~400만원 미만	2,711	30.2	44.9	17.7	5.9	1.3	100.0
	400~500만원 미만	2,789	29.3	44.7	18.2	6.7	1.1	100.0
	500~600만원 미만	2,010	28.2	43.7	19.9	6.3	1.8	100.0
	600~700만원 미만	1,282	34.4	40.1	18.4	5.7	1.3	100.0
	700~1,000만원 미만	750	33.0	46.0	16.3	3.6	1.0	100.0
1,000만원 이상	232	31.9	46.3	16.3	2.8	2.7	100.0	
주택 유형	단독주택	2,650	31.5	42.5	16.8	8.3	1.0	100.0
	아파트	7,659	32.7	45.1	17.4	4.0	0.7	100.0
	연립주택/다세대주택	2,902	24.3	42.4	21.7	10.1	1.5	100.0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170	33.4	44.6	14.7	6.7	0.6	100.0
	오피스텔	376	25.6	42.9	12.8	8.9	9.7	100.0
	기타	15	0.0	35.5	53.0	0.0	11.5	100.0
도시 규모	서울시	2,598	16.2	42.6	26.6	11.6	2.9	100.0
	광역시	3,406	34.9	40.0	16.7	7.0	1.4	100.0
	중소도시	5,484	32.3	46.5	16.8	3.9	0.6	100.0
	읍면지역	2,284	35.9	45.1	13.5	5.0	0.5	100.0

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전국범죄피해조사)(2020) 활용하여 연구진 재작성.

‘누군가 나를 쫓아다니거나 전화 등으로 집요하게 괴롭힐까 봐 두렵다’는 스토킹/괴롭힘 피해 두려움 인식역시 오피스텔 거주자에게서 9.5%로 주택 유형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오피스텔 거주자들, 특히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거주자들의 경우 스토킹이나 괴롭힘 등 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 거주자가 7.2%로 두 번째로 높은 두려움 인식을 보였으며, 연립/다세대주택 거주자가 7.0%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단독주택 거주자(3.2%)와 아파트 거주자(3.1%)는 두려움을 느낀다는 응답 비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 주거 환경의 밀집도와 보안 수준이 스토킹/괴롭힘과 같은 관계형 범죄에 대한 주관적 안전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64] 주택유형별 범죄피해 유형별 두려움 정도 - 누군가 나를 쫓아다니거나 전화 등으로 집요하게 괴롭힐까 봐 두렵다

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전국범죄피해조사)(2020) 활용하여 연구진 재작성.

[표 35] 범죄피해 유형별 두려움 정도 - 누군가 나를 쫓아다니거나 전화 등으로 집요하게 괴롭힐까 봐 두렵다

	사례수	누군가 나를 쫓아다니거나 전화 등으로 집요하게 괴롭힐까 봐 두렵다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	%	%	%	%		
전체	13,772	34.2	45.6	16.0	3.7	0.4	100.0	
성별	남자	6,863	41.1	43.7	12.8	2.1	0.2	100.0
	여자	6,909	27.3	47.6	19.2	5.3	0.6	100.0
연령별	10대	1,009	30.6	43.9	19.6	4.8	1.0	100.0
	20대	2,140	33.6	43.4	17.4	5.4	0.3	100.0
	30대	2,172	33.2	46.2	15.6	4.7	0.4	100.0
	40대	2,452	32.3	47.1	17.2	3.2	0.3	100.0
	50대	2,590	35.1	45.5	16.1	3.2	0.2	100.0
	60대	1,868	35.3	47.9	13.8	2.8	0.2	100.0
	70대 이상	1,540	39.1	44.3	13.0	2.2	1.4	100.0
	가구 전체 소득	100만원 미만	802	39.1	45.2	12.3	3.4	0.0
	100~200만원 미만	1,124	38.5	41.4	15.3	3.7	1.1	100.0
	200~300만원 미만	2,071	34.1	46.6	15.3	3.5	0.4	100.0
	300~400만원 미만	2,711	33.9	45.7	16.6	3.2	0.6	100.0
	400~500만원 미만	2,789	32.0	47.5	16.5	3.8	0.2	100.0
	500~600만원 미만	2,010	32.3	44.3	19.0	4.1	0.3	100.0
	600~700만원 미만	1,282	33.6	46.2	14.6	5.1	0.6	100.0
	700~1,000만원 미만	750	38.0	45.5	13.6	2.8	0.1	100.0
	1,000만원 이상	232	34.7	44.5	15.5	5.0	0.3	100.0
주택 유형	단독주택	2,650	37.5	44.7	14.6	2.9	0.3	100.0
	아파트	7,659	35.1	46.4	15.4	2.7	0.4	100.0
	연립주택/다세대주택	2,902	28.8	45.8	18.4	6.4	0.6	100.0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170	38.6	40.8	13.4	5.8	1.4	100.0
	오피스텔	376	34.4	37.0	19.1	9.1	0.4	100.0
	기타	15	0.0	45.1	43.4	11.5	0.0	100.0
도시 규모	서울시	2,598	19.2	43.6	26.4	9.5	1.3	100.0
	광역시	3,406	36.8	44.8	16.2	2.2	0.0	100.0
	중소도시	5,484	35.7	47.7	13.6	2.7	0.3	100.0
	읍면지역	2,284	43.7	44.3	9.6	2.0	0.5	100.0

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전국범죄피해조사)(2020) 활용하여 연구진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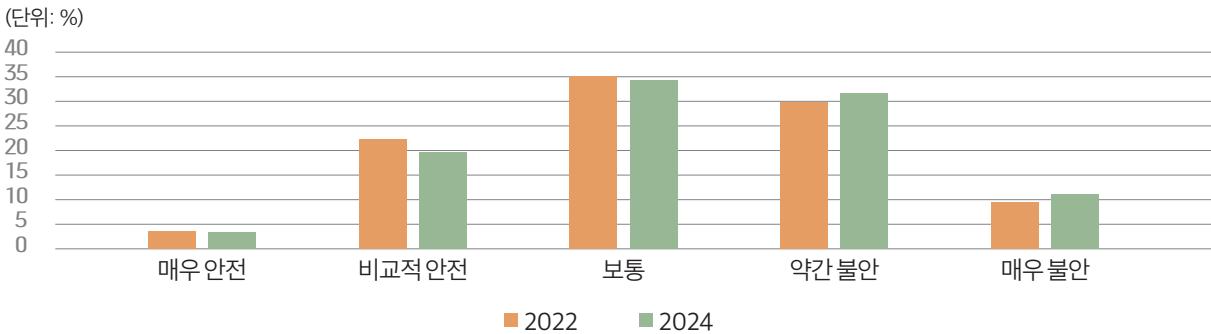
2. 통계청 사회조사(2024)

이 절에서는 통계청 사회조사(2024)에서 발표한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와 불안 요인, 야간 보행에 대한 인식도와 불안 요인에 대해 소개한다.

1)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와 불안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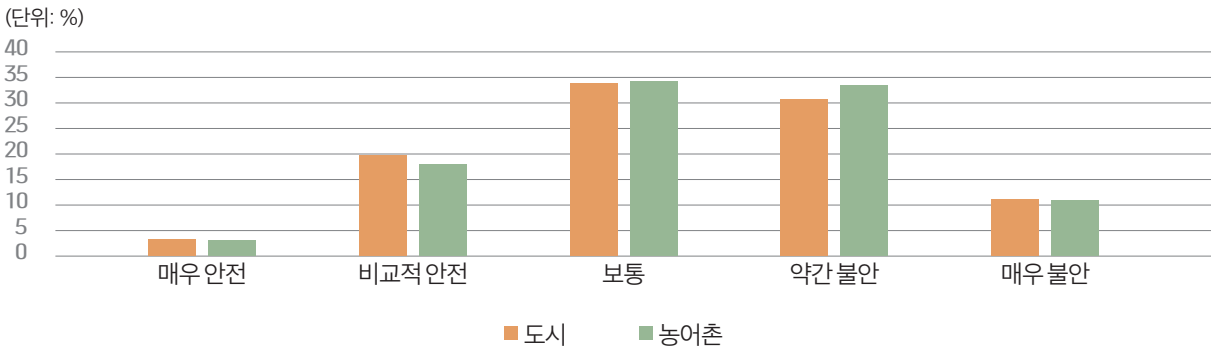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2024년 기준,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은 2022년에 비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안전하다’고 느낀 비율은 22.9%로 2022년(25.9%)보다 감소하였으며, 반대로 ‘불안하다’는 응답은 39.1%에서 42.7%로 증가하였다. 특히 농어촌의 불안 인식이 도시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 지역 간 체감 안전 수준의 격차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는 범죄뿐 아니라 교통, 재해, 치안 인프라 등 생활 환경 전반의 안전 인식에 영향을 받는 결과로 해석된다. 전체적으로 국민 다수가 일상 속에서 ‘불안감이 일상화된 사회적 정서’를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65] 통계청 사회조사(2024)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변화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2024) 활용하여 연구진 재작성.



[그림 66] 통계청 사회조사(2024) 사회 안전에 대한 도시와 농어촌 간 인식 비교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2024) 활용하여 연구진 재작성.

[표 36]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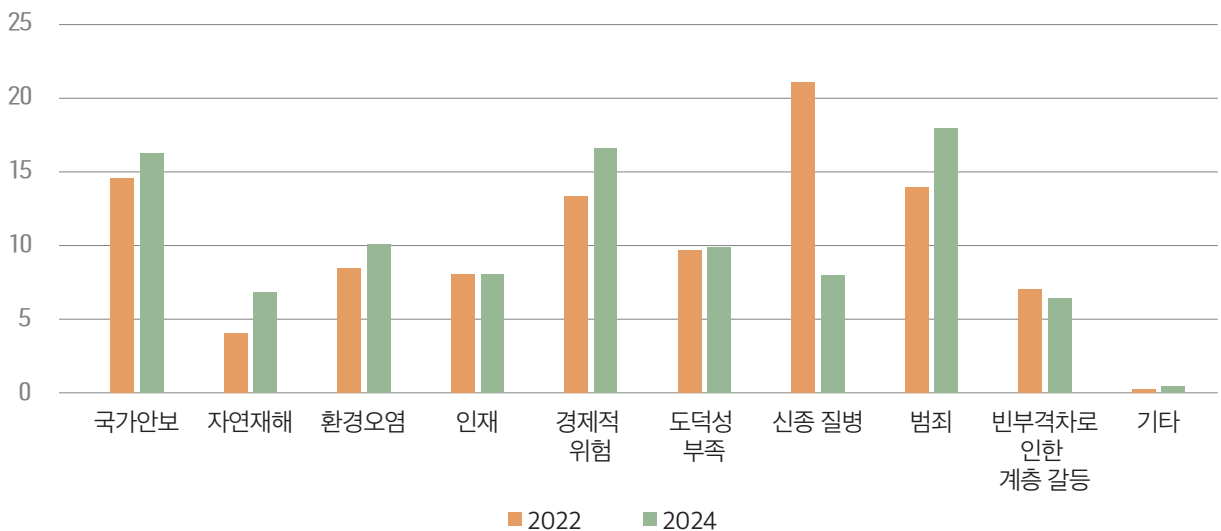
	계	안전함 느낌			보통	불안함 느낌		
		매우 안전	비교적 안전	약간 불안		매우 불안		
2022	100.0	25.9	3.6	22.3	35.0	39.1	29.7	9.4
2024	100.0	22.9	3.3	19.7	34.3	42.7	31.6	11.1
도시(동부)	100.0	23.3	3.3	20.0	34.3	42.4	31.1	11.3
농어촌(읍면부)	100.0	21.3	3.1	18.2	34.7	44.0	34.0	11.0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2024) 활용하여 연구진 재작성(* 도시/농어촌 응답은 2024년 기준).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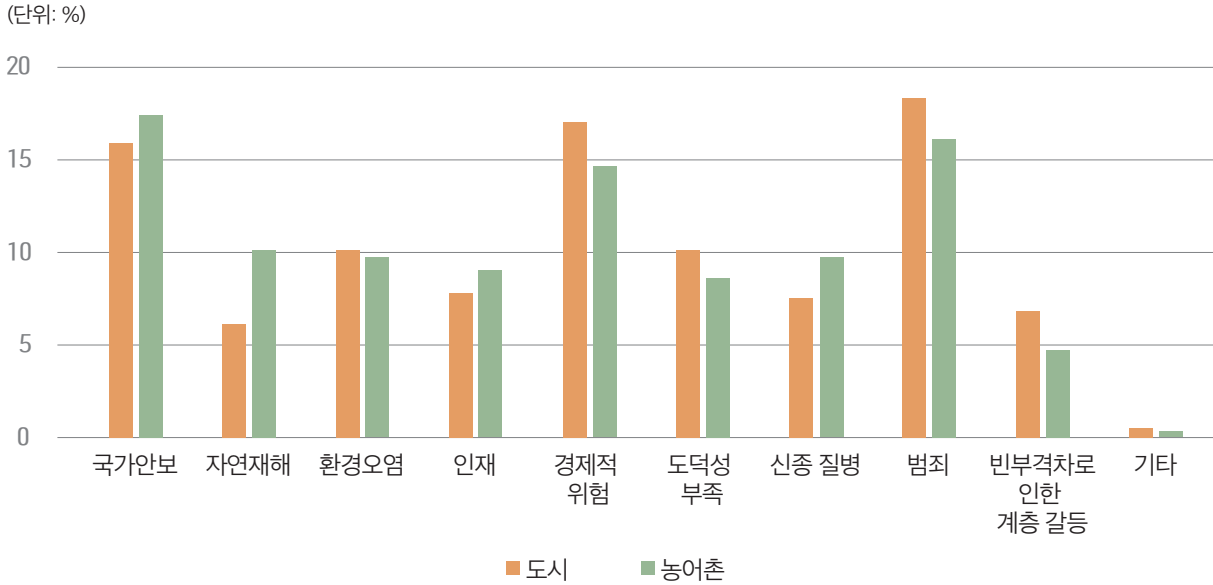
2024년 국민이 인식하는 사회적 불안 요인 중 범죄(17.9%)는 가장 큰 사회 불안 요인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는 2022년(13.9%) 대비 크게 증가한 수치로 범죄에 대한 체감 불안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도시(18.3%)가 농어촌(16.1%)보다 범죄 불안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인구 밀집도와 사회적 갈등, 익명성 등 도시적 요인과 관련된다. 반면 농어촌에서는 ‘자연 재해(10.1%)’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아 환경적 요인과 공동체 신뢰 수준이 체감 불안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전체적으로 2024년의 결과는 경제적 불안과 범죄 불안을 공존하는 사회적 불안 구조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위: %)



[그림 67] 통계청 사회조사(2024) 사회 불안 요인에 대한 인식도 변화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2024) 활용하여 연구진 재작성.



[그림 68] 통계청 사회조사(2024) 사회 불안 요인에 대한 도시와 농어촌 간 인식 비교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2024) 활용하여 연구진 재작성.

[표 37]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

(단위: %)

	계	국가 안보	자연 재해	환경 오염	인재	경제적 위험	도덕성 부족	신종 질병	범죄	빈부격차로 인한 계층 갈등	기타
2022	100.0	14.5	4.0	8.4	8.0	13.3	9.6	21.0	13.9	7.0	0.2
2024	100.0	16.2	6.8	10.0	8.0	16.5	9.8	7.9	17.9	6.4	0.4
도시 (동부)	100.0	15.9	6.1	10.1	7.8	17.0	10.1	7.5	18.3	6.8	0.5
농어촌 (읍면부)	100.0	17.4	10.1	9.7	9.0	14.6	8.6	9.7	16.1	4.7	0.3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2024) 활용하여 연구진 재작성(* 도시/농어촌 응답은 2024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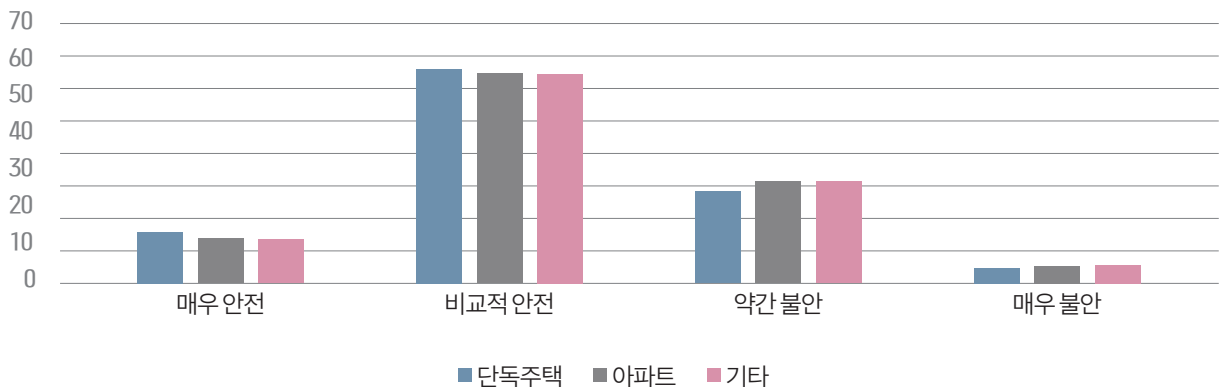
2) 야간 보행에 대한 인식도와 불안 요인

야간 보행의 안전도 인식

2024년 기준, 우리 국민의 야간 보행에 대한 안전 인식은 전반적으로 2022년과 유사하나 여전히 절반 이상이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다.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9.5%로 2022년(70.4%)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매우 불안하다’는 응답은 3.7%로 증가하였다. 성별 차이는 뚜렷하여 남성의 84.2%가 ‘안전하다’고 답한 반면, 여성은 55.1%에 그쳐 여성의 체감 불안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큰 차이가 없으나 주관적 삶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불안 비율이 높아 심리적·사회적 요인이 체감 안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해석된다.

주택유형별 야간 보행 안전 인식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비교적 안전하다’는 응답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며 주거 형태에 따른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단독주택 거주자의 경우 ‘안전함’을 느낀 비율이 71.9%로 가장 높았고, 그중 ‘매우 안전하다’는 응답이 13.9%로 아파트(12.0%)나 기타 주택(11.8%)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불안함’을 느낀 비율은 아파트(31.2%)와 기타 주택(31.7%)이 단독주택(28.1%)보다 약간 높았다. 즉, 단독주택 거주자가 상대적으로 야간 보행에 대해 더 높은 안전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으며, 아파트와 기타 주택 거주자는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는 비율이 조금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그림 69] 통계청 사회조사(2024) 야간 보행의 안전도 인식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2024) 활용하여 연구진 재작성.

[표 38] 야간 보행의 안전도 인식

(단위: %)

		계	안전함 느낌		불안함 느낌			
			매우 안전	비교적 안전	약간 불안	매우 불안		
연도	2022	100.0	70.4	13.4	57.0	29.6	26.4	3.2
	2024	100.0	69.5	12.5	57.1	30.5	26.7	3.7
지역	도시(동부)	100.0	69.4	12.5	56.9	30.6	26.8	3.7
	농어촌(읍면부)	100.0	70.2	12.5	57.7	29.8	26.2	3.6
성별	남자	100.0	84.2	19.1	65.1	15.8	14.4	1.4
	여자	100.0	55.1	6.0	49.1	44.9	38.8	6.0
주거 유형	단독주택	100.0	71.9	13.9	58.0	28.1	24.8	3.4
	아파트	100.0	68.8	12.0	56.8	31.2	27.4	3.8
	기타*	100.0	68.3	11.8	56.6	31.7	27.6	4.1
연령	13 ~ 19세	100.0	69.5	17.4	52.1	30.5	26.0	4.5
	20 ~ 29세	100.0	70.0	18.3	51.8	30.0	25.7	4.2
	30 ~ 39세	100.0	69.6	15.0	54.6	30.4	26.3	4.0
	40 ~ 49세	100.0	69.4	11.2	58.3	30.6	27.5	3.1
	50 ~ 59세	100.0	69.7	9.8	60.0	30.3	26.9	3.4
연령	60세 이상	100.0	69.2	9.9	59.3	30.8	27.1	3.7
	65세 이상	100.0	69.8	10.2	59.6	30.2	26.2	4.0
주관적 만족도	만족	100.0	74.9	16.3	58.6	25.1	22.4	2.7
	보통	100.0	67.7	9.8	57.8	32.3	28.6	3.8
	불만족	100.0	59.8	10.3	49.5	40.2	33.5	6.7

주*: 연립·다세대 주택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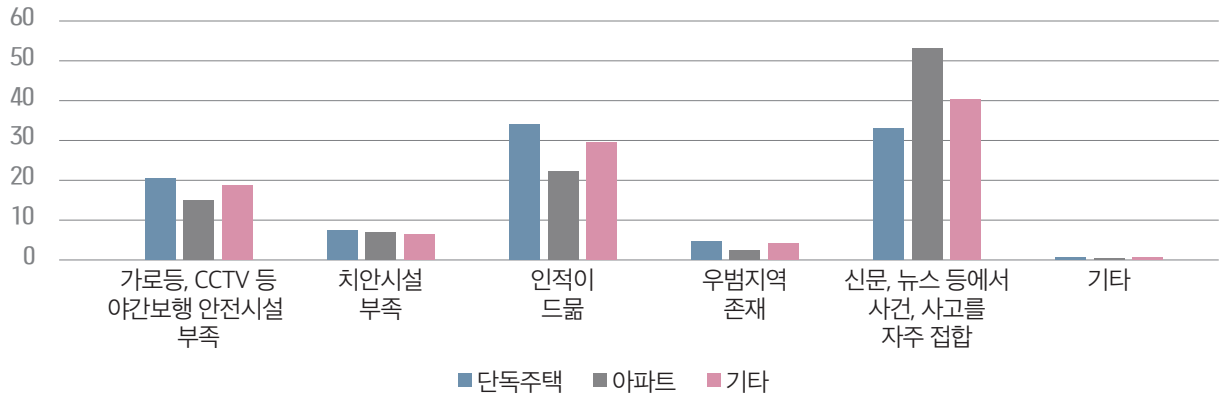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2024) 활용하여 연구진 재작성.

야간 보행이 불안한 이유

야간 보행 시 불안감을 느끼는 주된 이유로는 '신문·뉴스 등에서 사건·사고를 자주 접함'(46.3%)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인적이 드물다'(26.4%)와 '야간 보행 안전시설 부족'(16.9%) 순으로 조사되었다. 즉, 미디어를 통한 범죄 노출이 실제 범죄 경험보다 체감 불안을 더 크게 자극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사건·사고 노출'(49.5%)이, 농어촌 지역에서는 '인적이 드물다'(38.0%)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 공간적 차이를 보였다. 야간 보행이 불안한 주요 이유는 주택유형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아파트 거주자는 '신문·뉴스 등에서 사건·사고를 자주 접한다'(53.2%)는 이유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단독 주택(33.1%)과 기타 주택(40.4%)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대로 단독주택 거주자는 '인적이 드물다'(34.0%)와 '야간보행 안전시설이 부족하다'(20.5%)는 응답이

높아 물리적 환경 요인에 대한 불안이 상대적으로 크다. 기타 주택 유형은 두 요인이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아파트는 간접적 정보 노출로 인한 심리적 불안, 단독주택은 실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체감 불안이 주요 원인으로 구분된다.

(단위: %)



[그림 70] 통계청 사회조사(2024) 야간 보행이 불안한 이유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2024) 활용하여 연구진 재작성.

[표 39] 야간 보행이 불안한 이유

(단위: %)

	연도	계	가로등, CCTV 등 야간보행 안전시설 부족	치안시설 부족	인적이 드물	우범지역 존재	신문, 뉴스 등에서 사건, 사고를 자주 접함	기타
연도	2022	100.0	19.5	7.8	27.4	3.2	41.4	0.6
	2024	100.0	16.9	6.9	26.4	3.2	46.3	0.5
지역	도시(동부)	100.0	15.6	7.0	24.0	3.5	49.5	0.5
	농어촌(읍면부)	100.0	23.0	6.2	38.0	1.7	30.8	0.3
성별	남자	100.0	20.1	8.4	24.7	4.4	42.0	0.4
	여자	100.0	15.8	6.3	26.9	2.7	47.8	0.5
주거 유형	단독주택	100.0	20.5	7.3	34.0	4.5	33.1	0.5
	아파트*	100.0	14.9	6.8	22.3	2.4	53.2	0.4
	기타	100.0	18.8	6.4	29.7	4.1	40.4	0.6

주*: 연립·다세대 주택 포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2024) 활용하여 연구진 재작성.

References

참고문헌

경찰청(2023). 경찰청범죄통계(2023년 기준).

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List.do?q_bbsCode=1115&estnColumn2=%EB%85%84%EB%8F%84 (접속일: 2025.7.1.)

대검찰청(2024). 2024 범죄분석(2023년 기준). <https://www.spo.go.kr/site/spo/crimeAnalysis.do> (접속일: 2025.7.1.)

통계청(2024). 2024년 사회조사 결과(범죄와 안전 부문). https://mods.go.kr/board.es?mid=a10301060300&bid=219&act=view&list_no=433638 (접속일: 2025.7.1.)

통계청(2025). 집계구·행정구역별 통계(인구, 가구, 주택)(2023년 기준). SGIS 통계지리정보서비스. <https://sgis.kostat.go.kr/view/pss/openDataIntrcn> (접속일: 2025.10.1.)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2021).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전국범죄피해조사) 2020 https://www.kicj.re.kr/board.es?mid=a10101000000&bid=0001&tag=&act=view&list_no=10543 (접속일: 2025.7.1.)

행정안전부(2023). 주민등록인구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list_id%3DA_7%26obj_var_id%3D%26seqNo%3D%26tblId%3DDT_1B040A3%26vw_cd%3DDMT_ZTITILE%26orgId%3D101%26path%3D%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26conn_path%3DDMT_ZTITILE%26itm_id%3D%26lang_mode%3Dko%26scrid%3D%26 (접속일: 2025.10.1.)

공간으로 읽는 범죄 데이터

지은이	조영진, 김영준, 문보람, 김은희
연구지원	이하경 카이스트 박사과정
펴낸곳	건축공간연구원
출판등록	제2015-41호 (등록일 '08. 02. 18.)
인쇄	2025년 12월 26일
발행	2025년 12월 31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8층
전화	044-417-9600
팩스	044-417-9608

<http://www.auri.re.kr>

가격 비매품, ISBN 979-11-5659-521-2

이 단행본의 내용은 건축공간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